

速記界

第 35 號



社団法人 大韓速記協會

■ 권두언 : 새로운 천년의 시대를 슬기롭게 맞이합시다/ 지대섭

■ 초점 : 속기사 - 기능직인가 전문직인가?/ 홍기표

■ Intersteno 소식

- 제42차 인터스테노 총회참석보고 / 국제부
- '98인터스테노 분임토의 주제발표
 - 뇌를 활성화해 주는 속기와 타자/ 요셉 코코우렉
 - 기록을 위한 정보차원의 공헌/ 파올로 트리블지오
- 제42차 인터스테노 참관기/ 이경식

■ 자료파일

- 회의록작성의 현황과 가까운 미래
- 일본중의원기록부의 경우

■ 세미나

- 제5회 속기학술세미나 이모저모/ 홍보부
- 제5회 속기학술세미나 설문결과분석/ 홍보부
- 제6회 속기학술세미나 스케치/ 전국지방의회 속기사협의회

■ 논단 : 빠른교정의 응용/ 한기수

■ 한국속기 50년사 집필기 : 마지막 원고감수는 끝났는데..../ 유순태

■ 확대경 : 허위·과장광고에 실직자는 울었다./ 자격심사위원회

■ 회고록 : 속기와 나/ 이강현

■ 인터넷 제언 : 속기업무의 용역은 가능한가/ 윤태원

■ 회원등산

- 인생은 마라톤이다/ 박순필
- 새로운 세대를 열망하여/ 김재학
- 5년간의 불초주야/ 최상원
- 시 : 속기에게/ 김학순

■ 소식

- 협회동정
- 회원동정
- 발전기금 납부자 명단
- 협회임원

■ 편집후기

새로운 천년의 시대를 슬기롭게 맞이합시다



회장 지대섭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습니다.

돌이켜 보면 1998년은 그 어느 해보다 안과 밖으로 多事多難했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의 국난'이라 이름 불리던 'IMF 구제금융'의 위기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혼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경제부문의 구조조정을 시작으로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많은 진통과 갈등이 뒤따랐으며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모름지기 모든 일에 원인 없는 결과가 없듯이 오늘 우리가 겪는 이 모든 고통들은 우리들 자신이 자초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한 해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온 국민이 힘을 합쳐 뼈를 깎는 고통에 동참하고 열심히 일한 덕분에 외환위기의 파고를 넘을 수 있었으며, 지난 날 우리를 두텁게 싸고 있었던 각종 비리와 불합리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무릇 고난을 통하여 배우지 못하는 만족은 계속 고난의 역사를 되풀이

할 수밖에 없다는 서양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 한 해는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주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지난 98년은 이 땅에 한국 속기계가 태동한 지 50주년이 되는 해로 우리 속기계로서는 매우 뜻 깊은 해이기도 했습니다. 우선 제헌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의회사와 함께 수많은 격동의 순간들을 겪어 온 속기계의 반세기 역사를 한 데 모아 《한국속기50년사》를 편찬하게 된 것은 우리 나라 속기문화사적으로 보아 커다란 업적이라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협회에서는 스위스 로잔느에서 열린 제42차 인터스테노 총회에 참석하여 전세계의 속기인들과의 교류를 통해 한국 속기문화를 널리 아리고 돌아왔으며 강원도 평창과 대전에서 열림 제5회 속기학술세미나 및 제6회 속기학술세미나도 회원들의 뜨거운 호응과 협조 속에서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천년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오해는 1900년대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세기인 2000년대를 맞이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선배속기인들이 아무 것도 없던 황무지에 '속기'라는 씨앗을 심어 싹을 틔우고 한 그루의 튼실한 나무로 성장시켜 놓았다면 오늘의 우리는 새시대가 요구하는 전문속기인의 자세로 지금의 위기와 고통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다음 시대에 올 또 다른 이들을 위한 열매를 맺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회원들 몸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국회의원)

속기사 기능직인가, 전문직인가?

홍기표



1. 속기에 대한 몰이해

"기자가 공익성과 연관되어 있다는 말과 함께 나는 기자가 결코 속기사가 아니라는 말도 하고 싶다. 속기사는 아무런 주관적 직업 없이 정확하게 옮겨 놓기만 하면 되지만, 기자는 그 내용의 의미와 경중을 가리는, 이른바 부가가치 작업을 해서 기사를 만들어내는 책임이 있다."

위 인용문은 이름만 대면 금방 알 수 있는 어느 저명인사가 몇 년전 한 월간지에 기고한 글 중의 한 대목이다.

기자라는 직업인의 사회적 책임과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사작성 업무의 특성을 속기업무와 비교하여 쓴 글이다. 이 저명인사가 이해라고 있는 바로는, 속기는 그저 말하는 대로 어떤 가감도 없이 정확하게 문자화만 시켜 놓으면 되는 것이요, 따라서 속기록을 작성함에 있어 속기사는 아무런 주관도, 발언내용의 의미나 경중을 가릴 만한 판단력도 필요없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타자수가 자판만 익히면 타자를 쳐내듯이 속기술만 익히면 누구라도 속기록을 작성해 낼 수 있는, 기계적 단순업무에 속하는 하위직종일 뿐이라는 것이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속단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신문기자는 속기사가 아니다. 마찬가지로 속기사도 신문기자가 아니다. 신문기자는 사실의 전달을 목적으로 하지만 속기록은 음성언어를 문자언어로 재생·전달하는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문자화로서 끝낼 수 있는 작업이 결코 아니다. 속기록의 정확성은 속기사의 선천적·후천적 언어감각과 이해력, 그리고 지식 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상세한 내용은 후술). 개인의 기호에 따라 사과를 좋아하거나 배를 좋아할 수는 있다. 그러나 자신이 사과를 선호한다 하여 혹은 사과농사를 짓는다 하여 사과가 배보다 고급의 과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사과는 맛도 좋고 빛깔도 고우니까 누렁기만 한 배보다 고급의 과일이다? 그것은 평생 배를 먹어 보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얘기다. 사과가 사과로서의 맛과 품질이 있다면, 배는 배로서의 고유한 맛과 품질이 있는 바이다.

한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속기에 대한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속단이 우리 사회에서는 아무 이의 없이 상식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저명 인사만을 나무랄 수도 없는, 사회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속기사에 대한 인식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속기문화의 발전에 있어서 우리 속기인들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우리 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속기사는 '말을 기계적으로 받아적는 사람' 정도로 알고 있고 그러한 이유로 속기사를 간단히 기능인으로 치부해 버린다. 다만 속기사들이 보통 기능인과 다르다고 인정하고 부러워하는 것이 있다면 언어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는 '스피드'하나뿐이다. 오직 스피드만 습득하면 그저 말하는 대로(심지어는 들리는 대로)써 주기만 하면 되니까 속기록을 작성해 내는 것은 누구라고 할 수 있는, 별 것 아닌 일이라고 쉽게 단전해 버리는 것이다. 실제로 상공회의소에서 시행하는 속기사 자격시험조차도 단지 스피드 테스트만으로 실시되고, 그 정확도(90% 이상)에 의해 자격증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오직 스피드 하나만으로 속기사로서의 적부적을 결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속기를 모르는 일반인들의 경우라면 이러한 잘못된 이해를 인식부족으로 돌려 굳이 맞출 필요가 없겠지만 대부분의 속기인들 역시 속기업무를 그저 말하는 대로, 혹은 들리는 대로 열심히 받아 적어서 그대로 문자화만 하면 끝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또한 그러한 자세로 속기록을 작성해 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스피드 위주의 양성과정을 거쳐서, 스피드 중심의 시험을 통해서 속기사를 배출하다 보니까 속기업무의 본질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이들이 속기사 행세를 하는 세상이 되었고, 우리 나라의 중요한 속기록들이 대부분 그러한 이들에 의해서 작성되고 있는 현실이 되어 버린 것이다.

기능인이란 기술적인 재주와 능력을 가진 사람을 뜻한다(동아국어대사전). 그러한 기능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작업은 종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단순하면서도 반복적인 동작을 그 특성으로 한다. 특수한 전문지식도 필요 없고, 특별히 머리 쓸 것도 없이 일정한 동작에 숙달되지만 하면

누구든지 숙련공으로 인정을 받는다. 물론 전체적인 공정을 염두 해 두고 작업해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분업화되어 있는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그런 경우가 극히 드물다.

그러면, 속기업무가 과연 단순하면서도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업무인가? 속기업무가 과연 단순·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속기의 대상인 인간언어의 구조가 단순·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가 된다. 그러나 응원이나 데모대의 구호가 아닌 다음해야 인가의 언어는 단순·반복적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설사, 그런 경우가 있다 해도 그러한 것은 속기로서 남길 만한 어떤 가치나 필요조차 없는 거일 게다. 수많은 단어들의 수만 가지 순열·조합에 의해서 각인각색의 생각과 인간사회·삼라만상의 제반 현상을 담아내는 인간의 언어가 어찌 단순·반복적이지 않기에 속기로서의 작성은 스피드 위주의 단순한 기능인에 의하여 말하는 대로 혹은 들리는 대로 받아 적음으로써 해결 될 수 있는 기능적 업무가 결코 될 수 없는 것이다.

영국의 세계적인 복음주의 설교자였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의 설교집 '산상수훈 강해' 서문에 이렇게 적고 있다.

"이 책이 활자화된 데에는, 이 설교가 전해질 때 거의 기적적으로 속기에 담을 수 있었던 F. 허칭스부인과 나의 여식 엘리자베스 캐더웃의 소고에 힘입었습니다."

현대속기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Pitman과 Gregg의 나라요, 의회출입 기자가 높은 보수와 보람을 찾아서 의회 속기사로 전직하는 나라, 의회민주주의의 선진국답게 영국에서는 속기업무의 어려움에 대한 이해가 보편화되어 있는 것 같다.

방언속도가 빠르다. 이해할 수 없다. 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을 기록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을 바로 우리 속기사들이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고통들이다. 그것도 한두 시간이나 몇날 며칠에 고통이 아니라 일생에 걸친 고통이다. 그러한 고통과 정면으로 부딪쳐서 속기사는 '완벽한 속기록'이라는 기적을 만들어 내야 하는 것이다. 평생에 걸쳐 그러한 기적을 만들어 내려면 속기사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아무나 기능만 익힌다고 감당할 수 있는 분야는 결코 아닌 것이다. 모름지기 남다른 능력의 소유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2. 속기사의 조건

어느 분야에 종사하던 그 분야의 실무를 능숙하게 처리해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열심을 다하는데도 실적이 따라주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것은 사람 따라 자질과 소양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속기업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제아무리 1급 속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고 하여도 다 같은 속기사 아닌 것이다. 실무능력은 천차만별로 나타나는 것이다. 실무능력의 우열, 속기록의 질의 우열은 곧 그 사람이 속기사로서의 자질과 소양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우수한 속기사냐 아니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우수한 속기사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속기개관'(1969. 국회사무처간)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말과 이론을 잘 이해하고, 그 발언내용을 어그러뜨림 없이 기록하며, 자유로이 용어를 구사하며 번문에 비판적 판단을 가할 수 있는 자'라고

이 정의에서 우리는 속기사에게 요구되는 세 가지 능력을 도출해 낼 수 있다.

- ① 말과 이론을 잘 이해하며 - 청취 능력
- ② 그 발언내용을 어그러뜨림 없이 기록하며 - 운필 능력
- ③ 자유로이 용어를 구사하며 번문에 비판적 판단을 가할 수 있는 자 - 수문 능력

즉, 청취능력·운필능력·수문능력이 세가지는 완벽한 속기록의 작성을 위해 속기사가 구비해야 할 3대 조건이라 할 것이다. 이 세 가지 능력이 최고도로 발휘될 때 비로소 완벽에 가까운 속기록의 작성은 가능해지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속기사의 3대 구비조건에 대하여 좀더 고찰해 볼 필요가 있겠다.

1) 청취능력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속기의 대상은 인간의 언어(말)이다. 언어란 인간이 마음 속에 지니고 있는 생각을 남에게 알리기 위하여 입으로 내는 소리(음성)이다. 말이 되는 소리는 반드시 뜻(의미)을 지니고 있다. 속기란 단순히 소리를 적는 것이 아니고 말을 받아적는 것이다. 소리는 설사 '바담뽕'이라고 하더라도 속기사는 마땅히 의미를 지닌 '바람뽕'으로 알아듣고 기록해야 한다. 혹자가 누가 바람뽕을 바담뽕이라고 하겠느냐 하겠지

만, 그러한 오류는 발연과정에서, 전달과정에서 또는 정취과정에서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13억5,391억달러'라고 하여 사람을 헛갈리게 하는가 하면, '漁具類', '漚造', '收유'를 '어구류', '웨조', '수유'라고 낭독하고, 때로는 얘기에 치중한 나머지 '천사-악마' 정도의 정반대 낱말을 계속바뀌 쓰면서도 정작 본인은 깨닫지 못하는 수가 있다. 그런가 하면, 듣는 이에 따라서는 'UR협상', '시장share', '특계자금', 을 '6월협상', '시장수요', '특혜자금'으로 오칭하기도 한다. 일반 청중들이야 발연자의 발음이 부정확하거나 자신의 청취력이 좀 부족해도 전체적인 내용만 차악하면 그만이요, 설사 내용과악을 못한다 해도 누구에게 책임질 일은 없다. 그러나 속기사가 이러한 오류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말하는 대로 혹은 들리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정확하게 옮겨놓기만'한다면 그것은 속기록으로서 치명적인 결함을 갖게 되고, 그러한 속기록은 읽는 이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게 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 그러한 현상이 심화되다 보면 그로 인하여 속기록의 존재가치마저 의심 받게 될 것이다.

속기의 대상이 언어이기에 속기사는 1차적으로 음성언어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음성언어의 전문가란 학문적 의미에서의 전문가가 아니다. 음성(발음)은 비록 불분명할지라도 이를 '의미 있는'언어로 정확히 새겨들을 수 있어야 하며, 단어 하나하나가 구성해 내는 전체 발연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넓기가 끝난 데를 모르고(광대대무변), 그 양태 또한 비길 데 없이 변화무쌍한 것이 바로 언어의 세계이다. 언어는 인류 5천년 역사의 지식과 지혜를 다고 있는 그릇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모든 사람의 음성언어를 언제 어디서든 그 내용이 나 논리에 구애받지 않고 정확히 알아듣고 정확히 기록해 낸다는 것은 실로 '기적'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가 모르는 외국어를 듣고 그 음을 정확히 잡아내기는 어렵다. 그것은 또한 자기가 모르는 분야의 전문용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설사 청취는 정확히 한다 하더라도 정확한 기록은 불가능하다. 評價切下(→平價切下)나 2차보전(→利差補填), 繼續中(→繫屬中)인 재판. ATNT(AT&T)같은 것이 그 대표적인 예들이다. 더 나아가, 일상의 평범한 단어로만 이루어진 발연이라 하더라도 그 방언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정확한 청취가 불가능해진다.

일본의 동력로 핵연료 개발사업단이 추진하고 있는 신형로 개발현황은

어떤 것이나, 간단히 말씀드리면 동연이라고 합니다. 핵연료 재처리 기술 개발과 아울러 고속증식로 상용화기술개발을 추진하여 실험로인 SOYO를 건설해서 77년 4월에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원형로인 MONJU(문주)를 1992년 초임계 목표로 현재 목하 건설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발언내용을 정확히 청취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속기인 중에 과연 몇이나 될까? 결국, 청취력이 높다는 것은 이해력이 높고 어휘력이 풍부하다는 뜻이요, 이해력이 높고 어휘력이 풍부하다는 것은 곧 그 사람의 지식수준이 높음을 뜻한다. 그러기에 청취력은 지식수준과 비례한다. 발언과정에서, 전달과정에서 또는 청취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오류를 제대로 그 사람의 지식수준에 좌우되며, 생전 처음 듣는 내용이나 용어에 대해서도 이를 유추하여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역시 그 사람의 지식수준에 절대적 영향을 받는다. 속기교육에 있어 스피드의 습득 이전에 청취력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인 것이다.

2) 운필능력

언어속도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타이의 별언을 발성과 동시에 속기문자 화해 낼 수 있는 능력을 운필능력이라 한다.(기계속기의 경우는 운지능력이라는 용어가 적합할 것이다.) 일반인들이 속기의 전부로 알고 있는 스피드능력이다.

그러나 운필능력은 속기를 배우다고 누구나 습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속기술이 여태 기능과 다른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점일 것이다. 일례로, 운전면허는 한두 번 실패를 한다 해도 몇 번 시도하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면허증을 취득한다. 그러나 속기만은 그렇지 않은 것이 소질 없는 사람은 10년을 매달려도 조금히 1급에 도달을 못하는 것이다. 물론 누구나 속기를 배우면 어느 정도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전문 직업속기사로서의 운필능력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노력 이전에 천부적인 소질이 필수적인 것이다. 그것은 노래는 누구나 배우고 또 즐겁게 부를 수 있지만, 직업가수가 되려면 개인적인 노력 못지 않게 타고 난 미성과 끼를 필요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속기사에게 필요한 천부적인 소질이란 빠른 손놀림과 순간순간 언어를 분석·부호화할 수 있는 예민한 언어감각이다. 그 동안의 속기교육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런 소질을 타고 난 사람은 20~30명에 한두 명꼴이었다. 그것도 국회속기사양

성소의 경우는 대개 5대 1 이상의 경쟁을 통해 선발된 비교적 우수한 학생임에도 그 정도였다. 그러기에 전문 직업속기사가 되고자 하는 이에겐 속기교육 이전에 적성검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발언내용을 이해하면서 기록하는 것이 발언내용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 비해 속기문자 운필이 훨씬 수월함은 우리가 속기 실무시에 익히 경험하고 있는 바이다. 이는 폭넓은 교양교육이 속기교육에 선행되어야 함을 반증한다 하겠다. 실제로 이태리·영국 같은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국회속기사양성소 학생 모집시 응시자격을 대졸 이상으로 하여 소정의 교양시험에 합격한 자만을 대상으로 속기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속기사의 지식수준이 속기이론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운필능력이나 실제 업무수행능력과도 밀접한 상관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운필능력에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국회속기사 채용시험을 비롯하여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자격시험에 이르기까지 그 자격기준이 1급 속기사의 경우 연설체 속도가 분당 320자로 굳어져 버렸다는 사실이다.

국회속기사양성소가 1968년에 설립된 후, 당시 관계자들에 의하여 의회속기법식이 창안되었고, 의회법식은 언어속도를 따라잡는 데 어느 법식보다 우수하여 1971년도 국회속기사 채용시험부터는 연설체 속도를 분당 330자, 논설체는 290자로 상향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었다. 그러던 것이 10여년이 지난 어느 해인가부터 연설체는 슬그머니 320자 후퇴해 버렸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알 수가 없으나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대목이다. 언어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는 추세인데 340~350자로 올리지는 못할망정 다시 320자라니...? 1995년도 국회속기사 채용시험을 앞두고 속기과에서는 다시 330자로 상향조정하여 시행할 것을 건의한 바 있으나 당시 기계속기와의 관계등으로 하여 이 건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과거 십수년 전에는 1분간 290자 내지 300자를 기록하면 당시로서는 속기업무를 수행함에 지장이 없었으나 그후 수년이 지나서는 1분간 320자 정도의 능력이 요구되었고, 근래에는 1분간에 330자 내지 340자까지의 속기능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보다 더 고속을 필요로 할 날이 곧 오리라는 전제하에 속기의 고속화에 대비한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며, 이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속기계>15호(1975. 7)에 게재되었던 '언어속도에 대한 고찰'이라는 제

하의 김영춘 선배의 글이다. 벌써 20여년 전의 얘기다. 속기 실무자들은 이글의 의미를 실감할 것이다. 수필속기든 기계속기든 현대인들의 빨라지는 언어속도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분단 320자라는 속도를 뛰어넘지 않으면 안된다. 언어체계에 대한 꾸준한 연구로 속기법식을 지속적으로 개량해 나가야 할 것이며, 속기사의 자격기준 또한 상향조정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3) 수문능력

국회에서 어느 의원이 문제발언을 했다고 하자. 신문기자는 그 내용을 기사화할 것이요, 속기사는 그 내용을 속기록에 빠짐없이 담아낼 것이다. 그러면 신문기사와 속기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비유컨대, 신문기사가 물고기를 잡아서 보기 좋고 먹음직하게 만들어 놓은 생선요리라고 한다면 속기록은 그 물고기를 산 채로 잡아넣어 그 아름다움을 선명하게 관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수족관과 같다하겠다. 그러기에 신문기사는 일단 사람들의 눈길을 끌도록 작성되어야 하겠지만 속기록은 거기에 담긴 단어 한마디 한마디가 숨을 쉬고 살아 움직여야 하며, 회의장의 분위기가 그대로 배어 있어야 한다. 말한 것을 제아무리 정확히 옮겨놓았다 해도 언어가 살아서 숨을 쉬지 않으면 그것은 수족관에 죽은 고기가 떠 있는 것과 같이 보기 흉한, 가치가 떨어지는 속기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발언한 것을 한마디도 빠지 아니하고 말하는 그대로 정확하게 문자로 옮겨놓기만 하면 언어가 숨을 쉬고 살아 움직이는가? 아니다!! 진지하고 열띤 발언들이 속기록에서는 맥빠진 활자가 되어 누워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활자에는 말할 때의 감동이나 분위기가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음성언어가 입체적임에 반해 문자언어는 평면적이기 때문이다. 음성언어는 때로는 제스처가 동원되기도 하고 얼굴표정이나 억양에 따라서 그 의미를 달리 할 때가 많다. 그것을 말하는 대로 음성만 문자화해 놓고 가면 얼른 이해도 안 될뿐더러 내용이 왜곡되거나 파악조차 어려울 때도 있다. 문법 같은 것은 생각지 않아도 잘 이해되던 발언들이 글로 옮겨놓으면 사정이 일변하는 것이다. 발언자의 입에서 흘러나올 때는 음성언어였지만 활자화되고 나서는 문자언어로서 사람에게 다가오게 된다. 따라서 속기록의 번문은 단순히 음성언어를 문자화하는 기계적 작업으로 끝나서는 아니된다. 한마디 한마디 단어의 의미와 문맥상

적합성 여부를 음미하면서 문자언어로서의 구실을 할 수 있도록 바로잡아 주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바로 수문의 필요성이다.

그러나 이러한 수문작업은 어떤 원리 원칙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어설픈 작문실력만으로 함부로 수문을 했다가는 발언내용은 더욱 왜곡전달되기 쉽기 때문이다. 그런데, 수문의 원리에 대해서는 <속기계>등에 단편적인 글은 좀 남아 있지만 본격적으로 연구한 글은 전무한 형편이다. 확립된 수문의 원리 원칙도 없고 교육조차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속기사마다 제 나름대로의 수문작업을 하고 있어서 속기책을 읽다 보면 계속적으로 교차되는 구구각색의 문체가 꼭 얼룩송아지를 대하는 느낌이 등 때가 많다.

회의체 속기책을 작성함에 있어서 수문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누군가 본격적으로 달려들어 연구도 해야 할 것이고, 여러 속기인의 토론을 거쳐 어떤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것이지만 여시서는 필자의 소견만 간단히 서술해 보고자 한다.

"몇 년 후 누군가가 연설문을 찾을 때 단어 하나하나가 정확하게 대통령이 말한 것과 똑 같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하는 일은 구두점과 문법과 문체를 바르게 챙기는 것이다. 이런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데 바로 정확성이다."

이것은 <신동아> 1997년 11월호에 게재되었던 미국 대통령 문서록 편집장 마이클 설리번씨의 인터뷰 내용이다. 수문의 원리를 함축하고 있는 말이라 하겠다.

구두점과 문법과 문체를 바르게 챙기는 것-문자언어는 1차적으로 구두점과 문법과 문체를 바르데 챙기는 작업에 의하여 비로소 그 의미가 정확히 살아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속기사는 우선 우리말에 대한 정확하고 체계적인 문법지식을 습득하고 있어야 한다.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각종 문장부호는 그 뜻을 정확히 전달하고자 하는 사회적 약속이기 때문이다. 사라들은 그 약속에 의해 그 정확한 뜻을 헤아린다. 또한, 먼 훗날 언어환경의 변호로 인해 그 뜻이 불분명해졌을 경우에도 사람들은 그 약속에 비추어 그 정확한 뜻을 유추해 낼 것이다. 이를 위해 속기사는 필히 표준문법을 익히고 있어야 할 것이며 또 이를 자유자재로 적용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문체를 바르게 챙기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문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발언자 특유의 어휘 억양등 언어표현의 개성을 살려낼 수 있어야 하고, 음성언어의 의미가 훼손되거나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문자로써 재생해 낼 수 있는 기술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확성이라 했다. 발언과정에서, 전달과정에서 또는 청취과정에서 발생하는 갖가지 오류를 속기사는 정확히 인지하고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 분명히 그렇게 말했다는 이유만을 내세워 오류를 그대로 써주거나, '에', '마' 따위 지저분한 간투사나 의미 없는 중복발언까지 그대로 기록하면서 '속기록의 정확성 운운...'하는 것은 한마디로 속기사로서의 자질문제라 할 것이다. 그러한 기록은 엄밀하다고는 할 수 있어도 정확하다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 더욱 문제는 자신이 이해할 수 없거나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는 적당히 자기 수준에 맞는 말로 바꾸거나 아예 빼 버리는 사라들이다. 또 자신의 형편없는 청취력은 깨닫지 못하고 말을 엉망으로 한다고 타박하는 이들 역시 마찬가지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이지 속기사가 되지 말았어야 할 사람들이다.

물론 수문에도 한계가 있다. 논리상의 모순을 바로잡아 준다든가, 거짓말을 정말로 바꾸고 무식한 말을 유식한 말로 바꾸어 주어서는 안된다. 그것은 속기사의 월권이다. 그 잘못된 발언이 의도적인 것인지, 무식의 소치인지, 그 판단은 속기록을 읽는 이들의 몫이다. 다만, 음성언어의 불구적인 문법체계를 바로잡아 주면서 동시에 발언과정에서, 전달과정에서, 또는 청취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오류를 정확히 인지, 발언내용과 의도가 제대로 전달되도록 문자언어화하는 것이 바로 속기사의 수문작업인 것이다.

3. 속기환경의 변화

다시 말하거니와, 속기록의 생명은 그 정확성에 있다. 정확성은 운필 능력만으로는 어렵도 없는 것이다. 속기를 배울 때는 우등생이던 사람이 속기실무에서는 능력이 뒤쳐지는 이유는 바로 청취능력과 수문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까닭이다. 속기사가 음성언어의 의미를 새겨듣지 못하거나 지식의 부족으로 발언내용을 이해하지 못할 때 정확성의 결여는 필연적이다. 더 나아가서, 음성언어를 문자언어화할 만한 능력이 없어서 단순히 문자화로만 끝냈을 때 발언내용의 왜곡전달 가능성은 불을 보듯 뻔하다. 속기업무에 있어서 스피드는 발성과 동시에 허공중으로 사라져 버리는 음

성언어를 순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필수요소이기는 하지만 그 스피드가 속기업무의 전부는 아니다. 속기업무는 본질적으로 음성언어를 속기문자에 의해 정착시킨 후 이를 다시 문자언어화하는 작업인 것이다. 따라서 속기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오랜 실무경험을 통하여 체득한, 음성언어와 문자언어에 대한 전문적 식견이 요구되는 것이다. 전직 미 상원 속기사인 Grant E. Perry는 '음성식별 전문가로서의 속기사'(The reporter as Discriminator)라는 글에서 이렇게 갈파한 바 있다<속기총람>제1집. 1972년 대한속기협회간).

"속기사란 잡다한 음성이 고도의 식별자(Discriminator)이며 또한 결정자(Concluder)라야 한다. 발언자가 무엇인가 확실히 발음하지 않거나 또는 발음을 빼먹는 경우에도 속기사는 곧 그 사실을 식별, 분석하고 결정을 하여 완전한 문장으로 엮어낼 수 있는 두뇌의 소지자라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속기사는 속기술만을 습득한 단순한 기능인으로서 족한 것이 아니라 음성언어 식별의 전문가이어야 하며(청취능력), 동시에 이를 완전한 문장으로 엮어낼 만한 문재를 갖추고 있어야(수문능력)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서 속기사의 그러한 방면으로의 능력은 점점 그 중요성을 더해 가리라 보면서, 그 이유를 그는 다음 세 가지로 들고 있다.

첫째, 현대인의 화술은 예전 사람보다도 굉장한 속변에다 불명료, 부정확해지는 경향이 있다.

둘째,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열심히 듣는 편이 아니다(속기사와 정신과 의사는 제외).

셋째, 언어의 구사가 대단히 전문적이어서 상호 의사소통이 점점 어렵게 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시대의 변천에 따라 우린 나라에서도 이미 현실로 다가온지 오래다. 현대는 정보화 시대요, 국제화 시대인 것이다. 이에 따라 현대사회는 시시각각 복잡한 양상을 띠면서 하루가 다르게 급격한 변화는 단지 첨단과학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환경·스포츠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일어나고 있으며, 그러한 변화는 결국 우리의 일상생활, 나아가서는 언어생활에까지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렇게 급변하는 사회환경은 그대로 속기환경의 변화로 이어져서 속기록에 담아야 할 내용은 날로 전문화되고 그 범위 또한 방대해져만 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언어속도는 빨라져만 간다. 이러한 시대변화에 직면하여 정확한 속기록을 남기기 위해선 속기인들은 먼저 빨라지는 언어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도록 속기문자의 개선에 힘써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동시에, 끊임없는 자기계발과 평생학습에 힘써야 한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자칫 청취력에 자신감을 잃게 되고, 청취력에 자신감을 잃으면 수문 작업은 업무도 못 내게 된다. 그것은 속기록의 정확성에 치명적인 오류를 가져오는 근본 원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한 오류는 이미 우리 나라의 중요한 속기록에서 수도 없이 산견되고 있는 실정이다.

신발산업이 이제는 전망이 없다고해서 정부가 지원을 안해줍니다.(안했습니다.)이 신발업체들이 더이로 갔느냐. 중국의 청도로 갔습니다. 베트남으로 갔습니다. 지그 aguswo 신발산업은 세계 최고의 호황을 보이고(누리고)있습니다. 정부가 경제의 기본원칙 프로그램도(흐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주제에 이런 사람은(산업은) 되고 저런 사람은(산업은) 안된다는 정부의 구조조정사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한보철강은 정부가 지원을 해주었습니다.(했습니다.) 다른 기업은 제철 산업에 정부가 손을 대지 말았어야 합니다(못하도록 했습니다.)

위 문장의 경우, 특별히 알아듣기 어려운 전문용어가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속기사가 발언내용에 대한 이해없이 그저 들리는 대로 문자화한 데서 초래된 오류들이다. 음성언어는 분면 '바람풍'이었던건만 속기사는 이를 '바담뽕'으로 청취하고, 그대로 기록한 것이다. 기래 놓고도 감냥엔 '말하는 대로 정확히'기록한 줄로 알고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자신의 자질부족을 모두지 깨닫지 못한 채 10년, 15년 속기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말이다. 이러한 실정이나 발언내용이 조금만 전문적인 것이 되어도 그 오류가 어느 정도일지는 능히 짐작할 일이다. 속기록에 나타나는 오류의 거의 대부분은 속기사의 청취능력 결여에서 기인한 것들이다. 이러한 문제는 몇몇 사람들 사이에 이미 오래 전부터 지적되어 오고 있으나 그 심각성이 어느 지경에 이르렀는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속기인들이 무감각한 것 같다. 설사 의식한다 하더라도 이 문제를 애써 외면하려 한다. 업무의 중요성이나 어려움을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속기사를 지망하는 이들의 질적 수준은 해가 갈수록 저열화되어 가고 있는데다, 대부분의 속기인들은 그저 속편하게 기능적으로만 속기록을 작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속기업무를 감당할 만한 인재들을 속기계로 모으기 위해서는 속기사의 위상제고가 필수적이지만, '속기사=기능인'으로 고착화되어 있다시피한 인식과 제도하에서 전문직으로서의 위상 제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실정인 것이다.

4. 전문직으로서의 발돋움

음성언어에 대한 고도의 청취능력 발연속도에 구애받지 아니하는 운필능력, 그리고 음성언어의 의미를 정확히 문자언어화할 수 있는 수문능력, 이 세가지 능력을 제대로 겸비한 자만이 비로소 속기사다운 속기사라 할 것이다. 그러기에 제대로 능력을 갖춘 속기사는 1~2년의 단기교육으로는 결코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위 세가지 조건 가운데 그래도 비교적 기능쪽에 가까운 운필능력만 해도 최소한 1년 이상이 고된 훈련을 필요로 한다. 또 청취능력이나 수문능력은 폭 넓은 독서를 통하여, 그리고 음성언어와 끊임없이 씨름하는 가운데 오랜 실무경험 속에서 하나씩 축적되어지는 것들이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는 자만이 감당할 수 있고 보람을 찾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속기업무이다. 일생을 걸고 달려들지 않으면 제대로 감당해 낼 수 없는 업무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속기사가 전문직종으로 자리매김 되어야 할 가장 큰, 단적인 이유라 할 것이다.

말하는 대로 혹은 들리는 대로 정확히 문자화하는 것만이 속기업무의 전부라면 거기에는 속기사의 주관이 개입되거나 판단력이 작용할 여지가 거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속기록 작성상 나타나는 어떠한 오류에 대해서도 속기사에게는 하등의 책임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속기록의 역사성과 증거성을 생각할 때 '말하는 대로'나 '들리는 대로' 식의, 기능적인 속기업무에 안주하려는 무책임한 자세는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악으로 남게 될 것이다.

한글속기 50주년을 보내면서, 우리 속기인들은 지난날 속기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속기인들의 위상제고를 위하여 과연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자성해 볼 일이다. 오늘날 속기계의 실상과 속기인의 사회적 위상은 바로 지난 50년간 우리 속기인들이 뿌려 놓은 씨앗의 열매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현직 속기인들 역시 자신이 과연 속기업무를 감당할 만한 적재인지 냉철히 직시해 볼 일이다. 속기인의 위상확립은 속기직을 자신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하나의 징검돌로만 여기는 사람들에게 의해서는

결단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든 못 받든 스스로 전문직임을 자임하면서, 속기업무를 감당할 만한 실력배양을 위하여 일생을 걸어야 한다. 동시에 그러한 속기인들이 뜻을 하나로 하여 속기문화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하나씩 확보하면서 위상제고를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전문직으로의 발돋움을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방향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될 더욱 절실한 이유는 결코 우리가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국회사무처 속기2과, 협회 자격심사위원회 간사)

<참고서적>

속기개관(국회사무처 1969)
고려속기학보(창간호, 제3호 ; 1955, 1957)
속기총람(제1회 대한속기협회 1972.)
월간조선(1992. 4월호 조선일보사)
속기문화(창간호~제5호 대한속기협회 1955~1959)
신동아 1997. 11월호, 동아일보사
속기계(창간호 ~ 제34호 대한속기협회 1972~1998)
기타 각종 회의록

◎ 투고를 바랍니다 ◎

회원 여러분의 권익을 대변하고 회원 상호간의 유대와 속기연구 발표의 창구 노릇을 함으로써 속기문화에 기여코자 함이 본 회지의 발간 취지인 만큼 회원 여러분의 어떠한 투고도 환영합니다.

보내실 곳 : 본 협회 홍보부(국회 속기과)
(02) 788~2375, 2475

내용 : 표지그림·사진, 연구논문, 속기실무, 회상기, 수필, 시, 시조, 산문, 기타 제언등

제42차 인터스테노총회참석보고

- 국 제 부 -

1. 기 간 : 1998. 7. 11(토)~7. 17(금)
2. 장 소 : Switzerland Lausanne, Palais de Beaulieu
3. 한국측대표
 - 김진기 (협회 상임고문)
 - 성천영 (협회 이사장, 속기1과장)
 - 황인하 (협회 감사, 기록편찬국장)
 - 이경식 (협회 총무이사, 속기1과4담당)
4. 참가국 및 국별 참가인원 : 35개국 446명

번호	국가명	참가인원	번호	국가명	참가인원	번호	국가명	참가인원
1	그 리 스	3	13	스 웨 덴	2	25	인 도	4
2	네덜란드	13	14	스 위 스	34	26	일 본	7
3	노르웨이	3	15	스 페 인	5	27	중앙아프리카	1
4	한 국	4	16	슬로바키아	17	28	체 코	25
5	독 일	98	17	아르헨티나	6	29	카 나 다	2
6	미 국	20	18	아이슬란드	5	30	카 메 론	3
7	벨 기 에	8	19	아일랜드	1	31	터 키	11
8	보스니아	2	20	알 제 리	6	32	핀 란 드	3
9	보츠와나	1	21	영 국	6	33	프 랑 스	11
10	불가리아	1	22	오스트리아	45	34	헝 가 리	43
11	브 라 질	1	23	이 집 트	1	35	호 주	4
12	스와질랜드	1	24	이탈리아	49			

5. 중앙위원회 주요결정사항

- IPRS(의회속기사부)회의-미국, 보스톤('99년 7월말~8월초 예정)
- 차기중앙위원회 개최국 및 시기-오스트리아, 비엔나('99년 9월초 예정)
- 43차 연맹총회 개최국 및 시기-독일, 하노버(2001년 7월중 예정)

6. 주요활동사항

1) 7월 11일

- ① 1차 중앙위원회가 총회개회에 앞서 개최됨.
- ② 총회 개최식이 Palais de Beaulieu에서 35개국 446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열림
- 이번 대회 조직위원장인 가브리엘 페스나흐트의 경과보고가 있은 후 중앙위 의장인 William Bonnet는 환영사에서 42차 총회는 인터스테노가 30세기를 향한 발판이 되기를 바라며 다른 부문의 발전과 발맞춰 속기분야도 그에 상응한 진보가 있기를 기대하고 스위스를 대표하여 회원국 대표를 환영한다는 취지의 인사를 함.
- 사무총장인 Dr. Karl Gutzler의 소개로 25개 회원국 대표의 기조연설이 있었으며 지대섭 회장을 대신한 성천영 이사장은 한국을 대표한 연설을 통해 우리 일행에 대한 스위스의 환대에 감사를 표시하고 회원국 상호간의 정보교환과 활발한 접촉을 통해 인터스테노의 활동이 세계 전문직업인 집단으로서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을 소망하는 연설을 함으로써 참석자의 열렬한 호응을 받음.

2) 7월 12일

- ① 다국어(Multilingual)속기 세계챔피언 경기대회
 - 1위 : 핀란드의 니클라스 바리스토 (11개 국어에서 합격)
 - 2위 : 독일의 뵘트허 박사 (10개 국어에서 합격)
 - 3위 : 독일의 만프레트 캐러 (8개 국어에서 합격)
- ② 다국어(Multilingual)속기 주니어 부문
 - 1위 : 슬로바키아의 사르미노파 (2개 국어에서 실점15)
 - 2위 : 슬로바키아의 크렘파스카 (2개 국어에서 실점25)
- ③ 의회속기사부(IPRS)회의
 - 18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영국인 속기사인 피터 워커의 사회로 진행

된 IPRS는 구성된 지 일천하지만 인터스테노 가운데서도 의회인들만의 구성체이므로 정보하시대에 발맞추어서 E-mail 주소를 활용하여 각국 속기계의 정보를 신속히 교환하고 장기적으로 웹사이트를 구축할 것을 논의하였으며 특히 한·일 양국의 역할증대와 기여범위에 대하여 주문을 하였고, 우리는 각국 의회 속기계의 실상을 파악하고자 7개항의 질문서를 각 대표들에게 전달하였음.

3) 7월 13일

① A범주 세계속기경기대회

(수필부문)

- 1위 : 헝가리의 에바 레스터 (10분간속기, 별점 68, 총음절수 459)
- 2위 : 독일의 베른하르트 박사 (9분간속기, 별점 64, 총음절수 432)
- 3위 : 체코의 헬레나 벤토바 (9분간속기, 별점 68, 총음절수 416)

② B범주 세계속기경기대회

(수필부문)

- 1위 : 아르헨티나의 조르지 부라보
(8분간속기, 별점 2, 총음절수 310)
- 2위 : 이탈리아의 안나 마리아 마리노
(8분간속기, 별점 8, 총음절수 290)
- 3위 : 슬로바키아의 마르셀라 자로노바
(8분간속기, 별점 16, 총음절수 264)

③ A범주 세계속기경기대회

(기계타이프 부문)

- 1위 : 미국의 칼라 보이어 (10분간속기, 별점 41, 총음절수 495)
- 2위 : 프랑스의 시몽 바르도 (10분간속기, 별점 44, 총음절수 470)
- 3위 : 프랑스의 재클린 베르텡 마히어
(10분간속기, 별점50, 총음절수 470)

④ B범주 세계속기경기대회

(기계타이프 부문)

- 1위 : 이탈리아의 라첼레 아디스 (8분간속기, 별점1, 총음절수 290)
- 2위 : 이탈리아의 프란체스카 카비아티
(8분간속기, 별점2, 총음절수 290)

3위 : 이탈리아의 라파엘라 라다가
(8분간속기, 별점11, 총음절수 290)

4) 7월 14일

① 속기와 타자술이 결합된 경기대회

1위 : 체코의 카토스코바 (총득점 : 32,602)

2위 : 독일의 유타 비치만 (총득점 : 32,335)

3위 : 스페인의 누네즈 히달고 (총득점 : 30,498)

② 빠른번문 경기대회

1위 : 이탈리아의 실비아 보글리오티 (8분간속기, 총득점 1,852점)

2위 : 이탈리아의 라첼레 아디스 (8분간속기, 총득점 1,838점)

3위 : 이탈리아의 안토넬라 미그노그나 (8분간속기, 총득점수 1,830)

③ 제2차 중앙위원회 개최



5) 7월 15일

① 제1차 총회- 연구발표(의회속기의 정보화 관계)

- 스위스 연방의회의 공식보고 : 프랑소와 꼬망 박사, 안드레아 시들러 (스위스)
- 기록을 위한 정보차원의 공헌 : 파올로 트리블지오(이탈리아)
- 독일에 있어서 퍼스날 컴퓨터를 이용한 기계속기 : 하이드란 쉬링그 (독일)
- 네덜란드 Velotype 속기기계를 사용한 시각장애자를 위한 속기 : 해리 스테게만(시각장애자), 판 데 프라스(네덜란드의회)
- 캐나다 상원에서의 CAT와 real-time 기록작성 : 모니크 로이, 론드 레메인(캐나다)
- 수필속기부호의 자동인식 : 페르디난도 파비 자코모 파트리치 교수 (이탈리아)

② 제2차 총회-연구발표 계속(기술개발관계)

- 기계적 문서처리와 음성자동인식 : 제라르 씨에방 박사(IBM)
- 내일의 디지털 세계-2002년의 학교교육 : 알랭 세일케(스위스)
- 두뇌를 촉진시키는 속기와 타이핑 : 요셉 코크우렉(체코)
- 유럽에 있어서 경영에의 도전 : 라인하르트 페트슈니크(독일)

6) 7월 16일

① 제3차 총회-연구발표(인터넷, 비즈니스 분야)

- 인터넷에 관한 법 : 자리 니투인페라(이탈리아)
- 세계예술과의 만남 : 레네 버거(스위스)
- 미래에 있어서의 정보기술 : 페핀리헤스(네덜란드)
- 2000년 문제-사무관계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 래머스(매니지먼트 컨설턴트)

② 폐회식-경기대회 결과발표와 시상

7. 성과

- 1) 속기 및 사무자동화 부문에 관한 최근의 정보교환 및 의회속기제도에 관한 각종 연구발표청취
- 2) 개회식 기조연설, 주요인사면담과 각국 회원간의 개인적인 대화등을

통해 정보를 교환하고 2002년 월드컵개최국임을 알리는 등 민간외교의 일익을 담당

- 3) 한국의 속기제도를 각국 회원국들에게 소개하고 특히 IPRS를 통해 각국 의회에 관한 정보교환을 약속

8. 기타사항

- 1) 인터스테노의 총회, 중앙위 등 회의가 주로 유럽에서 열리는바 한국에서 개최하는 방안도 연구해 볼 과제임.
- 2) 조직위 고위 관계자들이 한국·일본의 역할증대를 강조한바, 연구발표 등의 참여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 3) IPRS의 활동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에 따라 의회 속기사들간의 정보교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 한국도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요망됨.
- 4) 아직까지 경기대회에 참가한 적이 없는 우리로서 앞으로 어학 등 실력을 닦아 이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야 할 것임.

9. 건의사항

- 1) 많은 국가에서 국비로 오는 것을 볼 때 우리도 국고보조가 지속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좀더 많은 인원이 참가하여 건문을 넓힐 필요가 있음.
- 2) 중앙위원의 선정에 있어 집행진이나 전문 속기인을 선정하여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겠음.

'98 인터스테노 분임토의 주제발표



※지난 7월 11일부터 17일까지 스위스 로잔느에서 개최된 제42차 인터스테노 총회는 한국을 포함한 35개국에서 446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세계속기인의 잔치였다.

다음은 7월 15일에 발표된 10명의 분임토의 주제발표 내용중 요셉코코우렉(체코)의 '뇌를 활성화 해주는 속기와 타자' 및 파올로트리블지오(이탈리아)의 '기록을 위한 정보 차원의 공헌'을 요약 정리한 글이다.

뇌를 활성화해 주는 속기와 타자

요셉 코코우렉(체코)

저는 1916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상업중학교에 진학하여서 속기를 배우기 시작해서 계속해서 속기실력을 증진시켜 나갔습니다.

1935년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에 1분에 80자를 쓸 수 있는 실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권유로 그 지역 속기대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라그에 있는 대학시절에 저는 국가속기위원회에 등록되었습니다. 1938년 국가시험으로 국회속기사 시험과 속기교사자격시험을 쳤습니다.

그리고 1963년에는 프라그에서 열린 제25회 인터스테노 국제경기대회에서 우승을 한 적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1938년 이후 의회에서 의회속기사로 일하였고 1939년에는 신문사에서 속기사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속기를 여러 방면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독일군의 점령시에는 런던 BBC방송국에서 외국 뉴스를 위한 속기보도의 일을 했습니다.

1940년 국가속기위원회에서 속기를 가르쳤고 1945년에서 지금까지 자유기고가 프리랜서로 체코슬로바키아 의회속기사로 일해 오고 있습니다. 그 후 1955년에서 80년까지는 프라그에 있는 트레이드 아카데미에서 속기를 가르쳐왔고 더불어서 타자와 경제학도 가르쳐 왔습니다.

저는 속기가 나의 두뇌를 활성화시켜 준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나의 두뇌를 활성화시켜 주고 또 생동력을 준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속기를 계속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로 속기를 신뢰하고 사랑합니다.

10년 전에 의료체크를 받기 위해서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들은 제가 나이에 비해서 뇌의 기능이 평균보다 훨씬 높은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무슨 직업을 갖고 있느냐, 무엇을 배웠느냐 등등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했고 결론적으로 나의 일로 인해서 그 동안에, 즉 나의 속기사로서의 활동이 뇌를 계속해서 아주 건강하게 해 주었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20년 전에 저는 은퇴할 나이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고려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의회에는 오직 몇 명만의 속기사가 남아 있어서 제가 오늘날까지 계속 일을 해 왔는데 이러한 노력에도 계속한 오랫동안의 일이 높은 신경기능의 쇠진을 막아준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저와 같은 노력에 있는 동료들 중에서 컴퓨터 속기사로 일하고 있는 분들도 같은 좋은 뇌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본래의 생리적인 나이를 측정함에 있어서 제 근육안에서 아

주 우수한 물리적 반사작용을 한다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국 속기업무도 역시 근육을 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트라우 교수는 그의 책에서 전체 속기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속기를 하는 동안에 음성이 속기사의 청각신경의 말단부분을 자극시키게 되고 이것은 신경의 충격으로 변화되어져서 뇌피질의 신경조직을 통하여 침투되고 이것을 뇌 안의 청각센터로 가도록 자극시켜 줍니다. 이러한 청각충격은 연설의 부분으로부터 청각그림으로 변화됩니다. 일종의 시각적인 이미지 형상이나 일종의 그림과 비교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업무의 이해에 기반을 두는 것입니다.

속기실무를 하는 것은 어떤 흔적을 생각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운동충격으로 변화되고 또 신경조직을 통해서 손의 운동근육으로 인도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라이팅 무브먼트(Wrighting Movement), 쓰는 움직임으로 변화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그래피컬 활동이라고 부릅니다. 속기는 항상 높은 집중을 요구하는 활동이고 우리 뇌피질 부분에 계속적인 활동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속기와 같은 비슷한 과정이 스테노타이핑 기계에서도 발견됩니다.

속기사의 업무로서 뇌피질을 활성화시키는 것 이외에도 항상 뒤따라주는 기억력의 훈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이든 사람에게 중요한 것으로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뇌의 운동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력을 훈련하기 위해서는 뇌의 활동을 계속해서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잭 필로소퍼가 "뇌와 영혼"이라는 자신이 쓴 책 속에서 말하기를 기억은 일종의 다양한 구획(compartment) 속에 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기억은 특히 장기간과 단기간의 메모리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단기간의 메모리는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서 듣는 모든 것을 인지하지만, 그러나 이 회의장을 떠나자마자 기억된 단기간의 기억들은 다 없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장기간의 기억은 보다 더 광대하고 복잡한 정보로서 이러한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수년 또는 평생동안 기억되어질 수 있습니다.

노령층에 이르게 되면 단백질의 신진대사의 상호작용이 점점 약화되게 되고 또 단기간의 기억기능도 약화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러한 단기간의 기억력을 훈련시키면 전체적인 뇌의 기능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다. 뇌는 영양분과 수분 또 포도당, 산소운동들을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의회에서 속기를 할 때 매우 금방 배가 곱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 것, 사탕을 먹기 원합니다. 이것은 저의 다른 동료들도 같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뇌가 적절히 기능하는 것을 원한다면 뇌에 있어서 좋은 피의 순환이 역시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 여러분은 육체운동을 통해서도 뇌의 기능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운동신경에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적어도 손가락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여러가지 운동이 좋은데 특히 요가가 좋습니다. 여러분은 이를 통해서 한 단계 한 단계씩 천천히 하는 움직임 조절할 수 있고 또 통합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은 뇌안의 운동센터를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몽세 슈타크라이브는 뇌의 조절운동의 발전에 기반을 둔 회복요법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각 생각은 에너지를 수반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기억력에 의한 우리의 매료는 순수한 욕구를 일으키게 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기억력을 증진하려고 노력하는데 그 이유는 기억력의 중요성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항으로서 기억력의 가장 큰 적은 집중부족이나 산만함입니다.

기억력은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었던 모든 것을 우리의 기억속에 어떤 특별한 장소나 구역에 저장이 되는데 이것은 일종의 등록과 같은 것입니다. 흥미로운 부분이나 주목할 가치가 있는 일들은 아주 쉽게 접근될 수 있는 장소에 보관이 되는 반면에 흥미가 덜한 것은 좀더 외딴 지역에 보관이 됩니다.

우리의 기억력이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잘 기능하기 위해서는 뚜렷한 동기요인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나 흥미를 자극시키게 됩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통해서도 가능한데 이 적극적인 사고방식은 인생을 좀더 즐겁게 만들지요. 적극적인 사고방식은 우리의 뇌를 좀더 부드럽게 기능하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기능을 훈련하는 것을 시작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인생의 아름다운 순간들을 즐겨야 합니다.

각자의 인간은 꿈을 꿀 수 있고 계획을 할 수 있고 또 미래의 계획을 즐길 수 있습니다. 웃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매력을 주지요, 왜냐하면 그들이 함께 할 적에 기분이 좋기 때문입니다. 적극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태양의 광채와도 같습니다. 태양은 힘이고 생명입니다.

이렇게 균형되고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즐거운 일뿐만 아니라 인생에서는 아주 깊은 슬픔을 만날 때도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를 역시 배워야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무엇인가에 의해서 자극받고 우리를 즐겁게 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발견하고 또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려는 노력을 기울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적극적인 사고방식은 일종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이 선물을 다듬을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을 당신의 것으로 만드는 노력을 기하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면역체계에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이것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42차 인터스테노회의가 복지와 인내와 우정에 가득찬 역동적인 새로운 장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저의 메시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모두가 이러한 목표에 도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께서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인생에서 많은 것을 더 기대하시기를 빌면서 저의 말을 마치겠습니다.

기록을 위한 정보차원의 공헌 (Informatic support for reporting)

파올로 트리볼지오(이탈리아)

저는 앞서 발표한 발표자들처럼 그렇게 인상적인 발표를 하지는 않을 것

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의회에서 근무하기는 전문가들과 토론을 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기에는 속기사로 활약하고 계시는 전문가들도 여러분 계시지만 의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처럼 인상적인 회의록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번 회의는 스위스에서 열리는 세 번째 국제속기사총회인데 첫 번째는 1967년 베른에서 개최되었고, 두 번째는 1983년 루체른에서, 그리고 금년에는 이곳 로잔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베른회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954년 마셀 라시니가 비비안에서 촉구한 국제속기협회의 기본이념에 가장 근접한 회의였습니다.

베른회의는 주로 수필속기사로 구성되었고 기계는 단지 전자기계 몇 대밖에 없었던 초기단계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수동작업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으며 부분적으로 전자장치를 사용하였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베른회의는 남성들만이 위원회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국제속기사협회는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 괄목할 만한 개선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여성들, 그 중에 가브리엘과 파스나퀴 같은 분은 경쟁자의 자리에서 전문 주최자로 변신하여 오늘 이 회의를 이끌고 있습니다.

발표 중에 제가 이태리를 자주 언급하는 것은 제가 살고 있는 나라이며, 또한 약 1,600여명의 속기사들이 법원의회, 광역의회, 지방자치의회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구어체로부터 문어체의 본문을 만들고 다시 최종적으로 회의록을 만드는 과정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미 베른회의에서 이러한 과정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았습니다. 지금 이태리에서는 스테노타이핑을 이용하여 회의록을 만드는 작업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967년 베른회의의 때만 해도 이 작업은 잘 알려지지 않았었습니다.

이것은 루체른회의에서 이태리 상원의 켈피 씨가 처음으로 정보기술이 속기술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다루어지기 시작했으며, 뒤를 이어 1987년 플로렌스회의에서 엔지니어인 베테로티씨가 속기문자를 일반문자로 변형하는 자동번문기를 소개함으로써 관심이 확대되었습니다. 그후 최종적으로, 1991년 브뤼셀에서 벨라니 교수에 의해 그 당시 나날

이 증가되어 가던 이태리 법원업무와 연계하여 매우 상세하게 소개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실무에 종사해 왔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작업은 전자기술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먼저 이 기술은 단지 단일자음군을 일반문서로 전환시키는데 사용되었으며, 다음으로 기호와 같이 일반문서내에서 분산된 단어들을 전환시켰으며, 그 다음 3단계로 속기의 논리를 재구축하려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어들 중에 자주 접미어를 동반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도 잘 아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 Document와 같이 다른 접미어와 함께 쓰이거나 또는 속기에서 기호를 짧게 하는데 사용되는 단어들을 아실 것입니다. 컴퓨터가 점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 가면서 이 시스템의 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어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는데 많은 도움을 자저왔습니다. 이 시스템체계란 꼭 단일 속기시스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모두 각자의 특성을 갖고 있지만 컴퓨터논리에 의해 필기를 줄이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태리어로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은 이태리어로 꼬무니까쨌네라고 하며 6음절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단 2 스트로크(획)로 단어를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단일 속기체계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단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가능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예를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단어들을 재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많은 논리체계들은 특정분야에 삽입되어 명사와 같은 속기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고유단어들을 체크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코모씨를 코멘토시라고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특별한 방법의 표기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요소들이 다양한 소프트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태리에서는 잘 알려진 기술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기계와 컴퓨터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모두 속기사들이 일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한 장비들입니다. 이것들은 약 1년 전의 개발상황이며 지금의 기술은 보다 앞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테노타이핑에 녹음을 삽입하기로 하였으며 디지털사운드까지도 녹음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방금 보셨던 것보다 더욱 간편해진 것입니다.

오늘날 속기사들이 기계를 이용하여 속기를 할 경우 속기사는 그 소리를 컴퓨터에 디지털방식으로 녹음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인간의 한계를 훨씬 초월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는 2중 체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은 법정에서 증언하는 의학박사의 상세한 의학적 설명이나 기술분야의 전문가가 첨단기술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속기사는 그들이 하는 말을 속기로 잘 따라갈 수도 있지만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이해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음성보조장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단순히 기계나 컴퓨터 뿐만 아니라 이들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포함한 시스템의 개발계획이 필요합니다. 디지털기술은 보다 높은 차원의 기술개발을 가능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회사는 물론 개인도 ISDN이라고 부르는 통신망을 이용하여 먼 곳으로 정보를 전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속기로 받아 적고 그 내용을 멀리 떨어진 곳까지 소리를 전송할 수 있게 되므로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에서 소위 말하는 가상공간에서의 작업도 가능한 것입니다. 전국 여러 곳에서 이루어진 작업을 어느 한 지점으로 모으고 다시 전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각각 전달할 수가 있는 것이다.

스위스의회에서는 특정기간 동안만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모든 회의록 작성시 볼수 있는데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업무를 수행해야 할 때에 시간 부족이라는 문제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은 스테노타이핑에 관련된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이태리에서 그것도 주로 개인적인 활동분야에서만 활용되는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너무 이 문제에만 집착한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분야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후에 파비 박사가 속기부호인식에 대해 설명해 주실 것이며 더 나아가서 가까운 미래에는 음성인식기도 실용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태리에는 수필속기를 한 내용을 컴퓨터에 구술하는 전문속기사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은 이태리에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이 기술은 몇 년 전 상원에서 실험하기 시작했으며 그러한 발상이 외부로 퍼져나가게 되었고 오늘날에 이르러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들 중 몇몇 사람들은 이 기술을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 이 기술은 매우 유익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속기사가 내용을 컴퓨터에 구술하는 동안 그 내용을 손쉽게 요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기술은 우리의 회의록 작성업무를 증진시켜 줍니다. 미래는 열려 있습니다.

각 의회들은 이러한 추세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경험들을 맞이해야만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경험은 과거의 경험을 기초로 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우리는 체코의 한 참가자가 특수제작된 소프트웨어를 통해 컴퓨터와 키보드를 키보드 Fast Writing(빠르게 쓰기)시스템을 실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태리에서는 이미 40년 전에 어느 여성연구자가, 이 분야에 대한 이태리의 유일한 여성연구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만, 타자기를 이용하여 매우 빠른 속도로 보고서를 재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

드레스다에서는 이 시스템을 이용한 실현작업이 실시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젊은이들을 새로운 발상으로 이끌 수 있도록 그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해 준비해야만 합니다.

저는 조세핀 알레판디가 1967년 베른에서 행했던 연설의 마지막 부분을 이 자리에서 인용하고자 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역사적인 사건들은 스스로 반복된다. 물론 그들은 시대의 필요에 따라 적응하고 수정되어가므로 우리에게는 빠른 판단과 적응능력을 키우기 위한 광범위한 지식이 필요할 것이다. 만약 인간이 충분히 지혜롭지 못하다면 기계는 이러한 필요에 적용되지 못할 것이다."

제42차 인터스테노 참관기

이 경 식



짐나스 드 불거에의 파티에 앞서 구츨러 사무총장과 함께(좌로부터 첫번째가 필자)

IMF위기를 받은 국가적 어려움 속에서 해외에 나간다는 것만도 부담스러운데 더구나 처음으로 이러한 큰 국제회의에 속기인을 대표하여 참가한다고 생각하니 출발하는 마음이 무거웠다. 그러나 KE901편이 김포공항을 이륙할 때 그동안 염려하고 걱정스러웠던 상념들이 머리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생각으로 차분하게 마음을 안정시켰다.

이번 대회참가의 큰 목적은 세계 여러 나라의 속기환경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고 각국의 의회속기사정, 특히 정보화의 진전상황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1983년 인터스테노에 가입한 이래 두 번에 걸친 중앙집행위원회와 여섯 번째 참석하는 총회에 대한 의미는 이제 우리도 고정적으로 참가하지 않고는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에 존립하기 힘들다는 시대의 요청에 편승하는 것이기도 하다.

제42회 대회는 7월 11일부터 7월 16일까지 스위스 로잔느에서 열렸는데 스위스에서만 네 번째 열리는 대회였다. 모두 35개국에서 446명이 참가한

세계 속기인 잔치의 주요행사는 연구발표, 속기경연대회, IPRS(의회속기 사부)회의, 유람 등으로 이루어졌다.

연구발표는 3섹션으로 의회속기의 정보화관계, 기술개발관계, 인터넷·비즈니스 분야로 나누어 발표되었으며 모두 14개의 과제를 각국 대표들이 나와 컴퓨터를 이용한 프리젠테이션 형식으로 발표하였다.

특히 음성자동인식에 관한 발표는 시기적절하여 많은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는데 과연 수필속기가 존속해 갈수 있을 것인가가 논의의 대상이 되었고 음성자동인식이 실용화되어 가는 과정은 IPRS(Intersteno Parliamentary Reporters' Section)를 통해서도 정보를 교환하자는 것이 강조되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음성인식에 대한 발전은 컴퓨터의 발전속도에 비례해 그 시장성과 경제성을 고려한 바탕위에서 발전될 것으로 보이며 아직은 초기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감을 가졌다.

이러한 회의내용은 100명 이상 참가한 나라는 동시통역을 한다는 규정에 따라 금년에 처음 추가된 이태리어를 비롯하여 영어, 불어, 독어로 동시통역 되었다. 발표자는 유럽대표들이 주종을 이루었으며 영어는 국제표준어라는 인식을 깊게 가지게 되었다.

동양권에서는 우리와 일본만이 참가하였는데 우리도 이러한 자리에서 연구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빠른 시간내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빨레 드 볼리에와 진나스 드 볼리에 두군데에서 나누어 시행된 속기경연대회의 내용을 보면 정확히 이래할 수는 없었지만 국가별 언어로 하는 대회, 세계타이프경기대회, PC로 하는 세계교정대회, 워드프로세싱 전문가경기대회, 빠른 번문경기대회 등 다채로웠고 경이로운 기록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다국어 속기 부문에서 핀란드어를 속기해 챔피언이 되었다. 비롯 유럽 대부분의 나라는 알파벳을 쓰고 있어 변용(Adaptation)방식을 이용해 속기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자기 나라의 국어를 속기한다는 것도 어려운 데 11개 국어라니 놀라움을 넘어 경외심이 들 지경이었다.

서방 국가들에 비해 속기에 대한 연구, 외국어 능력, 기계속기 분야에서 뒤떨어져 있는 우리의 형편을 안타까워 하며 실제 우리도 속기경연대회에 참가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의회속기사부(IPRS)는 1993년 제40회 대회인 이스탄불에서 설립되어 두 번째 열리는 모임으로 실제로 의회에 근무하는 속기사들만의 정보교환과 그 발전을 도모한다는 면에서 자기 전부터 참으로 관심이 많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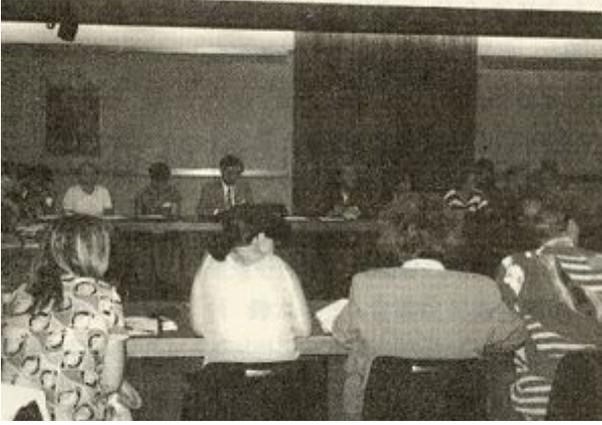
7월 12일 오후 5시쯤 빨레드 불리에의 사회의실에서 영국인 편집인 피터 워커씨의 사회로 열렸는데 그는 전직 신문기자출신 속기사로 지금은 영국 하원의 부편집장으로 있다.

모두 18개국에서 온 40명의 의회인들이 약 두 시간에 걸쳐 열렬한 토의가 있었는데 피터 워커는 먼저 조직강화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여 회원간의 커뮤니케이션의 도모를 위하여 참석자 전체의 메일 어드레스를 기입하는 것에서부터 정보공유화에 일조하고 싶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이탈리아의 상호간 접촉의 중요성을 호소하고 정보수집과 조사분석결과를 소개하였다. 한국 대표로서 우리는 의회에서 어떻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준비된 자료를 나눠주며 E-메일이나 FAX로 연락해 줄 것을 각국 대표에게 부탁하였다.

회의를 마치면서 첫날 연구발표에서 네덜란드 회원으로부터 보고된 시각장애자의 속기기계를 이용한 속기시범이 회의장 입구에서 행해졌다. 우리 나라에서도 98년 9월 대한상공회의소가 시행한 기계속기검정에서 맹인(심진구씨)이 3급 자격증을 획득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존경스럽지 않을 수 없다. 행사가 진행되는 중간 중간 주최측에서 마련한 파티와 유람에 참가하였는데 여기서 언어 속에는 국경을 초월한 감정이 스며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짐나스 드 불리에의 파티에서 김진기 고문님, 황인하 감사님, 성천영 이사장님 모두 열려진 마음으로 각국의 참가자들과 대화하며 새로운 친구들의 만남이 가져다 주는 기쁨을 만끽하기도 했다.

유람은 시내관광, 중세 시용성 방문, 5시간에 걸친 선상관광, 전통 포도주 생산지 방문을 통해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일본, 미국, 인도, 카메룬, 그리이스 대표들과 즐거움을 나누며 피상적이지만 속기에 관한 대화를 가졌으며 그들의 사고와 생활방식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그리고 잊을 수 없는 것은 일정이 없는 13일. 만년설로 덮여 있는 몽블랑을 방문한 것이었다. 3842m의 거대한 봉을 케이블카로 오르며 이처럼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노해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아쉬웠던 점은 전에는 가다가 부딪치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었는데 산을

오르내리는 동안 단 한 사람의 한국 사람도 발견하지 못한 것에 IMF 시대
임을 실감할 수 있었다.



총회기간 동안 주로 택시와 버스, 메트로 (전철)를 이용하였는데 택시기사의 친절함과 시민들의 응대로 보아 제42차 인터스테 노총회에 대해 로잔느 전 시민이 알고 있을 만큼 국제회의로서의 비중도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일정내에 우리 일행에게 풍부한 화제와 위트와 분위기를 이끌어 주시고 일본 대표와의 대화에 통로가 되어주신 속기계의 산 증인 김진기 선생님, 길거리에서나 회의장에서나 꼼꼼히 기록을 하시며 내가 실수나 하지 않을까 지켜 봐 주시던 황인하 국장님, 개막식 때 한국 대표로 나와 기조연설을 하시고 민간외교의 긍지를 크게 가지셨던 성천영 이사장님, 이 세 분께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한 마음이지만 이심전심으로 이해해 주신 것에 감사를 느낀다.

또 현지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챙겨 주신 대회 조직위원장인 Gabrielle Fasnacht 여사, 친절하게 우리를 안내해 주신 사무총장인 Dr. Karl Gutzler, 사무직원인 Robert와 Agathe 등 여러분들께 마음으로부터 감사를 드리며 이번 로잔느 총회를 통하여 속기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더 쏟아야겠다는 반성과 함께 개인적으로는 로잔느의 기억을 일생 동안 잊지 못할 기쁨으로 간직하고 싶다.

(국회 속기1과 4계장)

회의록작성의 현황과 가까운 미래

- 일본중의원기록부의 경우 -



※ 이 자료는 일본<의회정치개구>제43호에 게재된 일본 중의원기록부 제2계장 천수신소씨의 '회의록 작성의 현황과 가까운 미래'라는 논문을 속기1과 김정아회원이 번역하고 속기2과장 홍순관이사가 정리한 글이다.

<서언>

1997년은 우리 중의원기록부에 있어서는 획기적인 한 해가 되었다.

당 부는 명치 23년 제국의회 개설 이래 축적적 속기록 작성에 종사하여 중의원 회의록으로서의 제공에 시종일관 몰두하여 왔다. 그 동안의 전달 수단으로서는 종이 형태 회의록이 유일한 것이었다.

1997년 1월 20일, 제140회 정기국회 개회에 맞추어 중의원은 중의원입법 정보네트워크시스템(당분간은 원내 열람용)을 일부 제공하기 시작하고 동시에 '열린 국회' 만들기의 일환으로서 중의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였다.

당 기록부는 이 양자에 대하여 이번 정기국회 시작부터 6월 18일 폐회까지 관보 호외에 의한 본회의 회의록의 인쇄발행에 앞서 본회의 의사부분

의 정보를 제공해왔다.

이는 의사정보 제공이 종래에는 인쇄매체로서의 회의록뿐이었던 것이 전자데이터라는 전혀 새로운 미디어가 늘어남에 따라 국회회의록 Full Test Data Base 구축을 시도로 입법정보화가 구체적 현실성을 지니고 우리들의 눈앞에 다가왔다는 것과 우리 기록부가 단순하게 속기하는 특수기능을 구사하는 것에 머물러 있던 입장에서 정보관리능력을 겸비한 새로운 전문 기술자 집단으로 변모하는 첫발을 본격적으로 내딛기 시작한 것을 의미한다.

중의원기록부에서 만들고 있는 회의록의 실현에 관해서는 1994년 6월에 발행한 본지 <의회정치개구> 제30호에 영목제부 중의원기록부지부장이 작성한 '국회회의록작성의 실천과 결과'로서 제국의회시대의 조직과 실무에서부터 현재 기록부의 조직과 체제, 국회회의록 Full Test Data Base 구축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소개가 되어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전자와의 중복을 피하고, 가까운 장래에 예정되고 있는 시스템 전개와 과제로 묶어서 기술하려고 한다.

본고 전체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회의록의사정보의 속보화과정에 대응하기 위한 기록부의 체제강령에 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기록부의 현황에 대해서 언급하겠다.

즉, 회의록작성에 있어서 OA화의 진전과 그 상징이라고 할만한 회의록데이터관리실의 설치, 다양하게 요구하고 있는 회의록 의사정보의 속보요청에 대하여 속보판 발행으로 대표되는 현시점의 대응실태, 종이형태의 회의록 발행에 더하여 전자데이터에 의한 회의록 의사정보 제공개시, 이 세 가지다.

그리고 세 번째에서는 2000년도부터 국회회의록 Full Text Data Base System의 본격가동을 위한 최근의 준비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하겠다.

- > 출력된 회의록 원고의 호름
- > 내이력의 호름
-> 기록부에서 제작한 원고의 호름
- > 인쇄된 회의록, 속보판의 호름

1. 회의록의 작성현황

1) 보충적 설명

(기록부의 조직과 직무체제)

본격적인 세 가지 논제에 들어가기 전에 기록부의 조직과 업무흐름에 대해서 약간의 설명을 해 두고 싶다.

현재 기록부의 조직으로서는 속기·편집을 주임무로 하는 제1과부터 제4과까지 4개 과와 인재확보를 위한 속기자양성소가 설치되어 있다. 기록부 전체로는 160명 정도의 속기직과 30명 미만의 일반사무직원이 각자의 조직에 분산배치되어 있다.

기록부의 주된 업무부분은 120명 내외의 현업 속기직원과 20여년의 현업 속기경험을 거친 각 과 6명의 교열이 담당한다. 이러한 2대 부문을 지원하기 위하여 속기직과 일반사무직으로 혼성운영하는 조사(속기·교열 포함)와 편집부분, 또 사무직원만의 서무계가 필요한 곳에 설치되어 있다.

교열은 타 의회의 교열지원과 1차 교열 이외에는 중의원사무국사무분장 규정에 의해 각 과에 배당되어 있는 본회의·위원회 등의 교열·편집을 각각 단수가 아닌 복수로, 혼자가 아닌 여러 명이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현업은 2인1조로 1블록에 3조 내지 4조, 1과에 3 내지 4블록이 각 과에 배치되어 있고 분장규정에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어떠한 회의도 1회 10분 혹은 5분 교대로 속기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지면관계상 각 섹션의 업무내용에 대한 설명은 앞에 기술한 鈴木의 논문으로 넘기고 여기에서는 생략하는데 거기에 기술되었던 업무흐름을 그 후에 설치된 회의록데이터관리실과 데이터의 관계도를 포함하여 (표 1)에 나타냈기 때문에 동 문장과 대조하면서 보아주면 된다.

다만 (표 1)에서 본회의 회의록과 위원회 회의록의 작성과정을 각각 게재하고 있는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 기술하려고 한다.

(회의록의 구성)

회의록의 기재사항은 중의원규칙에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

본체를 이루는 의사부분을 포함하여 본회의 회의록은 제200조 18항목, 위원회 회의록은 제61조 17항목에 게재되어 있다. 회의록은 각각의 회의록양식례에 따라서 의사일정·출석자·부의안건 등으로 이루어지는 서두부분, 토론한 의사부분, 의안과 각종 보고서 등이 게재되어 있는 말미 부분 등 세가지 구성요소를 취하고 있다.

회의록은 회의한 날짜단위로 호수가 붙어서 발행되지만 모든 호가 위에서 말한 3요소를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

위원회 회의록은 법률안 등의 제안설명이 있는 날의 호에 말미게제가 있지만 많은 호에서 말미부분이 빠져있으며 의사부분이 평균 8할 이상을 차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각 위원회 담당교열이 위원부가 작성한 서두부분과 현업 속기자의 번문원고를 교열, 자신이 통독·교열한 의사부분 및 각 과의 서무·운영계(제1과는 편집계)가 작성한 말미부분을 하나로 편집하여 회의록 데이터관리실로부터 보내진 현업번문데이터와 통합된 플로피 디스크(FD)를 첨부하여 관리부 인쇄과를 거쳐 대장성 인쇄국으로 이송하고 있다.

위원회 회의록에 비하여 본회의 회의록의 말미부분은 구성요소와 게재양식이 매우 복잡다기하여 거꾸로 이 부분의 분량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본회의 담당교열은 의사부분의 교열과 전체 마무리를 하고 서두부분과 말미부분의 원고작성은 (표 1)에 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의사부 의사과와 서무부 문서과로부터 받은 문서류를 바탕으로 제1과에만 설치되어 있는 편집계가 맡고 있다. 이것이 (표 1)을 두 개로 나눈 까닭이다.

더구나 본회의 회의록은 종래부터 관보호외로 정부간행물센터 등 관보 판매소를 통하여 일반에게 배포되어 왔으나 위원회 회의록은 94년 12월 1일 중의원규칙개정으로 위원회 회의록의 원외반출을 금지한 제58조가 삭제되었기 때문에 95년부터 일반에게도 배포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취급은 중의원 제2별관내에 있는 임의단체중영회가 맡고 있다.

회의록을 열람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회의록 위원회 회의록이 국회도서관과 각 성에 있는 지부 도서관 및 도·도·부·현과 정부가 영으로 지정한 도시의 의회도서관에 구비되어 있다.

2) 회의록 작성 OA화의 진전

(중의원기록부내의 자발적 노력)

일본의 워드프로세서 제1호가 시판된 것은 1983년 도시바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 무렵부터 회의록작성업무에 워드프로세서를 도입할 수 없을까 하고 관심을 갖기 시작하여 기록부내에서도 여러 차례 조직적 검토가 이루어졌으나 중의원사무국 OA화의 동향에 맞추어 본격적인 전개를 보인 것은 89년 들어서부터이다.

바꾸어 말하면 90년 1월 전청적인 조직으로서 설치된 중의원 OA화추진위

원회에 의해 91년 4월 '중의원사무국OA화구상'이 결정되었다. 거기에 언급된 15개의 개발프로젝트중 의사운영관련시스템의 하나로서 본회의회의록·위원회회의록작성시스템이 받아들여져서 동 위원회 프로젝트팀 회의의 회의록작성시스템분과회가 91년 6월에 정리한 보고서 가운데 기록부내에서 검토하여 왔던 '기록부속기번문업무OA화계획'이 회의록작성 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서 정식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이러한 결정으로 현업속기자용 입력기로서 91년부터 3년에 걸쳐 전용워드프로세서의 도입이 이루어졌다. 이 기중선정에 있어서 퍼스널컴퓨터(PC)를 추천하는 의견도 적지 않게 있었으나 가격, 성의 에너지절약 측면, 성의 사무공간 등 관점에서 전용워드프로세서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선택은 당시의 기록부내의 정보 인식수준과 어울리는 것이었고 이하에서 기술하는 본격적인 정보화로의 이룩기간으로서도 적당하였다고 판단된다.

이 사이에 기록부내에서는 자비로 PC를 구입하여 자기업무와 국회회의록용자에·공용어집의 편집·백서 색인의 데이터 작성에 활용하는 사람이 50명에 이르게 되었고 관계 부·과·실의 협력을 얻어 OA화 기간요원확보를 위해 정보화연수에 참가하는 것도 착착 진전되었다.

그 중에는 정보 2종, 시스템관리자, 정보검색사(Searcher) 등의 유자격자도 나왔다. 또 속기자양성소에 있어서도 94년도에 PC 11대를 갖추어 연수실 설치와 외부강사에 의한 정보관리 강좌가 개설되어 속기기술자양성과정에서부터 정보인식의 함양을 꾀하는 체제를 정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 연수실은 정보관리강좌와 번문연습만이 아니라 기타 경제학 등의 교양과목의 수업에도 활용되고 있다.

이 시스템의 도입효과는 속기자의 번문부담 경감과 효율화에만 그치지 않고 94년 2월부터 점차 실시된 대장성인쇄국으로의 FD송고(회의록원고에 첨부, 95년 2월부터 전면 실시)에 의해 회의록 인쇄비용의 절감으로 나타났다. 이 FD송고와 뒤에 기술하는 속보판 발행에 맞추어 의사당 본관·분관·제1별관의 3개소에 분산배치되어있는 현업속기자의 번문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통합·정비하는 서버와 데이터 등록을 위한 단말용 PC·Hub(중앙장치) 광케이블 등으로 구성된 파일전송 편집시스템이 도입되었다.

그 후 94년4월 '기록부회의록작성시스템구축계획'을 새로 책정하였으나 '기록부회의록작성업무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정확한 회의록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발행하는 것이다. 그를 위해서는 확고한 회의록정보의 전자화와

그러한 정보의 부내 축적, 더 나아가 내부열람·속보요구에의 대응과 회의록 Full Text Data Base 구축에 도움이 되어야 된다는 기본적 입장에서 있다. 이를 위하여 "워크 스테이션, PC에 의한 클라이언트용 서버방식의 기기, 시스템구성과 회의록 자료의 DB화 및 LAN의 구축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하는 것이었다. 이 계획을 검토하던 중 현업속기자용 다음 입력기로서 PC도입이 결정되었다.

(Full Text Data Base구축에 착수)

이상의 내용이 회의록작성업무의 OA화를 위한 기록부내의 자발적 노력이라고 한다면 외부로부터의 동기부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원내·외로부터의 그 동안 국회회의록 속성화에 대한 요구가 뿌리깊었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서는 중의원 예산위원회 제1분과회에서 90년부터 93년에 걸쳐 매년 문제삼았고 특히 92년6월4일 의원운영위원회의 '국회개혁에 관한 자유토의'에서 상임위원회로서는 처음으로 각 당간의 토의가 이루어졌다. 거기에서 이루어진 협의는 중의원의장의 사적 자문기관인 의회제도협의회에서 있었던 검토를 이어 받은 것이다.

또 민간에서도 86년4월 사회경제국민회의의 '의회정치의 기본에 관한 제언'과 그 후신인 정치개혁추진협의회(민간정치임조)의 '민간정치개혁대강'(93년 6월) 등에서 제기되었다. 그것들이 수렴되어 국회회의록 Full Text Data Base System 구축의 구체화가 현재 도모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91년7월과 92년10월의 중·참의원 사무총장, 국회도서관장회의에서 국회기록시스템 구축에 대해 합의하고 그를 위한 검토회를 발족시켰으며, 94년도에 기본조사, 95년도에 실증조사를 민간업자에게 위탁하였다.

이 결과를 근거로 1999년까지는 넓게는 국민에 대한 정보제공을 가시화하는 기본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96년도부터 사업화에 착수하여 그를 위한 세 당국간의 새로운 협의기관으로서 국회회의록 Full Text Data Base 추진협의회를 95년7월에 발족시켰다.

또 이 업무를 주관하기 위해서 96년 5월에 중의원의 신청적인 정보화추진기관으로서 서무부회계과내에 설치된 정보화추진실과 기록부제1과내에 회의록데이터관리실이 중의원 사무국사무분장규정에 '회의록데이터화와 회의록데이터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분장사항으로 하는 조직이 설치되었다. 당 실은 실장 이하 속기직 5명이 전임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전자데이터의 보정과 통합 등을 위하여 속기직·사무직과 같이 각각

약간 명의 겸임자가 있다. 이 조직은 Full Text Data Base System의 구축 추진외에 부내의 기기 시스템의 운용관리, 속보판 등 회의록 의사정보의 의원 등에 대한 신속제공, 부원내의 정보화 연수실시 등을 하고 있다. 더구나 당 시스템에서 중의원·참의원·도서관이 각각의 조직에서 사용하는 하드와 응용소프트웨어는 세 당국이 개별적으로 조달하게 되어 있는 것과 97년1월부터 일부 제공이 시작된 중의원입법정보 네트워크시스템과 중의원 홈페이지에 기록부도 본회의 의사부분의 정보제공을 시초로 회의록의사정보시스템으로서 계획참여를 요청받고, 또 현업속기자용 입력기의 갱신시기 때문에 Full Text Data Base System 개발에 앞장서서 하드류를 조달하였다.

1996년 이후 기록부에 도입된 기기류는 현업속기자 중심의 노트북PC 140대, 검색용·원고관리용 운용관리용 서버 각 1대, 레이저 프린터 18대, Hub(중앙장치) 19대, 서버용 무정전전원장치, 각 OS, 응용소프트웨어 등이고 원내의 네트워크 기반(기반LAN)위에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다.

현재 클라이언트는 Stand Alone에 가까운 상태로 사용되고 있지만 이번 여름까지는 시스템의 인스톨과 도입·연수를 끝내고 가을의 임시국회부터는 시스템의 장점과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기능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구나 업무의 OA화를 추진하는 것에 맞추어서 꼭 검토하지 않으면 안될 부분중 하나인 현업속기자용 전용 워드프로세서의 도입 당시부터 VDT검진을 실시하여 현업속기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3) 속보화요청에 대한 대응 (회의록속성화를 방해하는 것)

현재 표준적으로 5, 6시간 회의가 실제로 회의록으로 발행되는 데는 일반적으로 회의일로부터 1주일 전후가 필요하다. 현실적으로는 그것을 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중에는 20일 이상 걸리는 것도 적지 않다. 여기에는 몇 가지의 원인이 있다.

기록부의 현업속기자는 10분 혹은 5분 교대로 속기하고 번문하여 원고의 속성화를 꾀하고 있다. 회의 회수가 적을 때는 즉각 번문에 착수할 수가 있으나 병행적으로 복수의 회의가 장기간에 걸쳐 열릴 때는 번문할 틈이 없이 계속 속기만 할 수밖에 없어 번문하지 못한 속기원본이 늘어나기만 한다. 그럴 때에는 교열도 연계작업의 끝부분에서 원고통독이 정제된다.

또 일본어의 표기체계는 20~30개 전후의 알파벳과 숫자, 기호 등을 포함하여도 300개 전후의 자종으로 해결되는 구미어와 비교하여 JIS의 제 1·제2 수준으로 6,355자의 한자와 524자의 비한자를 해결해야 하고,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외자를 필요로 하는 일이 자주 있고, 또 많은 동음어·유음어를 골라 뽑아서 한자와 가나가 섞인 문장으로 만들 필요가 있는 등 매우 복잡하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보급되어 있는 CAT System의 개발이 늦어지고 있다.

동음어·유음어 번문의 어려움 중에서 일례를 들면 93년5월11일 모 신문 석간에 캄보디아에서의 PKO활동이 긴급질문으로 이루어진 본회의 기사에 '집단철수 고려하지 않는다. 캄보디아 정전합의 무너지지 않아-수상답변'이라는 4단짜리 표제가 떴다.

즉각 내각참사관실로부터 실제발언에 대해 본회의담당 교열에게 확인조회가 있었다. 번문원고를 볼 때까지도 없었으므로 확인해 보니 총리는 그렇게는 답변하지 않았다고 했다. 참사관실로부터 모 신문사에 연락했을 것이다. 다음날 조간에 "기사중에 '집단철수'라고 한 것은 '중단·철수'의 잘못이었습니다. 표제와 함께 정정합니다. "

이하 전 18행에 걸쳐 정정문이 박스기사로 나갔다.

현장에서 발언을 정확하게 알아듣는 것과 번문할 때 그것이 올바른가 확인하는 것의 중요성은 속기자도 신문기자도 다름이 없다는 예증으로서 언급하는 것이다.

게다가 국회 본회의장 뿐만 아니라 분관의 8개 위원회실 전부에 TV중계시설이 설치되어 국회내 뿐만 아니라 관가의 각 성과 청에 방영되는 범위가 확대된 것과 발맞추어서 해를 거듭할수록 국회심의내용의 전문·세분화가 강해져서 국회회의록이 인용되는 경우에 요구되는 엄밀성·정확성을 고려하여 용어의 확인조합을 위해서 발언자에게 확인하고 조회하는 것과 발언자의 사용자료의 차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번문·편집을 신중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그 외에도 특히 본회의 회의록의 말미 게재부분의 원고작성 지연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얽혀서 정식 회의록 발행까지는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있으나 정보화의 진전속도가 가속적으로 빨라지고 있는 오늘날 정식 회의록 발행전의 의사정보 제공은 더욱더 중요하고 기록부 업무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속보판 발행)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이 속보판의 발행이다. 이에 대해서는 본지 제34호에 중의원에서 속보판 발행을 결정한 의원운영위원회이사회 승인사항이 소개되어서 상세한 기술은 피하겠지만 95년4월 이후 본회의의 중요회의는 전 의원에게, 예산위원회총괄 질의는 예산위원에게 각각 익일 정오와 오전10시에 배부하고 있다.

기록부는 명치23년 제국의회 개설 이래 정식 회의록 이외의 의사정보제공수단은 지니지 못했었으나 종이형태와 함께 두 번째의 전달 미디어를 얻은 것이다.

속보판을 본회의의 중요회의와 예산위원회의 총괄질의에 한정하는 것은 현업·교열을 비롯하여 기록부 전원이 매달리는 작업이며 다른 병행심의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극히 낮아서 속기자가 집중동원되고 또한 종래의 경험으로 보아 의원의 내부열람요구가 많다고 예상되는 특정 본회의와 예산위원회의 총괄질의에 한정하는 것이다.

속보판 발행에 대해서는 압도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속보판을 이용하여 질문하는 광경도 여러 번 있었으며, 다음날 심의에 유용하게 쓴다고 하는 등 속보판의 발행목적은 충분히 완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속보판이 발행되는 날은 심의에 대한 내부열람요구가 이사회 협의 등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 격감하여 교열의 집무능률향상에도 공헌하고 있다.

또 건수는 적지만 속보판을 읽은 발언자가 희망하여 정정한 최종원고로 인해 정식 회의록에서는 속보판의 실수를 바로잡았다고 하는 바야흐로 속보판과 정식 회의록의 역할분담이 당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효과도 생기고 있다.

다만 속보판의 발행은 당연히 시간과의 승부이기 때문에 데이터관리실을 비롯하여 현업 및 1차 교열의 원고제출시간을 제한하여 설정하고 있는 것과 대장성 인쇄국에 대한 기록부 작성의 FD송고의 시간제한이 있는 것 등 업무부하가 증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96년 제136회 정기국회에서는 본회의 3일분, 예산위원회 총괄질의 15일분(추경예산심의 등을 포함)과 97년 제140회 정기국회의 본회의 3일분, 예산위원회 총괄질의 12일분(동)의 속보판을 발행하였다.

(미확정원고의 제공)

현업속기자의 번문원고를 교열이 통독하고 서두·말미 게재부분과 맞추어

서 편집작업을 완료하여 확정원고를 인쇄국에 송부하기 이전에 미확정원고의 제출을 요구받을 때가 있다. 그것은 이른바 발언처리에 관한 경우와 발언자 본인 등으로부터의 신청에 의한 경우 두 가지로 구분된다.

우선 발언처리에 관한 경우인데 이는 94년판(중의원선례집) 310페이지 "272. 의장은 온당하지 못하다고 인정하는 언사의 취소를 명한다. 제1회 국회이래 의원의 발언에서 온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언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그 취소를 명하거나 또는 속기록을 조사하여 온당하지 못한 언사가 있다면 적당한 조치를 하라는 취지를 선고하고 조사 결과 온당하지 못한 언사가 있었을 때에는 회의록에서 삭제하고 있다"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이 경우 회의를 계속하는 중에 의장·위원장으로부터 속기록을 조사하라는 취지의 발언이 있는 것이 통례이지만 그러한 것이 없어도 회의장에 출석하고 있는 기록부장과 부부장(본회의의 경우), 위원회담당 교열의 판단으로 해당부분의 제출 지시가 있다. 그때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즉각 담당 현업속기자에게 번문원고의 제출을 요구하여 그 발언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담당교열이 한정된 시간내에 원고를 확정하는 것과 같이 신중한 태도로 통독하고 관리자의 승인을 얻은 다음에 이사회 협의에 필요한 부분을 복사하여 요구한 측에 제출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는 비정상적이고 혼란한 상태에서 의결한 경우와 발언자가 위원장에 대하여 증인을 소환하여 신문하는 것, 정부에 자료제출이나 공청회 개최 등을 요구하여 위원장으로부터 이사회에서 협의하라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을 경우 등이 있다. 이상의 경우에는 그 협의의 도중이 아니라 회의가 종료된 후 대부분 빠른 시간내에 요구한 측에 제출을 끝내고 있다.

다음은 발언자 본인 등의 신청에 의한 경우로 이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눈에 띄지 않는다. 굳이 예를 들자면 중의원규칙 제203조 "연설한 의원은 회의록 배부일의 다음날 오후 5시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연설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는 정도일까!

이러한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회의록 발행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둘 수 없어서 관행적으로 기록부 내에서의 속기원고의 내부열람(발언자 본인)과 그 외 관계자의 열람을 인정하여 왔다. 그리하여 교열의 집무지 침입 <위원회회의록편집요람>에서 인정하는 자의 범위 장소·방법 등을 정하여 혼란하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해 나가고 있다.

그 때에는 필사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최근 복사기의 보급과 다음 회의의 심의에 참고하려는 요구의 증대 등으로 복사한 것을 내주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그 경우에도 회의록 발행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것인가, 내부열람과 열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인가를 확인한 다음에 어디까지나 미확정원고이기 때문에 회의록의 인용과 같은 형태로는 쓸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될 수 있는 한 범위를 좁혀서 주도록 하고 있다. 이 복사본의 요청은 오히려 심의가 폭주하여 현업·교열이 매우 바쁠 때 집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응하다 보면 현업의 번문순서를 어지럽히고 교열의 번문원고 통독이나 편집작업 시간을 침식하는 경향이 있어 어려운 점이 있다.

이상 두 가지 어느 경우에도 미확정원고의 제출처, 긴급성, 제출 후에 취급되는 방향 등을 고려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교열의 눈을 거친 것으로 대응하여 현업의 생원고가 외부에 나가는 일은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2. 회의록 의사열망의 데이터제공

이 글의 모두에 서술한 바와 같이 명치23년의 의회속기 창시 이래 종이형태의 회의록이 유일한 전달수단이었던 것이 97년1월20일 제140회 정기국회 개최일부터 중의원입법정보 네트워크시스템의 일부제공 개시와 중의원 인터넷 홈페이지의 개설에 의해 전자데이터라고 하는 새로운 전달매체로 의사정보의 제공을 개시한, 우리 기록부에 있어서 정말로 획기적인 해가 되었다.

현재 제공하고 있는 것은 본회의 의사부분뿐이지만 본회의 교열에 의해 확정된 최종원고에 기반한 회의록데이터관리실에서 하고 있는 원고관리서버에 등록되어 있는 현업 데이터와 교열 결과를 반영하는 데이터 보정작업 등의 용도에 대응하여 두 개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는 파일을 작성하고 있다.

하나는 원내열람용인 입법정보네트워크상의 회의록의사정보시스템의 검색 DB를 위한 파일인데 정보화추진실이 책정한 의원명 등을 중심으로 한 원내용 잠정외자(伊藤宗一郎 중의원 의장)가 사용되고 있다. 이 파일작성 작업이 끝나면 즉시 검색DB에 등록되어 의사부분과 말미 부분을 합친 회의록 원고가 대장성 인쇄국으로 송고되기 이전에 원내에서는 본회의 의사부분의 데이터검색이 가능하게 된다.

또 하나의 파일은 중의원 홈페이지용으로 이 경우 외자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외자를 JIS의 제1·제2 수준내의 자체로 바꾸어 홈페이지등록용 데

이더로의 변환(HTML화)을 실시한 다음에 DB에 등록한다. 홈페이지상의 데이터 갱신은 실제로 본회의 회의록이 관보호외로 발행된 직후에 이루어진다.

홈페이지의 주소는 <http://www.shugin.go.jp>이다.

회의록데이터관리실 작업은 실제 회의시간의 약 1.5배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이는 현단계에서는 데이터관리실 관계의 시스템화가 늦어져 있고 대부분을 수작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3. 회의록작성의 가까운 미래상

앞절까지 기술했던 기록부의 회의록 작성업무의 OA화는 95년도까지는 기록부에서 구상한 계획에 의해 진전되어 왔으나 96년도부터 국회회의록 Full Text Data Base System 구축이 사업화된 것과 아울러 본 시스템을 구성하는 일부분으로서 정비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본 시스템은 2000년도부터 일반국민에 대한 넓은 정보제공도 포함한 정식운용을 목표로 전반부인 96년과 97년도에 시스템의 기본적인 명기사항을 완성하고 후반부인 98년과 99년에 관련정보 이용환경과 이용자 확대를 위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본 시스템이 완성되면 관계자로부터 소개가 될 것으로 생각해서 시스템 구성개요와 연도별 시스템설계 개발계획을 표로 신는데 그치고 상세한 것은 생략한다. 여기에서는 앞으로의 개발추진에 맞추어서 고려해야 할 점을 크게 4개의 시스템별로 기술한다.

기록부의 회의록작성과 관련된 것은 ①회의록원고작성지원시스템과 ②조사지원DB시스템이다. 양 시스템이 가동되면 의사부분을 중심으로 한 회의록 작성업무의 능률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다만 말미 부분의 데이터화는 98년도 이후 기능확장할 때나 고려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다.

서두 부분의 데이터화는 97년도중에 원고작성지원기능의 개발로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에 반해 말미부분에 대해서는 후에 기술하는 회의록 열람시스템을 개발하는 가운데에서도 이미지데이터화하는 것에 그치고 있는데, 기록부내에서의 데이터화는 쓸데없는 업무량의 증대로 바뀌어서 회의록 발행을 지연시키기 때문에 Text Data화는 고려되지 않고 있으나 말미부분도 텍스트 데이터화시킨다면 이용자의 검색편리성이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중복입력을 피한다는 관점에서 정보 발생원인 정부 의원 등에게 종이형태의 의안제출과 함께 전자데이터의 첨부를 요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될 수 있다.

또 중의원공보의 전재도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의원입법정

보네트워크에 올라온 데이터를 모아서 사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면 텍스트데이터화의 범위도 점차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조사지원시스템에서는 데이터의 이용보다는 기록부의 회의록작성업무가 절실하게 바라고 있는 데이터의 내부작성을 적은 인원수로 날마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점에서 머지않아 예정되어 있는 사무국 집무실의 재배치에 맞추어서 조사업무의 향상과 본래의 업무분담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

또 각의결정사항은 관저 홈페이지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점, 공보부록의 관공·청직원의 초록데이터는 중의원 사무국내에 존재하는 점, 위원회조사 사실이 입법정보네트워크에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에는 회의록작성에 크게 참고가 되는 신뢰할만한 데이터가 수없이 게재되고 있는 점 등 이들 외부정보원의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데이터 내부작성의 부담을 경감해 나갈 필요가 있다.

회의록열람시스템에 있어서는 기록부에서 교열이 완료된 최종원고에 기초하여 의사부분의 데이터를 보정하고 난 다음에 데이터등록을 하지만 그 데이터는 바로 이용할 수 없다. 그것은 2에서 기술한 외자의 JIS한자로 바꾸는 것과 HTML화의 작업외에 인쇄회의록의 발행을 기다려서 텍스트 데이터로 컴퓨터기억장치에 정보부호를 입력하는 작업 및 이미지 데이터와 텍스트 데이터의 링크작업이라고 하는 새로운 업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 말미부분은 현시점에서 이미지 데이터만 제공되고 있으나 말미부분 중 의사부분관계에서 텍스트 데이터화가 필요한 부분은 없는가, 이미지 데이터의 데이터 전송이 인터넷에서 원활하게 되는가, CD-ROM 제공으로 대체가 가능한가 등이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회의록열람시스템의 Full Text Data사용이 가능할 때까지의 결함을 보충하는 것으로 회의록열람(원내검색용)시스템이 있다. 이것은 이미 중의원에서 중의원입법정보네트워크시스템 상의 회의록의사정보시스템으로서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3(회의록 의사정보의 데이터 제공)에서 언급했다.

아직은 본회의의 의사정보부분뿐이지만 기록부내 기기시스템의 정비와 부원의 조작성연도가 상당히 좋아져서 앞으로 위원회 등으로 데이터제공의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 시스템의 원래 계획은 미확정원고회의록이용시스템으로 구상된 것이었다. 종이형태의 미확정원고 제공은 한정적이고 최소한의 범위에 그칠 수 밖에 없는데 비해 미확정원고데이터의 제공은 의도적으로 데이터를 변경한다거나 무한정한 공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이므로 현시점까지는 매우 조

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는 생각들이 만연해 있지만 정보화시대에 발맞추어 중의원에서는 의사정보시스템과 같은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최종원고의 데이터 확정작업전에 1차 교열과 같은 데이터보정이 필요하지만 미확정원고데이터의 제공은 속보판 발행과 복사본의 업무부담을 대폭 경감시킨다. 그러기 위해 먼저 법제면의 검토 등 환경정비와 이용자의 의식개혁이 필요하고 그런 법 정비와 의식개혁이 실현가능하도록 계속 추구해 나아가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일 것이다.

다음은 발행완료 회의록의 소급입력시스템인데 Full Text Data Base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경우 과거 데이터도 빠른 시일내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요구가 증대할 것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그 입력작업의 부담을 이제부터 세 당국간의 업무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내다보고 그에 맞춰 처리 방법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끊임없이 수행하여 온 종이형태의 회의록 발행에 더하여 전자데이터라는 새로운 분야로 의사정보를 발신하는데 발을 내딛기 시작한 중의원기록부는 그에 요구되는 업무증대를 현 직제체제 그대로 처리해 나가야 하는 곤란에 직면하고 있다. 새삼스러운 말이지만 데이터발신을 위한 보정과 글자체 변환 및 HTML화 등의 구체적 작업에 이만한 시간과 사람수를 필요로 할까 하는 것을 통감하고 있다.

"폐회중에 했더라면"하는 이야기가 있는 것은 알고 있다. 그러나 폐회기간이 짧고 일년내내 국회가 열리고 있는 요즘은 폐회중이야말로 속기자에게 있어서 귀중한 훈련의 시기, 즉 재생산을 도모하는 때이다.

1-3에서 예시했듯이 알지 못하는 것은 듣지 못하기 때문에 쓸 수 없다.

다른 사람들은 모든 방면의 지식을 얻으려는 속기사의 노력이 폐회중에도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국회가 열리는 중에 모아둔 사례에 근거하여 용어집과 용자예, 양식예의 신예 등 개정을 검토하고, 백서류의 색인데이터화를 협동으로 작업하고, 업무의 질적향상과 부원들의 일체감을 형성하고, 새로운 규범확립을 목표로 하여 일정조정에 고심하면서 전체연수회와 계층별 연구회를 기획·개최한다. 그 외에 요즘에는 정보화연수가 자주 전개된다.

또한 입법의 심의시간 증가와 입법내용이 전문·세분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더하여 소급입력작업이라고 하는 새로운 업무부하의 발생을 기록부의 업무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기록부의 본래 임무는 정확한 회의록의 발행이다. 그러려면 계속되는 회의록데이터의 발신을 위하

여 현재 데이터의 정확한 제공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당연하다.

다행히 전국적인 주민기본대장의 컴퓨터화 덕분에 기존문서의 디지털 데이터화에 우수한 기술을 가진 민간업자도 다수 육성되어 오고 있다. 그것을 이용하여 소급입력의 조기완성을 위해 민간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한다.

만약 중의원기록부가 이 업무에 관여한다면 OCR 등으로 입력했던 데이터의 최종교정단계에서 기록부의 전문직원들이 도와주기를 바라는, 마치 OB의 응원을 바라는 것 정도에 그치는 것 아닐까?

더구나 본고 전체가 필자의 생각인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이 단락은 특히 개인적 견해가 짙다는 것을 양해해 주기 바란다.

<결 언>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89년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한 기록부업무의 OA화는 지금에 와서 겨우 구체적인 성과물을 나타내고 있다.

96년도부터 99년도까지 4개년 계획에서의 국회회의록 Full Text Data Base System 구축사업 실시에 의해 현업 속기사의 속기변문과 교열에 의한 편집단계, 그 위에 그것들을 지원하는 운영업무와 조사활동에 이르기까지 회의록작성업무의 전반에 걸쳐 시스템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유감스럽지만 그것들을 한꺼번에 가동한다 해도 회의록의 속성화와 의사정보의 조기제공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속기기술과 일본어 처리기술을 연마하고 정보관리에 익숙해져 있어도 2-3의 모두에 기술한 바와 같이 몇 가지의 요인에 의해 일본어 구어체를 문어체로 변환하는 데는 어떻든지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벽에 겨우 금이 가기 시작하고 있다. 그것은 일본어의 CAT시스템 실현에 대한 진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많은 사람이 토의에 참가하는 회의체에서의 직접사용은 무리라 하더라도 개인 뉴스는 실제 쓸만한 음성입력소프트가 시판되기 시작한 것, 여러 곳·동시다량의 음성원의 제어·전송·축적시스템의 개발실용화가 진전되고 있는 것 등이다.

한편 사회전체의 정보화 진전은 더욱 더 속도를 더해 가고 있다. 수년전에는 오늘날과 같은 정보기기의 보급과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네트워크의 만연을 얼마만큼의 사람이 예상하고 있었을까? 사실 94년도에 민간에 위탁해서 실시한 Full Text Data Base의 기본조사에서는 인터넷에 의한 정보

제공은 21세기나 되어야 되리라는 전제가 되어 있었다. 그것에 앞서 중의
원에서는 내외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97년1월부터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과 본회의 의사부분의 데이터제공을 개시한 것은 전술한 대로이다.

국회TV의 일반공개도 아주 임박해 있다. 그 때는 현재의 아날로그방식의
디지털화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거기에서 더 진전되면 국회심의의 정보
제공에도 문자 음·영상을 자유로 선택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형의 의사정
보제공이 요청될 것이다. 그 단계에서는 미국 의회도서관의 선진적 사례
에 비추어 앞으로 인터넷도 정보통신분야의 발전에 의해 질적으로 충실해
진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하나의 미디어로서 충분히 고려할만하다.

중의원기록부는 중의원규칙 제201조 "의사는 속기법에 의해 속기한다"에
근거하여 중의원사무국사무분장규정이 정해지고 그에 따라 의사의 속기
및 회의록 편집에 오랫동안 전념하여 왔다. 최근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회
의록 데이터화라는 새로운 업무가 더해졌다. 수필의 속기부호만을 구사하
면 해결되던 시대가 아닌 것이다.

게다가 그리 멀지 않은 장래에 요구될 멀티미디어형의 국회의 입법정보제
공, 또 차세대 고도의 세밀한 국회심의회에 심분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가
집단으로서 기능 업(UP)하는 것이 기록부에 항상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이같은 변화요구는 21세기 급속도로 전개되는 정보화시대에 의회의 기록
업무에 종사하는 우리 기록부원에게, 단순 속기자에서 말하자면 기록정보
사로 일컬어질 수 있는 새로운 직업으로 탈바꿈하는데 점차 그 명확한 모
습을 갖추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닐까.

제5회 속기학술세미나 이모저모

- 홍 보 부 -



▲ 제5회 속기학술세미나를 마치고 숙소 뒷편 잔디밭에서 기념촬영

협회는 1998년 6월 13일과 14일 양일에 걸쳐 제5회 속기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면운리에 소재한 휘닉스파크 휘닉스볼룸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속기인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고 변화하는 21세기의 정보화 세계화·지방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토론회를 겸한 것으로 속기 및 회의록 작성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현직 속기사들의 실무능력 향상방안 모색과 보다 발전된 기록문화를 창달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번 세미나에는 서울과 전국 각 지방에서 188명의 회원이 참가하였는데 회원들은 서울·광주·부산에서 각각 대형 전세버스로 출발하여 목적지인 강원도에 도착하였다.

장마가 시작되는 철이라 준비하는 측에서는 날씨를 많이 걱정하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출발하는 날에도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도심을 빠져 나가는데만 조금 시간이 지체되었을 뿐 고속도로에 들어서자마자 버스는 회

원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는 듯이 한 달음에 강원도로 달려갔다.

오후 4시경 목적지인 강원도 평창의 휘닉스파크에 도착하니 지방회원들은 먼저 도착하여 기다리고 있었으며 중국 출장으로 인한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도착 즉시 공항에서 바로 세미나장으로 오신 지대섭 회장님의 모습에 회원들은 무척 반가움과 함께 고무됨을 느꼈다.

서둘러 신회동 사업이사의 개회선언과 함께 세미나는 시작되었다. 지대섭 회장님은 인사말에서 환란과 구조조정의 위기 속에서 다시 만난 회원들에게 위로의 말과 함께 "지금의 어려운 상황은 이해하지만 당분간 조금 더 인내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회원들 모두가 "이제는 단지 우리가 역사를 기록하는 단순 기능인이 아니라 후대에게 올바른 역사를 전달해 주는 역사·정보전달자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어서 그 동안 협회 발전에 음·양으로 공이 많았던 김기상 명예회원께 감사패가 증정되었으며, 우렁찬 박수속에 전국 각지에서 모인 회원들의 소개가 끝난 후 이번 세미나의 주제발표가 시작되었다.

첫 번째로 홍사덕 국회의원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홍사덕 의원은 "그 동안 우리 나라의 역사는 철저한 기록 검증이 아닌 기억과 구전이라는 수단에 의해서 부정확하거나 왜곡되는 등 잘못 전해져 왔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부정확한 역사를 고치는 소금의 역할을 맡은 것이 바로 '속기사'라고 명명하였다. 그러므로 "속기사는 정치인들이 실수로 무슨 말을 했거나 의도적으로 입에 담지 못할 어떠한 말을 했더라도 그 모든 것들은 한번 기록되면 절대로 고쳐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렇게 해서 작성된 정확한 기록은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행정관리들한테도 엄청난 자극과 교육의 효과를 주게 된다"고 하면서 "속기사들은 현대사회의 사관으로서 자기의 직무에 대하여, 또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지라"는 말로 강의를 끝맺음으로써 회원들의 우뢰와 같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두 번째 주제발표는 현재 행정자치부 자치지원국에 근무하고 있는 이만의 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이어졌다.

이만의 국장은 "앞으로 우리 나라가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뿌리인 '지방자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잘하든 못하든 현재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사안을 판단하지 말고 주인으로서 그 지역을 사랑하고 그 지역의 발전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주인정신'을 발휘해서 투표에 임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라고 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는 자율성과 창의성을 가지고 주민 위주의 '서비스 행정'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앞으로 다가올 21세기는 전문가의 시대인 만큼 기록 전문가인 속기사들도 이제는 능동적인 자세를 가진 공직자로서 국민 앞에서 당당할 수 있도록 자기의 직무와 제도, 조직이 좀더 개선·발전되어가도록 함께 고민하는 고객지향적인 서비스를 해야 한다"고 말해 이번 세미나에 참가한 회원들에게 많은 생각과 반성의 계기가 되게 하였다.

1,2주제발표가 끝난 후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저녁식사를 하고 나서 즐거운 여흥시간을 가졌다. 모두 하얀 티셔츠로 갈아입고 하나가 된 회원들은 먼저 각 조별 노래자랑에서 각자의 끼를 유감없이 발휘, 푸짐한 상을 타기도 했으며, 골채미대회에서는 시종 폭소가 터지기도 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던 꼬리잡기를 끝으로 아쉬움을 뒤로 하고 회원들은 각자 숙소로 향했다. 월드컵 16강 진출을 결정지을 멕시코와의 한 판 결전을 응원하기 위해...

다음 날 아침, 날씨는 언제 비가 내렸냐는 듯 너무도 쾌청했다. 간단한 아침식사가 끝난 다음 곧바로 국회사무처 속기과에 근무하고 있는 이주성 사무관의 제3주제발표가 있었다.

20년이 넘는 속기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구성된 '속기사의 역할 증대방안'이라는 주제는 현재 어려운 국면에 처한 현업 속기사들을 중심으로 한 위상제고 문제에 관한 것으로 회원들에게 직접적이고도 실감있게 다가왔다. 국회와 지방의회에 근무하고 있는 현업 속기사들은 근래 1,000여명에 이를 정도로 가히 폭발적으로 그 숫자가 증가하였지만 "과연 그 규모와 수행업무에 걸맞게 제대로 대접을 받고 있는가"하는 물음으로 강의는 출발하여 '속기사'라는 직업이 현재 아무런 법적인 보장장치가 없다는 문제점

을 지적하였다.

또한 "이러한 현실 속에서 속기사가 제대로 대우를 받으려면 현 속기관 관련 법체계의 제정과 협회의 활성화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재정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함과 동시에 명실공히 한국 속기계를 대표하는 대한속기협회를 중심으로 조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회원 각자는 "공무원으로서 지녀야 할 법적 소양을 구축하기 위해서 항상 공부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하며 협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언제 어디서든 주변인들에게 '속기'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를 지닐 필요가 있다"고 역설함으로써 강의를 끝맺었다.

이어서 성천영 이사장의 폐회선언과 함께 드넓은 잔디밭을 배경으로 참가 회원 전원이 정답게 기념촬영을 한 다음 아쉬운 작별을 하고 각자 버스에 올랐다.

이번 세미나의 평가는 전반적으로 꽤 만족할 만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옥에도 티가 있듯이 국회에서의 출발상황이나 등록업무 상황, 숙소에도 착하여 방 배정시 회원들이 잠시 우왕좌왕했던 점 등에서는 사전준비가 좀 미흡했으며 숙소배정시 중앙회원과 지방회원들을 고려해 신경을 써야 한다는 의견이 건의사항으로 나왔다.

그러나 모두 한 마음이 되어 열정적으로 보낸 여흥시간과 전년에 비해 전반적인 진행상황이 매끄러웠던 점은 준비팀이 이번 세미나를 위해 얼마나 열심히 고생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제5회 속기학술세미나 설문결과분석

본지는 지난 제5회 속기학술세미나 시에 협회와 세미나에 관련하여 여러 회원들의 의견을 파악하고자 조사했던 설문내용을 정리하여 보았다.

세미나 참가인원 188명 중 85명의 회원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먼저 회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회보 발송방법은 현행과 같은 우편발송방법(81.1%)으로 이는 근무처에서 컴퓨터통신망과 접속가능 여부를 묻는 문항에서 인터넷전용망·천리안 등 PC통신망의 접속이 가능하다는 응답이 55.4%로, 접속불가하다는 응답 37.6%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음에도 우편발송방법을 선호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근무처에서 PC통신망의 접속이 가능하다는 응답이 55.4%인 것으로 보아 협회에서도 앞으로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회원과 협회집행부와의 연락은 주로 지역속기사조직(32.9%)을 통하며,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을 통해서 연락을 하거나 받는 경우는 27%로 나타났다.

또한 "지방에 지역지부 설치가 필요하느냐"는 질문에는 필요하다(44.7%)와 필요없다(40%)가 비슷한 비율이었다.

회보나 (소식지) 또는 (속기계)를 개인 또는 사무실에서 공용으로 받아 보는 경우가 82.3%로 대부분 받아 보고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못 받아 보는 경우도 17.6%로 회보나 (소식지) 또는 (속기계) 발송을 위한 회원주소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소식지)와 (속기계)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만족(95.8%)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사용어나 기타 회의와 관련된 용어, 체제설명이나 국회와 지방의회소식의 적절한 안배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세미나에 관련된 설문결과, 이번 세미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만족(98.9%)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정, 진행, 세미나 주제 발표나 강사, 2부 행사에 관련해서도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미나 관련 개선점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들이 있었는데 일정에 관련해서 평일, 즉 금·토요일로 일정을 잡아 다음 출근에 대한 부담을 줄여달라는 의견이 상당수 있었고, 일정이 너무 빡빡했다는 의견들도 있었다. 또한 이번 세미나 장소가 지역에 따라 교통이 너무 불편했다는 지적도 있었으며 조편성에 있어서 지역간 안배를 해서 회원간의 교류가 더 활발해지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세미나 발표내용과 강사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이었으나 발표내용이 속기업무와 좀더 관련있는 내용이었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세미나 후에 토론시간이 없어서 아쉬웠다는 지적이 상당수 있었다.

2부 행사와 관련해서는 회원간의 친목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는 의견과 함께 일부의 행사진행 방해로 진행이 매끄럽지 못 했던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이번 설문을 통한 조사 결과, 협회는 지방조직과 더 긴밀한 유대관계를 통해 중앙과 지역간에 정보교류가 원활해지도록 해야 할 것이며, 세미나와 관련해서도 분임토의를 통해 회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서로간 문제점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해 나감으로써 듣고 즐기는 세미나에서 생각을 나누고 느끼고 직접 참여하는 세미나로 거듭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6회 속기학술세미나 스케치

전국지방의회속기사협의회



10월 30일 아침부터 비가 내린다.

가을하늘을 말끔히 씻어주는 비이건만 나의 마음은 불안하기만 하다. 혹여 오늘의 세미나가 참석저조로 인하여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몰려온다.

전국에서 하나, 둘 속기사들이 모여 찾아오니 반갑기만 하다.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세미나 장소를 찾아오는 길이 약간 힘든가 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속기사들이 참석하여 30분 정도 시간은 지연되었지만 정기국회 일정으로 바쁜 가운데 참석해 주신 황인하 국회 기록편찬국장님, 이경식 총무이사님, 이주성 회원이사님, 김점동 이사님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전국의 속기인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힘껏 뛰어드시는 가운데 참석해주었고, 전국의 속기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어 더욱 빛나는 것 같다.

첫 번째 강의는 충청남도 정책관리관으로 계신 최민호 관리관님의 '지방의회 운영의 방법론과 묘수'라는 제목으로 강의가 있었는데 최민호 관리관은 '97년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있는 속기행정과정 교육에서 강의를 한 바 있어 우리에게서 낯익은 얼굴로 조용한 가운데 귀기울이고 있는 속기사들의 모습이 진지하게만 느껴진다.

우리들을 위해서 도의 기존일정을 뒤로 미루고 세미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최민호 관리관님의 속기사들에 대한 열의와 관심은 더욱 컸었다.

세 번째시간에 진행된 국회 기록편찬국장님의 강의는 공직선배로서, 속기선배로서 지금까지 겪고 느꼈던 감정을 우리 후배들에게 진솔하게 이야기해주고 그에 대한 반성과 충언의 말과 함께 동양의학에서 얻은 지식 등을 토대로 자

기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방법 등 열띤 강의를 해 주었다.

이번 제6회 전국속기학술세미나는 전국지방의회 속기사협의회가 주체가 되어 계획하고, 세미나의 진행까지 맡아하면서 한 달 전부터 몇 번의 계획수정과 시행착오를 거쳐 진행된 것임을 이해해주시기 바라며, 속기회원들은 하루 시간을 내고 참석을 하면 그것으로서 되지만 서로가 바쁜 시간을 쪼개어 마련한 자리가 비어 있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움도 금할 수 없었다.

어쨌든 전국의 속기사들이 많이 참석해 아무 대과없이 끝나게 될 때쯤 흐렸던 날씨도 맑아지고 성황리에 마치게 되어 속기사 여러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보낸다.

제6회 속기학술세미나 및 제6회 속기경기대회 결과보고

1. 일 시 : 1998.10.30(금) 10:00~ 18:00

2. 장 소 : 대전 한국통신인력개발본부

3. 참가인원 : ① 속기학술세미나 - 204명
 ② 속기경기대회 - 39명(각 도대표)

4. 제6회 속기학술세미나

○ 강의 내용

- ① 현시대적 상황에서 공직자의 자세 ; 황인하(국회 기록편찬국장)
- ② 지방의회 운영의 방법론과 묘수 ; 최민호(충청남도 정책관리관)
- ③ 지방자치의 올바른 이해와 발전방향 ; 김회창(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전문위원)
- ④ 공직여성의 화장법과 예절 ; 조정희(태평양뷰티 교육부 실장)

5. 제6회 속기경기대회

○ 속기경시대회 수상자

구 분	성명	소속	속기 법식	점수(%)	비고	
분단 320자 연설제 (5분)	금상	임선애	경남 고성군 의회	CAS	98.5%	수필 : 3급 기계 : 1급
	은상	임정택	충청남도의회	한글식	96.1%	수필 : 1급
	동상	윤한용	충청북도의회	의회식	95.1%	수필 : 1급

※ 상장, 부상은 20만원, 15만원, 10만원 상당의 시계

좋은 것을 얻기 위한 작은 관심

이 현 속



나는 매일 같은 길을 따라 출·퇴근하고 있다. 그 길을 따라 고가도로에 올라서니 앞에 보이는 나즈막한 산이 은빛으로 자연스레 나의 시선을 멈추게 한다. 어느 해 겨울 제주도를 여행할 때 보았던 눈꽃이 기억에 남아 가끔 그때의 사진을 들여다 보곤 했다. 그후로는 이렇게 예쁜 눈꽃을 볼 수가 없었는데 저절로 감탄사가 터져 나온다.

정신없이 보낸 35일간의 긴 정기회를 마치고 이제는 숨을 돌릴 시간적 여유 때문인지 아름다움에 눈이 부시다. 그리고 보니 눈만 돌리면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참 무관심하게 보낸 시간들이었다. 하늘을 쳐다본 것이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제서야 내 마음의 길을 어떻게 만들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되묻게 된다.

예년에 비해 추운 날씨가 예상된다고 하지만 아직은 겨울 햇살이 따뜻하다. 겨울 햇살이 따뜻함에 잠시 눈을 감고 손 끝에 와닿을 듯한 기억에 잠겨본다.

10월 30일 어린시절 소풍날처럼 자명종 시계가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다. 아이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좋은 꿈을 꾸는지 예쁜 얼굴로 세근거리며 자고 있는 이른 시간이었다.

조금 먼 길을 가야 한다는 설레임과 긴장 속에 평상시보다는 여러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내 자신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매일 마주하던 얼굴들, 제한된 공간 속에서 계획표를 짜야 될 필요가 없을 만큼 자연스레 지나갔던 시간들이었지만 오늘 하루는 뭔가 다른 느낌으로 시작되고 있었다.

동료직원과 만날 시간에 늦지 않게 여유있게 나와 시원스레 뿔려 있는 고

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그날 따라 비가 내려서 길이 조금 미끄러운 듯 조심스레 대전 T.G를 빠져나가 약도를 보며 찾아간 곳은 대전에 소재한 한국통신 인력개발본부였다.

그곳은 제6회 속기학술세미나가 개최될 장소였고, 처음 가는 길이라 일찍 서두르기도 했지만 행사준비를 도와줄 생각에 일찍 길을 떠났는데 도착해보니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다. 나는 조금 미안한 마음을 뒤로 하고 무언가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틈에서 바빠 손을 움직이고 있었다. 시기적으로 회기 중인 의회가 많아서 조금은 걱정되던 터였다. 경기 지역에서 16개 시·군이 회기 중이었기 때문에 다른 곳도 마찬가지로 일 것이고, 게다가 이슬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었던 터라 사고가 나서 길이 밀린다고 연락이 오는 곳도 있어 처음에는 빈 좌석을 채우기 위해 협의회장님의 주문에 따라 회원들은 좌석을 옮기기도 했다.

나로서는 무주, 강원도 평창, 그리고 이번이 세 번째 참석하는 세미나였다. 세미나에 참석하면 꼭 한 가지씩은 좋은 경험을 하고 돌아와서 나는 세미나에 꼭 참석하려고 했었다. 여러 사람을 만나다 보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분야를 꿰뚫고 있는 속기사들이 있어서 나로서는 나의 안일함과 현실안주에 창피한 마음과 함께 좀더 노력하는 자세를 보이려는 채찍도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러한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일을 함에 있어서도 좀더 폭넓은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세미나는 나뿐만 아니라 속기를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느끼게 해주는 기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최민호 충청남도 정책관리관님의 강의와 경북도의회에서 속기록 전산화실무를 담당했던 속기사의 경험담은 나에게 강한 힘을 불어넣는 듯한 전율을 느끼게 해줬다.

지난 해 6월 따뜻한 토요일 경기지역 속기사모임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참석을 했었다. 같이 속기를 배운 친구들 얼굴을 봐야겠다는 생각에 모임에 참석하였는데 그 곳에서 경기 지역속기사협회 지국장이라는 감투를 쓰고 나니 속기사모임이라고 하면 그냥 넘겨듣지 않는 버릇이 생겼다. 전에는 협의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는데 내가 그 속에 소속되어 참석하고 다른 지역의 속기사들을 접하는 속에서 배울 점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백지 위에 무엇인가를 그려놓는 작업을 하고 있다.

산을 그릴 수도 있고, 잔잔하게 흐르는 물을 그릴 수도 있지만 꼭 그리고 싶은 것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맡게 되어서 가끔은 힘에 부치기는 하지만 뿌듯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 좋다.

우리에게는 좋은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좋은 것을 더 좋게, 그리고 더 값있게 하기 위해서 비록 나에게 몹시 아까운 것이지만 더 좋게 쓰일 곳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미련없이 줄 수 있는 마음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며 대한속기협회와 전국지방의회속기사업의회에서는 그러한 일을 하기 때문에 이번 구조조정 시기와 맞물려 어려운 줄 알면서도 세미나를 강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어느 해 가을 지리산을 등산했을 때 산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배운 것이 있었다. 노고단을 거쳐 뱀사골산장에 가야 했지만 산을 좋아하지 않는 나에게서는 몹시 어렵고 힘든 산행이었다. 노고단 정상에 올라서야 완만하다는 얘기를 사전에 듣고 간 터여서 하산하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노고단 정상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리지요?" 했더니 한 아저씨가 "저 모퉁이만 돌면 노고단 정상이야" 했다. 그 소리에 나는 기운이 나서 빠른 걸음으로 모퉁이를 돌아 한참을 올라갔지만 정상이 아니었다. 산행하는 사람들은 으레 "정상에 다 왔습니다" "조금만 올라가면 됩니다"라고 말한다는 것을 나는 그때서야 알았다.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로 서로에게 힘을 주는 모습을 보고 새로운 느낌으로 산을 오르게 됐다. 우리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정상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조금만 가면 될 듯 하지만 힘은 거의 빠져 있고, 정상에 올라가서 "야호!" 소리 한번 외쳐보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고 내려갈 수는 없지 않은가? 내려가서의 허탈함을 맛보기보다는 조금 힘들더라도 목표가 있으니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정상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소리치기 위해 끌어주고, 밀어주면서 조금씩 힘을 모아 나갔으면 하는 것이 나의 작은 바람이며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매년 두 차례씩 열리는 세미나에 우리는 참석만 하면 되지만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 사전에 장소섭외, 강사섭외를 위해 고생하는 대한속기협회 임원진과 전국지방의회속기사업의회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제6회 속기학술세미나 준비에 고생하신 대전지역협회 임원진과 회원님들께 감사를 드린다.

(용인시의회)

빠른교정의 응용

한 기 수



I. 들어가는 말

현재까지 수필속기사의 업무는 먼저 속기법식에 의해서 속기를 한 다음 회의록 작성을 위해 워드작업으로 PC를 이용하게 된다. 또한 일반 문서작성과 달리 집중적이고 장시간에 걸쳐서 워드작업을 하게 됨으로써 목, 어깨, 손목 등 우리 몸의 많은 부분에 무리가 가해지고 그로 인해서 업무의 능률이 떨어

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업무능률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한글프로그램 안의 '빠른교정'이라는 기능을 우리의 업무에 맞게 변환·활용하여 특정분야에서 자주 사용되고 또 입력하기 어렵고 틀리기 쉬운 단어나 어구를 새로운 기호로 바꾸어 사용함으로써 적은 타수로 빠른 입력을 하게 되어 결국 업무의 부담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신속·정확을 필요로 하는 우리의 업무뿐만 아니라 워드작업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를 일상생활에 활용함으로써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빠른교정'의 기능을 연구하게 되었다.

II '빠른교정'이란 무엇인가

1. 정의 및 원리

'빠른교정'이란 사용자가 한글을 이용하여 문서를 작성할 때 범하기 쉬운 오타나 틀리기 쉬운 말들을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고쳐주는 기능이다.

이와 유사한 기능 중의 하나인 '맞춤법'은 주로 입력이 끝난 문서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맞춤법을 검사하는 기능인 반면, '빠른교정'은 미리 기능

실행을 할 수 있도록 선택해 두고 사용자가 낱말을 입력한 직후에 (사이띄개)나 (탭) 또는 (엔터)를 누르면 자동 변환이 되는 기능이다.

이 기능은 한글 3.0 이상 버전에만 포함되어 있으며, 한글을 설치하면 '빠른교정 낱말 사전' (qcorrect.dic)에 미리 등록되어 있는 약 500여개의 낱말을 이용할 수 있다. 주로 한글맞춤법상의 틀리기 쉬운 낱말과 혼동되기 쉬운 영어단어들이 미리 등록되어 있는데 사용자는 낱말 사전의 내용을 고치거나 지울 수 있으며 또한 임의로 새 낱말을 등록할 수 있다.

'빠른교정'이 입력과 동시에 낱말을 변환시켜 주며 또한 임의의 낱말을 등록할 수도 있다는 점에 착안하면 '빠른교정'은 본래의 목적인 '틀린 것을 빨리 바로잡음' 뿐만 아니라 많은 양을 되도록 빨리 입력해야 하는 사용자에게는 '적은 타수로 고속 입력'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능이 될 수 있다. 즉, 사용자가 빈번히 입력해야 하는 낱말이나 어구, 입력하기 힘든 낱말, 영문 등의 경우에 이를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낱말의 조합 또는 특정자 등으로 생략하여 등록해 두면 간단한 입력과 동시에 '빠른교정' 기능이 실행되어 이를 온전한 낱말로 변환시켜 준다는 것이다.

2. '빠른교정'의 하부 메뉴 및 도움말

- 1) 내용보기(shift F8) : "빠른교정 낱말 사전"에 현재 등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거나 편집하는 기능.
- 2) 경고음 : '빠'소리를 통해 낱말이 변환되었음을 알려줌.
※ 원고작성시 경고음 기능선택을 취소함.
- 3) '빠른교정' 기능 실행을 선택함.
- 4) 한영전환 한글 또는 영문 입력시 자판을 적절히 변경시키지 않았을 때의 실수를 고쳐줌.
※ 원고작성시 한영전환 기능선택을 취소함.

III. '빠른교정'의 응용

'빠른교정'은 PC 입력자의 주관적인 법칙에 따라 그 활용도가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필자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법칙을 품사별로 몇 가지만 소개하고자 한다.

1.동사

가. 등록된 동사(이하 '기본동사'로 부름)

기본동사는 '빠른교정'을 사용하는 사람이 자기가 정한 법칙에 따라 등록·사용하겠다고 하는 자기와의 약속이다. 예를 들면 'ㅣ'를 '있다'의 어간인 '있'으로 사용하겠다고 하고 등록을 하면 '빠른교정' 실행시 'ㅣ'를 입력하고 실행하면 항상 '있'으로 자동변환되는 것으로서, 필자는 모음을 활용하여 자주 쓰이는 동사를 기준으로 20개 내외의 기본동사를 사용하고 있다.

(1) 기본동사의 종류(모음활용)

ㄱ(없다), ㅣ(있다), ㅁ(했다), ㅂ(않다), ㅅ(하다), ㅡ(드리다), ㅓ(모르다), ㅗ(불러 일으키다), ㅛ(받아 들이다) 등등.

※ 등록되지 않은 동사는 일반동사라 부름.

(2) 동사활용의 대원칙

① 종결형어미(-ㅂ니다)는 'ㄷ', 의문형어미(-ㅂ니까?)는 'ㅍ'으로 처리한다.

예) 했습니다 ⇒ 했(ㅁ)+습니다(ㄷ) ⇒ ㅁㄷ
없습니까? ⇒ 없(ㅣ)+습니까?(ㅍ) ⇒ ㅍㅣ

② 복자음(ㅍ, ㅌ, ㅍㅍ, ㅌㅌ, ㅍㅌ)은 **Shift**를 사용하지 않고 자음을 연속해서 입력한다.

예) ㅍ ⇒ ㅍ+ㅍ, ㅌ ⇒ ㄷ+ㄷ, ㅍㅍ ⇒ ㅁ+ㅁ
있겠습니까? ⇒ 있(ㅣ)+겠(ㅍ)+습니까?(ㅍ) ⇒ ㅍㅣㅍ
※ **Shift**를 사용한 경우는 '-ㅍㅍ'로 나타나므로 실행이 되지 않음.

③ 기본동사의 과거형은 '뒷 모음'을 한 번 더 입력한다.

예) 앉았습니다마는 ⇒ 앉았(ㅂㅂ)+습니다(ㄷ)+마는(ㅁ) ⇒ ㅂㅂㅁ
물랐습니까? ⇒ 물랐(ㅓㅓ)+습니까?(ㅍ) ⇒ ㅓㅓㅍ
불러 일으켰습니다 ⇒ 불러 일으켰(ㅣㅣ)+습니다(ㄷ) ⇒ ㅍㅣㅣ

④ 기본동사의 어미변화는 어미의 초성자음을 붙여서 활용한다.

예) 했다고 ⇒ 했(ㅁ)+다고(ㄷㅁ) ⇒ ㅁㄷㅁ
있었어요? ⇒ 있었(ㅣㅣ)+어요?(ㅇㅇ) ⇒ ㅣㅇㅇ

-갔, -졌, -졌, -졌, -났, -냈, -냈, -냈, -렀, -렀, -렀, -렀, -였, -였, -였, -였, -았, -았, -았, -았, -웠, -웠, -웠, -웠, -웠, -웠, -웠, -웠, -웠, -웠 등.

※ 존경(-셨), 의지(-겠)를 나타내는 어미도 과거시제 선어말어미에 포함시켜 사용한다.

※ 참고로 '-'의 표시는 '모든 문자'를 말하며, 따라서 과거시제 선어말어미는 단독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반드시 어간에 붙여서 사용된다.

(2) 일반동사의 활용 : 일반적으로 기본동사의 활용과 같다.

① 과거형 일반동사

예) 먹었습니다. ⇒ 먹+었습니다.(얻) ⇒ 먹얻

주셨습니다마는 ⇒ 주+셨습니다(쉴)+마는(ㅁ) ⇒ 주쉴ㅁ

이겼습니까? ⇒ 이+졌습니다(겪) ⇒ 이겪

시켰습니까? ⇒ 시+켰습니까? (겪) ⇒ 시겪

보겠습니다마는 ⇒ 보+겠습니다(겔)+마는(ㅁ) ⇒ 보겔ㅁ

보았다고는 ⇒ 보+았다고는(알ㄱㄴ) ⇒ 보알ㄱㄴ

지났잖아요? ⇒ 지+났잖아요?(낫ㅇㅇ) ⇒ 지낫ㅇㅇ

버렸어요? ⇒ 버+렸어요?(령ㅇ) ⇒ 버령ㅇ

② 현재형 일반동사 : 어미활용은 1타를 띄어서 자음으로 처리한다.

예) 간다고 ⇒ 간^v+다(ㄱ) ⇒ 간^vㄱ

시키면서도 ⇒ 시키^v+면서(ㅁㅅㄷ) ⇒ 시키^vㅁㅅㄷ

되리라고 ⇒ 되^v+리(ㄹㄹㄱ) ⇒ 되^vㄹㄹㄱ

가도록 ⇒ 가^v+도(ㄷㄹ) ⇒ 가^vㄷㄹ

* 참고로 'V' 는 'Space Bar' 와 동일함.

3) 일반동사의 변형 : 일반동사에 붙여서 사용하되 기본동사의 활용과 같다.

① -지 않다(-자)

가지 않습니다마는 ⇒ 가 +지 않(자)+습니다(ㄷ)+마는(ㅁ) ⇒ 가

듣지 않았습니까? ⇒ 듣+지 않았(자ㅏ)+습니까?(ㅍ) ⇒ 듣자ㅏ

되지 않느냐 ⇒ 되+지 않(자)+느냐(ㄴ냐) ⇒ 되잔ㄴ

받지 않았지만 ⇒ 받+지 않았(자ㅏ)+지만(ㅈㅁ) ⇒ 받자ㅏㅁ

② -지 않으면 안 되다(-도)

가지 않으면 안 됩니까? ⇒ 가+지 않으면 안 됩니까?

(뚝) ⇒ 가뚝

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데 ⇒ 시키+지 않으면 안 되(도)+는데(ㄴㄷ) ⇒

시키든ㄷ

③ -지 못하다(-요) : -'지 못' 다음에는 '하다'의 동사가 온다.

먹지 못합니다마는 ⇒ 먹+지 못(요)+합니다(ㄷ)+마는(ㅁ) ⇒ 먹믄ㅁ

가지 못하도록 ⇒ 가+지 못하도록(믄ㄹ) ⇒ 가믄ㄹ

④ -도록 하겠습니다.(-돋)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하+도록 하겠습니다.(돋) ⇒ 하돋

시키도록 하겠습니다마는 ⇒ 시키+도록 하겠습니다(돋)+마는(ㅁ) ⇒ 시

키돋ㅁ

⑤ -고 싶다(-골)

하고 싶습니다마는 ⇒ 하+고 싶(골)+습니다(ㄷ)+마는(ㅁ) ⇒ 하골ㄷㅁ

먹고 싶지만 ⇒ 먹+고 싶(골)+지만(ㅈㅁ) ⇒ 먹골ㅈㅁ

보고 싶겠습니다마는 ⇒ 보+고 싶(골)+겠(ㄱ)+습니다(ㄷ)+마는(ㅁ) ⇒

보골ㄱㄷㅁ

⑥ 것 같다(ㄱㅏ)

것 같습니다마는 ⇒ 것 같(ㄱㅏ)+습니다(ㄷ)+마는(ㅁ) ⇒ ㄱㅏㅁ

것 같았습니다마는 ⇒ 것 같았(ㄱㅏ')+습니다(ㄷ)+마는(ㅁ) ⇒ ㄱㅏ'ㅁ

것 같았는데 ⇒ 것 같았(ㄱㅏ')+는데(ㄴㄷ) ⇒ ㄱㅏ'ㄴㄷ

* 참고로 'ㅏ'는 'ㅏ'모음을 두 번 입력한 형태임.(기본동사의 과거형 참조)

⑦ -기 쉽다(-깃)

하기 쉽습니다마는 ⇒ 하+기 쉽(깃)+습니다(ㄷ)+마는(ㅁ) ⇒ 하깃ㄷㅁ

되기 쉽겠습니다마는⇒되+기 쉽(깃)+겠(ㄱ)+습니다(ㄷ)+마는(ㅁ) ⇒
되깃ㄱㄷㅁ

알기 쉽지만⇒알+기 쉽(깃)+지만(ㅅㅁ) ⇒ 알깃ㅅㅁ

보기 쉽겠지만 ⇒ 보+기 쉽(깃)+겠(ㄱ)+지만(ㅅㅁ) ⇒ 보깃ㄱㅅㅁ

⑧ -기.위(한, 해, 해서, 하여) (-깁)

하기 위해서 ⇒ 하+기 위해서(깁ㅅ) ⇒ 하깁ㅅ

먹기 위하여 ⇒ 먹+기 위하여(깁ㅇ) ⇒ 먹깁ㅇ

되기 위한 ⇒ 되+기 위한(깁ㄴ) ⇒ 되깁ㄴ

보기 위해 ⇒ 보+기 위해(깁ㅎ) ⇒ 보깁ㅎ

⑨ -기는커녕(-깁)

하기는커녕 ⇒ 하+기는커녕(깁) ⇒ 하깁

아프기는커녕 ⇒ 아프+기는커녕(깁) ⇒ 아프깁

⑩ -시다시피(-실)

아시다시피 ⇒ 아+시다시피(실) ⇒ 아실

하시다시피 ⇒ 하+시다시피(실) ⇒ 하실

잘 아시다시피 ⇒ 잘

⑪ -시는 바와 마찬가지로(-실ㄷ)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실ㄷ) ⇒ 아실ㄷ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실ㄷ) ⇒ 보실ㄷ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 잘ㄷ

⑫ -시는 바와 같이(-실ㅇ)

아시는 바와 같이 ⇒ 아+시는 바와 같이(실ㅇ) ⇒ 아실ㅇ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마는 ⇒ 보+시는 바와 같(실+습니다(ㄷ)+마는(ㅁ))

⇒보실ㄷㅁ

잘 아시는 바와 같이 ⇒ 같ㅇ

2 명 사

1) 명사활용의 대원칙 : 첫 자와 끝 자를 활용한다.

본인은 2자, 3자, 4자~6자, 7자 이상의 명사 이렇게 네 종류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7자 이상, 4자~6자, 3자의 명사에 대해서만 설명하기로 하겠다.

콩심은 데 콩나고 팥심은 데 팥⇒ 콩 ; 팥
정회를 선포합니다. ⇒ 정 ; 다
일괄해서 ⇒ 일^V서
괄목할 만한 ⇒ 괄^V한

50만불 ⇒ 50+만불(口^ㅁㅂ) ⇒ 50口^ㅁㅂ

5억원 \Rightarrow 5+억원(ㅇㅇ) \Rightarrow 5ㅇㅇ
 6여억원 \Rightarrow 6+여억원(ㅇㅇ) \Rightarrow 6ㅇㅇ
 60만원 \Rightarrow 60+만원(ㅇㅇ) \Rightarrow 60ㅇㅇ
 80여만원 \Rightarrow 80+여만원(ㅇㅇ) \Rightarrow 80ㅇㅇ
 10% \Rightarrow 10+퍼센트(표) \Rightarrow 10표
 3,000만원 \Rightarrow 3+천만원(츠ㅇㅇ) \Rightarrow 3츠ㅇㅇ
 5,000억원 \Rightarrow 5+천억원(츠ㅇㅇ) \Rightarrow 5츠ㅇㅇ
 2,000억달러 \Rightarrow 2+천억달러(츠ㅇㅇㄷㄹ) \Rightarrow 2츠ㅇㅇㄷㄹ
 6,000만불 \Rightarrow 6+천만불(츠ㅇㅇㅍ) \Rightarrow 6츠ㅇㅇㅍ
 50년 \Rightarrow 50+년(ㄴ) \Rightarrow 50ㄴ
 97년말 \Rightarrow 97+년말(ㄴㅇ) \Rightarrow 97ㄴㅇ
 98년말 현재 \Rightarrow 98+년말 현재(ㄴㅇㅎ) \Rightarrow 98ㄴㅇㅎ

3. 조 사

(모든 조사는 1타를 띄워서 사용한다. 다만, 1자인 조사는 모두 입력한다.)

예) 국회에서는 \Rightarrow 국회+에서는(ㅇ스ㄴ) \Rightarrow 국회^Vㅇ스ㄴ
 지금까지는 \Rightarrow 지금+까지는(ㄱ스ㄴ) \Rightarrow 지금^Vㄱ스ㄴ
 그것보다도 \Rightarrow 그것+보다도(ㅂㅌ) \Rightarrow 그것^Vㅂㅌ
 이것만큼 \Rightarrow 이것+만큼(ㅇㅋ) \Rightarrow 이것^Vㅇㅋ
 요금과 관련하여 \Rightarrow 요금+과 관련하여(ㅍㅇ) \Rightarrow 요금^Vㅍㅇ

그것에 대해서 \Rightarrow 그것+에 대해서(엘스) \Rightarrow 그것^V엘스

소득에 대한 \Rightarrow 소득+에 대한(엘ㄴ) \Rightarrow 소득^V엘ㄴ

사랑을 위하여 ⇒ 사랑+을 위하여(응ㅇ) ⇒ 사랑^v응ㅇ
 서로를 위해서 ⇒ 서로+를 위해서(릉ㅅ) ⇒ 서로^v릉ㅅ
 장관님께서 ⇒ 장관+님께서(ㄴㄱㅅ) ⇒ 장관^vㄴㄱㅅ

4. 관 용 구

(어미변화가 없는 회의용어나 상용구)

1) -(해)주시기 바랍니다.(-받)

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받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받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검받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받

2) -(번)째(모음 'ㅐ' 활용)

예) 첫째 ⇒ 1ㅐ, 첫 번째 ⇒ 1ㅐㅐ, 셋째 ⇒ 3ㅐ, 세 번째 ⇒ 3ㅐㅐ

서너 번째 ⇒ 3ㅐㅐㅐ, 몇 째 ⇒ 며ㅐ, 몇 번째 ⇒ 며ㅐㅐ

3) 의사일정(자음 'ㅇ' +항수)

예) 의사일정 제1항 ⇒ ㅇ1

의사일정 제5항 ⇒ ㅇ5

4) -차례(모음 'ㅐ' 활용)

예) 한 차례 ⇒ 1ㅐ, 한두 차례 ⇒ 12ㅐ, 두세 차례 ⇒ 23ㅐ, 여러 차례 ⇒ 여ㅐ

5) -가지(모음 'ㅣ' 활용)

예) 한 가지 ⇒ 1ㅣ, 두 가지 ⇒ 2ㅣ, 서너 가지 ⇒ 3ㅣ, 몇 가지 ⇒ 며ㅣ

6) 위원명의 활용

① 발언자인 경우(숫자 'ㅇ' + 위원명의 초성자음)

예) ○池大燮 委員 ⇒ ㅇ스ㅅㅅ

○林鐵出 委員 ⇒ ㅇㅇ스스

② 호칭인 경우(':' + 위원명의 초성자음)

예) 池大燮 委員 ⇒ ;스ㅅㅅ

趙舜衡 委員도 ⇒ 趙舜衡 委員(:스ㅅㅎ)+도 ⇒ ;스ㅅㅎ도

趙贊衡 委員님께서 ⇒ 趙贊衡 委員(:스ㅅㅎ)+님께서(ㄴㄱㅅ) ⇒ ;스
 ㅎ^vㄴㄱㅅ

7) 기타 발언자의 활용(숫자 'ㅇ' + 명사활용 원칙에 따르되 직위까지만을 기준

- 예) ○문화관광부장관 신낙균;⇒ 0문 ; 관
 ○문화관광부기획관리실장 김순규;⇒ 0문 장
 ○법무부장관 박상천;⇒0법 ; 관

IV '빠른교정'의 효과성

1. 업무부담의 감소

필자는 A4용지 1매의 원고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빠른교정'을 이용하지 않았을 때와 '빠른교정'을 이용하여 입력한 경우의 타수를 비교한 바가 있다. 그 결과 '빠른교정'을 이용하지 않고 입력했을 때에는 1,449타수, '빠른교정'을 이용하여 입력했을 때에는 53%에 해당하는 776타수가 나왔다. 따라서 타수만의 단순비교로 평가했을 때 47%의 업무부담 감소효과가 나타났으며, 동사부분만을 놓고 평가했을 때에는 80, 내지 90% 이상의 감소효과가 나타났다. 물론 여기에는 '빠른교정'의 숙지 및 숙달이 전제되어야 한다.

2. 오타의 감소

최근들어 속기의 업무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신속·정확성을 요구받게 된다. 따라서 빠른 원고작성을 하다보면 오타가 자주 발생되고 그로 인해서 시간과 신체적인 에너지가 소모되므로 업무능률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빠른교정'을 이용하여 입력한다면 적은 타수로서 입력된 동사나 명사, 입력이 어려운 글자 및 어구 또는 관용구가 올바르게 등록된 상태에서 실행이 되기 때문에 '빠른교정'을 이용하여 실행한 문자는 오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위에서 보듯이 적어도 47% 이상의 오타감소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3. 장시간 작업가능

'빠른교정'은 적은 타수로서 많은 업무량을 고속입력하므로 그만큼 신체에 무리가 덜하고 피로감이 덜함으로써 보다 오랜 시간 동안 워드작업을 할 수 있다.

4. 이동의 편리성

'빠른교정'의 기능은 한글3.0 이상 버전에는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c:\hnc\user\qcorrect.dic의 '빠른교정 낱말 사전' (qcorrect.dic)을 디스켓에 copy하였다가 워드작업이 필요할 때에는 다시 본체에 copy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언제 어디에서나 컴퓨터만 있으면 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빠른교정'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V.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띄어쓰기

'빠른교정'에서는 조사활용시 붙여 쓸 때와 띄어 쓸 때를 구분하지 못하고 하나만을 선택하여 활용해야 한다. 예를 들면 "생각해서"와 "생각을 해서"의 경우 '해서(ㅎㅅ)'는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누어 쓰여지고 있지만 '빠른교정'에서는 한가지만을 선택하여 사용하게 된다. 먼저 붙여쓰는 것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생각해서"와 "생각을해서"와 같이 모두 붙여서 활용되어지고, 띄어쓰는 것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생각 해서"와 "생각을 해서"로 모두 띄어서 활용되어진다. 따라서 원고작성후 수정작업에 약간의 시간이 더 소요된다.

2. 입력속도의 한계

'빠른교정'은 기계(컴퓨터)속기와 같이 현장에서 속기를 목적으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컴퓨터를 이용한 워드작업시 업무의 경감과 신체의 부담을 줄여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속도는 기계(컴퓨터)속기보다는 빠르지 않으나 '빠른교정'의 개선을 통한 속지 및 속달 정도에 따라 얼마든지 속도는 향상될 수 있다고 본다.

3. 입력작업

위에서 품사별로 소개한 것은 등록된 '빠른교정'안에서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명사만 하더라도 자기 업무분야에서 나오는 수많은 명사들을 그때그때 모두 입력해야 하고, 조사의 경우 '께서(ㄱㅅ)'를 예로 들면 '께서는(ㄱㅅㄴ)', '께서도(ㄱㅅㄷ)', '께서만(ㄱㅅㅁ)' 등 모든 상황을 가정하

여 입력해야 하고, 어미변화의 경우에 '는지(ㄴ지)'를 예로 들면 '는지가(ㄴ지ㄱ)', '는지는(ㄴ지ㄴ)', '는지도(ㄴ지ㄷ)', '는지를(ㄴ지ㄹ)' 등을 모두 입력해야만 실행되므로 입력작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같은 법칙을 활용하는 사람들끼리 나누어서 입력한 다음에 합치기를 한다면 입력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이미 등록입력된 파일을 복사하여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다.

4. 개선방향

위에서 보았듯이 '빠른교정'은 워드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워드작업을 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자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빠른교정'이 한글에서만 작동되는 한계를 지니고 있으므로 PC통신이나 기타 모든 환경에서 실행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발전된다면 시간과 비용절약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또한 기존의 기계(컴퓨터)속기와의 접목을 시도한다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사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VI. 맺음말

지금까지 위에서 필자가 등록·사용하고 있는 '빠른교정'의 기능을 품사별로 몇 가지만 소개하였으나 지면관계상 부사·관형사 대명사 등의 활용방법과 입력방법, 두 개 이상 중복시 동시 사용방법 등은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필자는 '빠른교정'의 다양한 기법 중에서 하나를 소개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본인들이 직접 또는 다른 사람들과 공동작업을 통하여 새로운 체계를 세워서 보다 나은 방법으로 '빠른교정'을 활용한다면 우리의 업무뿐만 아니라 워드작업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확신한다.

(국회 속기2과, 협회총무부장)

마지막 원고감수는 끝났는데...

유 순 태



(한국속기50년사)의 마지막 원고손질을 마치고 김진기 고문님의 감수를 거친 다음 권용태 편찬위원장님(협회부회장)께 편집·인쇄 진행에 앞서 마지막 감수를 받기 위해 원고를 넘긴 후부터 10여일간은 그야말로 피를 말리는 순간순간들이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나름대로 사사·회고록 집필을 전문으로 한다고 자기P.R을 해왔고, 또 상당한 실적을 갖고 있다고 자부하면서도 목차 구성에서부터

탈고에 이르기까지의 진행과정이 이번처럼 까다롭고 두려움이 앞서는 집필경험은 처음인성 싶다.

모르면 차라리 용감해진다고 했던가.

아무리 문외한적인 분야라 할지라도 일만 주어지면 서슴없이 덤벼들었던 배짱은 어디로 출장갔는지 언필칭 전문분야라 할 수 있는 (한국속기50년사) 집필참여는 처음부터 손대기가 두려웠던게 솔직한 고백이다.

짧은 집필 기간이 그러했고, 뻑뻑한 예산을 비롯한 작업환경도 그러했지만 그보다도 등장인물들의 대부분이 현존해 있는 대선배들이었기에 더욱 그러했다.

1997년 4월 어느날 신세화 부회장님의 부름을 받고 박정호 계장(한국속기 50년사편찬위원회 간사)과 자리를 함께 하여 논의한 (한국속기50년사)의 주요내용이 될 가목차 작성을 의뢰받으면서부터 필자는 한국속기50년사 편찬사업에 깊숙이 빠져들게 되었다.

우리말 속기의 과거를 되돌아 보고 현재를 진단한 후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협회가 97년부터 98년까지 2년간 최대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던 (한국속기50년사)편찬을 위한 편찬위원회는 1997년 5월 1일 문화체육공보위

원회 소회의실에서 권용태 부회장의 주재로 제1차회의를 가졌다. 이 회의에서 편찬위원회의 조직은 위원장에 권용태 부회장, 위원에 신세화·전해성·김순철·송기철·김기영·황인하·유순태, 간사에 박정호 간찬기 등으로 구성하는 한편 집필위원에 김선옥·김점동·김은숙·김치원·박정호·유순태·손재옥·장미경·한동춘·홍기표(가나다 순) 등으로 구성하고 이들 집필위원 중 필자가 대표집필자로 위촉되었다.

아울러 제1차회의에서는 미리 준비된 가목차에 대한 검토와 토론 및 각 위원들의 의견개진이 있는 다음 이를 반영한 목차를 재구성하여 제2차회의에서 다시 논의기로 하였다.

이어 제2차회의는 동년 6월 4일 제1차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권용태 편찬위원장 주재로 문화체육공보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가졌다. 이 회의에서는 새로이 작성된 가목차에 약간의 수정 및 보완을 가한 후 그 목차에 따라 이미 내정된 집필위원에게 원고 초안을 시대별로 집필하도록 의견을 모으고 빠른 시일내에 집필위원을 한 자리에 모아 보다 구체적인 집필지침을 시달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편찬위원회는 7월 21일과 8월 4일 양일에 걸쳐 국회에서 제1·2차 집필자회의를 가졌다.

7월 21일 신세화 부회장(편찬위원) 주재로 가진 제1차 집필자회의에서는 자료 수집 정리 및 원고작성지침이 정해졌고, 8월 4일 권용태 부회장 주재로 개최된 제2차 집필자회의에서는 편찬위원들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원고매수와 집필방향 및 원고마감일 준수 등 구체적인 세부사항이 확정되었다.

이로써 《한국속기50년사》 편찬작업은 본과도에 올랐고, 특히 8월 25일에는 필자를 포함하여 김진기 고문과 신세화 부회장을 비롯, 전해성 자문위원, 김기영 이사, 황인하 감사 등 편찬위원 및 한동춘 이사, 박정호 이사, 손재옥 이사, 홍기표 회원, 간찬기 회원, 장미경 회원 등 12명이 협회 고문인 정원도 회원 자택(강서구 등촌동)을 방문, 생생한 회고담을 들었다.

이후 각 집필위원들은 본격적인 집필작업에 들어갔고, 11월 7일과 12월 19일 두 차례에 걸쳐 제3·4차회의가 개최되었다.

특히 제4차회의에서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원고접수를 마감기로 하고 그에 따른 편찬 방향 및 기타사항이 논의됨과 동시에 원고 재구성 및 감수

자 선정에 관한 사항도 구체적으로 검토되었다. 그러나 예정과는 달리 원고마감은 해를 넘겨 1998년 6월에야 완료되었다. 그리고 마감된 원고는 필자에게 돌아왔다. 하지만 이때부터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다. 다수자에 의한 집필로 문맥의 불통일은 물론 중복된 내용에다 집필자마다의 사건을 보는 시각이 달라 본래 의도했던 편년체(연대순에 따른 다큐멘트식 서술방법)식의 스토리 전개에 어려움이 왔던 것이다.

1차로 가필·수정·삭제 과정을 거쳐 재구성된 원고가 감수위원들에게 넘어간 때가 9월 중순.

감수위원은 권용태 부회장(편찬위원장 겸 감수위원장)과 김진기 고문 및 신세화 부회장을 비롯하여 김성한·이강현·김기영·황인하·채강희 회원 등이었고, 10월 초순에 개최된 감수위원회에서는 예상했던 대로 또다시 원고의 재구성 및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있었다. 이때부터 필자는 회사내의 모든 업무를 직원들에게 위임하고 오로지 이 작업에만 골몰해야 했다. 밤낮의 구분이 애매해지고, 연락 가능한 등장인물들에게 당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밤낮없이 전화를 해야 했다. 때로는 "사서 고생한다"는 생각도 없지 않았으나 어느날 늦은밤 성천영 이사장님과 김기영 이사님, 박정호 이사님, 고태중 선배님이 사무실로 찾아와 베풀어준 분에 넘친 격려의 음식대접을 받고 크게 위로가 되었으며, 채강희 선배님의 희생적인 원고 보완 지원에 더욱더 힘을 얻었다. 특히 김진기 고문님의 지대하신 관심과 증언 및 격려가 없었더라면 "이 작업을 이 정도나마 완수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고맙기도 했다. 혹시나 이 작업으로 인하여 필자가 조금이라도 칭찬받을 일이 있으면 밤12시가 넘어서도 떠오르는 일화가 있으면 시외전화를 걸어 반시간이 넘도록 말씀해 주셨고, 내용상 조금이라도 의문점이 생기면 "누구누구에게 확인해 보라"는 식의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던 김진기 고문님께 돌리고 싶다.

이제 편찬위원장의 마지막 원고 감수로 대임은 끝났다.

그런데 자꾸만 두려워진다.

혹시나 잘못 기술된 부분은 없을까. 그리고 헌신적으로 초고집필에 임해 준 여러 집필위원들의 귀중한 원고들을 잘못 칼질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우려와 함께 아무리 생각해도 미완성인 것만 같은 염려 때문이다.

(도움사 대표, 협회 평생회원)

허위·과장광고에 실직자는 울었다.

- 자격심사위원회 -

무책임한 신문기사

97년 말부터 IMF사태로 인한 고실업 속에 취업난 극복의 한 방편으로 자격증 붐이 일기 시작했다. 컴퓨터속기 기기나 프로그램 판매업자들도 이 때를 놓칠새라 'IMF시대의 확실한 대책!' 등의 화려한 광고문안과 함께 극성을 부리기 시작했다. 협회에서는 이로 인한 피해발생을 우려하여 98년 1월 (동아일보)에 자격심사위원회 간사명의로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하는 요지의 독자투고를 보냈다. 그 투고는 1월 26일자 신문에 게재되었다. 그날 아침부터 국회속기사양성소에는 문의전화가 쉴새없이 울려대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것은 독자투고 때문이 아니었다. 바로 같은 날, 유력일간지 중의 하나인 C일보에 "불황 모르는 유망직종"이라는 지극히 센세이션널한 제목과 함께 컴퓨터속기사에 대한 소개기사가 나갔던 것이다. 내용은 98년부터 방송자막속기가 의무화됐고, 영문 컴퓨터속기사의 경우 황무지나 다름없다는 등 거의가 허위·과대 선전문구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었다. 그러나 실정을 모르는 실직자들이나 취업난속에 방황하던 젊은 이들에게는 희소식 중의 희소식이었을 것이다. 어찌나 문의전화가 폭주하는지 거짓말 안 보태고 물 한 모금 마실 틈이 없었다.

시달리다 못해 담당기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의 불황은 속기시장이라고 하여 예외가 아닌데 무슨 근거로 그런 기사를 썼느냐고. 그러나 기자의 대답은 너무나 의외였다.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중앙고용정보관리소에서 펴낸 직업소개 책자를 참고했으며, 그런 정부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안 믿을 수 있느냐는 것. 그래서 다시 그 기자가 일러준 책자를 구해 보았다.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허무맹랑한 내용들을 잔뜩 나열해 놓고

있었다. 심지어는 앞으로 지방자치제 실시를 앞두고 수많은 속기사가 필요하게 될 것이라는 엉뚱한 내용까지 있었다. 지방자치를 시작한 지가 벌써 언제인데...

그런 책자를 발간한 담당기관에 다시 물어 보지 않을 수 없었다. 소개책자에 실린 자료들은 어떻게 수집하였는가 문의한즉, 적은 인력으로 그 많은 직업에 대해서 일일이 다 자신들이 현장 확인을 할 수는 없는 일이며, 관련단체나 학원의 홍보물이나 아니면 그들에게 요청하여 보내온 자료들을 보고 작성하였노라는 대답이었다.

허위·과장 광고 피해 줄이기 위해 협회에서 독자 투고

그 얘기를 들으니 조금은 이해가 되었다. 광고에는 항상 과장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한 과장을 일반인들은 거의 대부분이 그대로 믿는다. 우리나라에 신뢰할 만한 속기관 관련 단체가 대한속기협회 말고 어디 있는가? 그런데 우리 대한속기협회는 광고를 하지 않는다. 순수 속기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일반인들은 광고를 일삼는 단체들만을 기억하고 그러한 단체에 연락을 하기 마련이다. 정부기관이라고 하여 예외는 아닐 것이다. 그러니 장사꾼들의 과장광고 내용이 정부기관 간행물에 그대로 게재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며칠을 두고 계속되는 문의전화에 지쳐 안되겠다 싶어 C일보에 편지를 보냈다. 다음은 98년 2월 4일자 C일보 '독자의 편지'란에 실린 글의 전문이다.

컴퓨터 속기사에 대한 기사가 보도된 후 문의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대부분 속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없이 막연한 생각으로 속기를 배우려는 것 같은 느낌이다.

속기는 고도의 청취능력을 필요로 하며, 직업속기사가 되려면 빠른 손놀림과 예민한 언어감각이 필요하다. 국회속기사 양성소의 경우 최소 5대 1의 경쟁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지만 이런 소질을 갖춘 학생은 20~30명

가운데 한두 명 정도였다.

이밖에도 3~4개월 배우면 2·3급 자격증을 딸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렵없는 얘기다. 속기에 필요한 기본 약자나 약법을 익히는 데만도 3~4개월은 걸리고 아무리 소질이 있다고 해도 1년 이상 끈기 있게 자관연습에 전념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가정주부나 직장인들은 가급적 배우지 않는 것이 좋다.

자격증만 취득하면 금방 취직이 되고 고소득을 올릴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잘못이다. 지방의회등 속기사가 필요한 기관에는 인원이 대부분 차 있다. 국회만 하더라도 90년대 들어 속기사 채용시험을 95년과 97년 두 차례 실시했을 뿐이다.

또한 프리랜서로 활동하던 사람들도 불황 때문에 일감이 없어 사무실 문을 닫고 전업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 직업속기사가 되려는 이들은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대해 신중히 생각해 보고 결정해야 시간과 금전적 낭패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이 나가고 나서 피해자들의 상담전화는 몇 차례 받았으나 그뿐이었다. 허위·과장광고는 계속되었고,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각 일간지들이 경쟁적으로 컴퓨터속기사를 거의 환상적인 미사여구를 동원하여 소개하는 것이었다.

과장된 신문보도는 또다른 허위·과장광고를 낳고

"6개월 배우면 평생직업 보장"(3월 7일, J일보),
"프리랜서 시간당 35만원 수입"(3월 23일, H일보),
"방송제작 등에서 프리랜서로 활동"(3월 27일, D일보)

그런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문화일보만은, 컴퓨터속기사에 대한 과장된 광

고나 언론보도로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비교적 정확한 내용으로 보도를 내 주었다(3월 20일).

이러한 허위·과장광고와 오보가 경쟁이나 하둑 계속되던 중에 3월 말경 소비자보호원에서는 각종 자격증 과장광고로 인한 피해사례를 발표하였다. 다음은 98년 3월 26일 한국일보 보도내용 중 컴퓨터속기사 부분만 간추린 것이다.

허위·과장광고가 실직자들을 울린다.

새로운 진로를 모색키 위해 전문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실직자들을 겨냥, 각종 관련교재와 광고가 봇물 터지듯 시중에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들중 상당수는 실직자들의 다급한 심리를 이용, 수입만 챙기려는 판매업자들의 상술에 불과한 것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중략) 컴퓨터속기사의 경우 국가검정시험은 상공회의소 주관인데도 한국○○○○교육협회등의 단체가 동일한 시험을 실시한다고 광고하는데, 이들 단체들은 대개 교재 판매업자와 연계돼 있다고 소비원은 밝혔다 또 입법부에서 95년 8명, 97년 5명등 소수인원을 선발함에도 「입법, 사법부에서 대폭 충원계획, 대규모 인원선발」 등과 같이 과장하고, 「5~6개월이면 충분하고 초보자도 쉽게 적응할 수 있다」고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보호원의 이러한 발표에도 불구하고 영리만을 추구하는 장사꾼들의 허위·과장광고는 갈수록 그 강도를 더해 갔다.

"단숨에 고소득을!" "앞으로 만명 이상 필요. 프리랜서로 시간당 35만원"
"아니, 아직도 모르셨습니까? 누구나 될 수 있는 컴퓨터속기사" "평균속도 1,200타/순간속도 2,800타" "2~3개월이면 1분에 320자 칠 수 있어"

자격심사위원회에서는 다시 한국일보 '독자의 소리'에 투고를 하였지만 (4월 8일) 그 반응은 역시 너무나 미미한 것이었다.

이렇게 허위·과장광고가 매일같이 지면을 어지럽히고 있는 가운데 S신문

(7월 18일)은 드디어 "방송사·법원 속기사 올 수백명 신규채용"이라는 깜짝 놀랄만한 기사를 내보냈다.

어이가 없기도 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각 방송국에 먼저 확인을 해보았다. 그러나 대답은, 시청자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PC통신을 이용하여 일부 문자서비스는 하고 있지만, 자막속기가 의무화됐다가나 속기사를 채용한다는 것은 금시초문이라는 것이었다. 다시 법원행정처에도 확인해 보았지만 마찬가지였다. 지금 있는 사람들도 줄여야 할 판인데 몇 백명이나 채용할 리가 있겠느냐는 것. 신문기사가 얼마나 무책임할 수 있는지를 새삼 생각하게 하는 순간이었다. 속기상인들의 헛소리(허위주장)를 사실확인도 않고 그대로 기사화한 것이었다. 또 이러한 엉터리 기사는 허위·과장 광고에 더 없이 좋은 재료가 되어, 다시 "o o일보 보도"식의 광고문으로 나타나곤 하였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컴퓨터속기 기기나 프로그램의 기술수준이 어느 정도 인지는 이미 두 차례의 자격시험에서 확연히 드러났다. 1회 시험에는 1~3급에 총 5천 700여명이 응시하여 1급 17명, 2급 24명, 3급 31명 합격이었고, 2회에는 무려 1만여명이 응시하여 1급 15명, 2급 71명, 3급 129명이었다. 그것도 1급은 특정 기종에만 집중되어 있다시피 한 실정이다. 한마디로 대부분의 컴퓨터속기라고 하는 것이 아직도 고속타자기 수준임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이 화려한(?) 속기사에의 꿈속에서 돈 버리고 시간 버리면서 이상한 기계 하나 구입한 후 그것 가지고 몇 달씩 몇 년씩 헛고생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금전적 시간적 손실은 누가 보상할 것인가 진정한 속기인이라면 그런 장사는 차마 못할 것이다. 대한속기협회의 홍보활동 강화가 절실히 요청되는 것이다. 그래도 허위·과장광고를 당해 낼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하여 팔짱 낀 채 방관만 할 수도 없는 일이다.

이대로 방관만 할수는 없어

요즘도 각종 지역정보 신문에는 컴퓨터속기 광고가 하루도 쉬지 않고 나오고 있다. 그 광고문안 중에 한 가지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이 있다.

"특보 : 1회 합격자 취업 추천중!"

도대체 1회 합격자 발표된 게 언제인데 해를 넘기고도 그 몇 명 안되는 사람들이 취업도 못하고 있다는 것인가. 인력이 너무 부족해 취업이 확실히 보장된다는 같은 지면의 광고문은 또 무엇인가. 그들의 광고대로 1만 명 이상의 속기사가 필요한 날이 언제일지는 몰라도, 속기사 자격취득하기도 어렵지만 취업은 그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바로 그러한 현실을 자인하고 있는 광고라 할 것이다.

지역정보 신문의 또 다른 면을 보자. 요즘에는 다음과 같은 줄광고가 심심찮게 눈에 띈다.

「컴퓨터속기프로그램(자판기 교재 포함) 3개월 사용 950 매10 016-400-0007」

「00스테노00 속기자판 30개월 사용 매35 370-0000」

단숨에 고소득의 꿈에 부풀었던 실직자들의 긴 한숨소리(!)가 담긴 매물 광고들이다. 이러한 허위 과장 광고와 매물광고는 쉽게 끝날 것 같지도 않다. 불황 속의 호황업종! 거꾸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했던가. 어찌하였거나 IMF사태라는 호황기(?)에 재투자자를 아끼지 말고 끊임없는 연구를 통하여 우리 나라 속기술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속기와 나

이 강 현
(대한속기협회 지도위원)



회고록을 써 달라는 협회 홍보부의 청탁을 받고, 나이 70도 안 되었는데 벌써 회고록을 쓰나 하는 생각을 하였다.

나는 1932년 경기도 수원군 수원을 매향동(지금은 수원시 팔달구 매향동)에서 유복한 집안의 4남 2녀 중 차남으로 태어나 수원 신평국민학교와 수원농림중고등학교를 다녔다.

내가 속기와 인연을 맺은 지 어언 45년, 속기에 청춘의 정열을 다 쏟았고 속기가 나의 천직으로 알고 온 정성을 바쳐 경제성도 없는 속기사 양성에 갖은 고생을 감수하며 35년간 진력했다. 그간의 내 노력이 우리나라 속기계 발전에 일조가 되었는지……

6·25동란과 8등병

내가 속기와 인연을 맺게 된 계기는 6·25동란 참전의 부산물이다. 1953년 6월 휴전을 눈앞에 두고, 전투정보보다 전략정보가 중요하다는 군 당국의 판단에 의해서 비롯된 것이다.

당시에는 전시에 현역군인을 적 후방에 침투시켜 첩보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한 제네바협정의 규정에 저촉되기 때문에 현 정보사 전신인 육군첩보부대 소속으로 각 사단에 배속된 지대공작대원, 즉 군번도 계급도 없는 무장 공작대원과 미 극동군사령부 휘하의 KLO 에이전트, 육상침투대, 해상침투대, 공중침투대 대원들은 많은 희생을 무릅쓰고 첩보수집활동에 활용하였다.

휴전이 임박해지자 활용가치가 없게 된 상기 부대 소속원 중 현역입대 적령자들에게 병역을 필할 수 있게 해준 조치에 의해 나도 1953년 6월 육

군첩보부대 서울 남산교육대에서 기본교육을 수료한 다음 군번, 계급을 받고 현역으로 현지입대했다. 입대 후 재입교해서 속기교육을 받았는데 이 교육이 나의 평생직업이 될 줄이야...

속기와 청취반

1953년 6월 현지 입대자 중 30명이 선발되어 속기교육을 받게 되었다. 9월부터 피난지 대구에 창안자 이동근선생님이 개설한 동방속기학원에서 창안자 선생님의 지도를 받은 김병재 문관, 박지학 문관을 교관으로 하여 우리는 속기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군의 명에 따라 6개월간의 교육이 시작되었다. 개강 첫날 교관의 속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점차 이해는 되었지만 하루 13시간 교육의 강행군은 우리를 지치게 했다. 그러던 중 창안자 이동근 선생님의 특강으로 속기의 희소성과 제대 후 이색직종의 특기로 최상이라는 말씀에 감명을 받고 더욱 열심히 매진하였으며, 교육대 자체에서도 3개월 후부터는 상부지시로 매주 토요일 내무사열 대신 속도진도표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여 성적에 따라 1일 외박, 외출, 사역, 3끼 음식 등 상벌을 주어 반내 경쟁도 치열하였다.

이 과정을 수료하고 1954년 3월 대구본부에서 시내에 있던 7파견대 청취반으로 배치되었다. 라디오 청취와 외신 수신을 주업무로 하고 있는 이 청취반에서는 북한방송·일본의 NHK·소련·중국·대만·VOA 방송의 우리말 청취와 러시아어·중국어 방송의 요약청취, 그리고 외신으로는 UP·AP·AFP 소련의 타스 중국의 신화사·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을 수신하였다. 방송은 일반 문관 및 시사통신사의 민간인 속기사들(영남식)이 시간제로 채용되어 청취하였으며, 외신은 동양통신사에서 징집한 통신사(通信士)들이 담당하고 있었는데 업무량이 너무 많아 다 감당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처음으로 미군 야전용 라디오 R-100으로 북한방송을 청취해 보니 남한 출신인 나로서는 속기는 커녕 알아들을 수도 없었다. 다행히 속기사 중 대구 동방속기학원 수료생으로 평양 태생의 인텔리 화가 안창대 문관이 있어 북한방송 용어를 익히고 그 약자 약부를 보충하여 실습을 겸해 3개월 보강을 실시한 후 11명이 청취반의 일원으로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으며, 나중에는 북한의 지하방송 '자유의 소리'까지 청취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통신헌교에서 우등생으로 선발된 장재연(후에 태백시장 역임)외 9명의 통신병이 배치되어 1급 통신사 문관의 지도로 외신도 완전 커버하게 되었다.

청취 및 수신된 기사는 편집계로 보내져 러시아어·중국어 등 통역장교 2명과 피난지 대구에서 특채된 영어·일어·국어 교수들이 번역 교정한 것을 문관들이 정리하여 즉시 본부에 보고하는 체제로 일반 사회 통신사를 능가하는 기구였다.

부대내에서 속기병과 외신 수신병은 내무사열과 불침번 사역이 없고 오로지 청취와 수신만 하는 특별대우를 받았을 뿐 아니라 특식과 야식 등 군인으로서 과분한 대우를 받아 더욱 근무에 열심이었다. 격일 교대근무로 휴무일에는 사복반·군복반의 특수부대원 티를 내면서 대구 시내 전 극장을 무료로 관람하고 인심 좋은 과수원에서 사과도 얻어먹고, 특히 대구의 보리 막걸리는 그 맛이 정말 일미였다.

1954년의 다른 전방 군인들의 실정은 장교는 목재나 솟장사를 하는 후생 사업으로 박봉을 보충하고 부대 보급품을 갈취하여 이로 인해 사병들은 굶고 배고프고 하사관들은 하급 병사들을 '빷다'로 기합을 주고 하던 시절인데 우리들은 특별대우에 자유롭고 학업도 계속할 수 있고 여가시간에는 배구 축구·탁구 등 운동도 각자의 취미에 따라 즐기고 있었다. 배구코트에 선을 긋는데, 6·25동란으로 어렵던 시절 그 귀한 미국 밀가루를 뿌릴 정도로 흡족한 보급이 있었다. 부대 본부의 특별 배려와 파견대장의 양심적이고 인간적인 부대 운영으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근무했다.

파견대 주변에는 조선방직·삼보방직·청수방직 등 공장이 있어 매일 1,500여명의 여자 종업원들이 매력 있는 대구 사투리로 재잘대며 부대 앞을 왕래하여 부대원들의 가슴을 흔들어 놓아 연애하는 대원이 많았는데 이들 중에는 연애결혼하여 지금도 잘 사는 동기생도 있고, 나도 선물을 받은 적이 있다. 그 후 부대가 서울로 이동하던 날 대구역은 아가씨들의 눈물 바다였고 '내 딸 책임지라'는 어머니의 아우성 소리로 한참 술렁이었다.

육군본부를 따라 첩보부대 본부도 상경하여 우리 파견대도 서울로 이동, 정릉 아리랑고개 옆 야산에 주둔하였다. 이 때 일본 공동통신의 기사가 일본어 문자로 수신되는 신 기자재 '헤루스라바'를 일본에서 도입, 장비를 보강하였다.

나는 이곳에서 편안하게 근무하다가 1956년 6월 제대하여 사회에 진출하였다.

통위부(統衛部)

광복 후 남한에 진주한 미국군은 군정을 선포, 1945년 11월에 군정청에 국방사령부를 설치하고 국방력의 조직편성 훈련 등의 제반 업무를 추진시켰다. 1946년에 통위부로 개칭하고 유동열(柳東悅)이 초대부장으로 취임하여 육해공군의 기초를 세우는 등 건군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1951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따라 해체되었다.

이동근 선생님의 회고에 의하면, 동방속기가 첩보부대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1948년 서울 을지로4가 동방속기학원에서 통위부 속기 위탁생으로 교육을 받은 바 있는 박노순(3공시 하와이 총영사 역임)이 6·25동란시 장교로 임관, 첩보부대 본부에 근무하면서 1953년 8월 은사인 이동근 원장님께 속기 교관 2명을 추천 의뢰한 것이 동기였다고 한다.

속기학원과의 인연

나는 군 제대 후 형님이 경영하는 동대문시장내의 큰 점포에서 일을 돕고 있었다. 그 해 10월 경, 나에게 속기를 가르쳐 주신 김병재 선생님이 구시경뒤 북창동 교회 옆에 있는 중앙경리학원에서 속기과를 책임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제대 인사차 찾아 뵈었더니 반색을 하시면서, 평양상업학교 출신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동대문상업고등학교 부기 선생으로 가게 되었으니 이군이 속기과를 맡아서 키워보라"는 당부의 말씀이셨다. 재적생은 8명인데 출석자는 3명이라는 것과 학원장 김준희씨도 교통비(전차표)는 학원에서 지급하며 3명의 수강료는 용돈으로 주겠다는 조건이었다.

조건은 보잘 것 없지만 김병재 선생님의 간곡하신 부탁과 나도 형님일을 돕는 것보다 독자적인 일을 하고 싶은 마음으로 승낙을 하였는데 이것이 인연이 되어 35년간 속기사 양성에 평생을 바치게 된 계기가 되었다.

학원이 뒷골목에 위치해 원생 모집에 지장이 있으므로 학원장에게 건의하여 종로2가 파고다공원(현 탑골공원) 건너편 대로변 큰 건물 3층을 임대,

다음해 2월에 이전하여 속기과는 18명을 수용할 수 있는 깨끗한 교실을 할애받았다.

첫 수강생 모집에 속기과는 임래현(林來炫) 등 12명이 입학하고 경리과는 40여명이 입학하니 원장님은 만족하여 내 급여를 쌀 한 가마 값으로 정하였다. 이렇게 몇 달 모집하니 속기과는 조, 주, 야간반으로 증원되고 야간반은 만원으로 정상적인 수업이 불가능할 상태에서 고민하던 중 인심좋은 김준희 원장님이 서울경리학원 신은선 원장과 상의하여 종로4가 당시의 천일백화점 앞 대로변(현 시계골목 입구)에 있는 파지창고 2층 50평 전부를 개조하여 속기과에 주겠다고 약속을 받고 매우 기뻐다.

어느 날은 남상천(南相天)이라는 안면도 없는 사람이 전화를 하여 자기는 남상천식 속기 창안자라고 하면서 덕수상업고등학교에 출강하고 있으니 모일 모시에 학교 교무실에서 상면하자고 하였다. 면담해 보니 남상천식 속기교본을 주면서 모든 속기법식의 장점을 추려 창안한 혁신적인 법식이라고 자기 PR을 하고 국회 속기사 중 누구누구는 한국속기를 망치는 놈들이고 어느 놈은 그들에 빌붙어 먹는 놈이라고 비난하면서 이형이 이 책으로 독학하여 자기와 손잡고 보급해 보자고 제의하였다. 자기는 농림부 공무원이라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없는 처지이고 보급성과에 따라 광화문에 속기전문학원을 현대식 시설로 설립해 전임강사로 우대하겠다고 남도 사투리가 섞인 달변으로 유혹하였다. 말이 많고 자기 PR이 심해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또 학원 수강생이 차츰 증가하는 추세라 거절하였다. 남상천 씨에 대해서는 추기하기로 하자.

솔직히 그 당시 나는 군 속기사 출신이고 제대한 지도 반년 정도라 우리나라 속기계의 현실을 파악하지 못한 채 사회 속기계에 첫 출발하는 초보자로 의욕에 차 있던 시기였다.

셋방살이 전전

1957년 6월경 중앙경리학원에서 재학생 40여명을 이끌고 서울경리학원 분원(종로4가)으로 이전하여 책상과 칠판은 새 것으로 장만하고 합판으로 칸막이도 하였으나 바닥은 낡은 마루판에 천장은 내려앉고 매우 열악한 환경이었다. 교실 개조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불만족이지만 계속 수업을 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였다.

이전 후 첫 수강생 모집에 송박문(宋博文), 조재근(趙載根), 박평수(朴坪守) 외 20여명의 입학으로 활기가 넘쳤고 대학생이던 김선필(金善弼)도 야간반에서 열심히 수강하였으며 각 대학 학생도 10여명 수강한 것으로 기억된다. 수강생 숫자가 조, 주, 야간반 합해서 7,80명으로 시간차를 두고 증가하니 나 혼자 감당하기가 어려워 하는 수 없이 군 속기 동기생들의 신세를 지기도 하였으나 피로가 쌓여 갔다.

학원 분위기가 선배 현직 속기사가 없으니 불신감이 팽배하면서 수강생들이 동요하기 시작하였다. 내 실력을 보고 안심하고 희망을 갖도록 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소형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교실에 걸어 놓고 뉴스 시간에 실기를 직접 보여가며 가르치기도 하였다.

본과 6개월 수료식 때는 꼭 창안자 선생님이 명격려사를 해주셨다. 학원 여건상 연구반(속도반)을 편성하지 못하고 뿔뿔이 헤어지는 것이 아쉬워 동방법식 속기인이라는 표적 하나씩을 몸에 간직하여 소속감과 법식에 대한 애착을 주고 싶은 심정에서 가장 경비가 적게 드는 배지를 제작하기로 결심하고 내 주머니를 털어 연습용 갱지 전지 한 연을 상으로 곁고 배지 모형 현상모집을 하였다. 출품작 중 제주태생으로 성균관대학교 3학년 재학중이던 송희식 군 작품을 선정 제작하여 수료생 전원이 나누어 간직하였다. 나는 아직도 제일 먼저 제작한 것을 착용하고 있고 죽는 날까지 간직할 것이다. 이것으로 인해서 동방속기에 대한 애착심과 자긍심 그리고 동문의 단결심을 심어 나갔다.



〈배지 도안 설명〉

1. 원 : 속기문자 분출선 원형
2. 원과 [도] 동방 표시
3. 삼단 :상선 중선 하선으로 약자 쓰는 위치 표시
4. [^] : 연필과 속기를 표시함

선배들과의 만남

한국속기50년사를 감수하다 보니 제2회 속기경기대회 일자가 잘못 기록된 것 같다.

12월경으로 기억되는데, 대한속기협회 전신 구 대한속기학술협회 사업이사 김백곤(金百坤) 민의원 속기사가 경기대회 안내서와 원서를 한 권씩 들고 우리 학원에 와서 많은 참가를 부탁한 일이 있었다. 며칠 후 김백곤 씨의 주선으로 처음 민의원을 방문하여 제1계장 정원도(鄭源道) 선배님과 인사를 나누었는데 선배님은 우리 손잡고 우리 나라 속기계 발전을 위하여 힘을 합치자고 당부하시면서 선물로 '속기문화' 책자 한 권과 속기록 2권을 학생들 연습용으로 쓰라고 주었다. 참으로 인자하고 자상한 첫 인상을 받았다.



경기대회에 정급에는 양성된 인원이 없어 응시를 못 시키고 준급에 경험삼아 연대생 외 몇 명을 응시시켰다. 시험장에서 김진기(金鎭基) 선배님과 첫 인사를 나누었는데 매우 관료적이고 사무적인 인상이었으나 협회 창립 후 많은 협조를 받아 지금도 고맙

게 여기고 있다.

입상자 시상식 때 날카로운 20대 초반의 민의원 속기사 이동일(李東一)씨를 처음 보았고 강렬한 인상을 받았다. 지금은 할아버지가 되었겠지만... 시상식 후 한 수강생의 소개로 알게 된 약혼자가 보고 싶어 마포구 상암동 처가댁으로 향하였다. 1958년 3월 창안자 이동근 선생님을 주례로 모시고 결혼하여 1남 3녀를 두어 3녀는 모두 출가하고 지금은 아내와 막내인 아들과 세 식구가 신도시 분당에서 조용히 요양중이다.

나라를 활짝 펴고, 그 명(明)과 암(暗)

서울경리학원이 종로3가 한양빌딩에 교실을 확장하여 종로4가에 있던 속기과도 현대식 건물로 이전하였다. 이 때 고등학교 교복차림의 김기영(金

基英)이 입학하였다. 성실한 수업태도와 동급생보다 항상 앞서가는 연습 별레로, 김기영은 1963년 국회 속기사로 진출하여 사무관 서기관으로 승진한 다음 감사관을 거쳐 내무위원회 전문위원이 되었다.

서울의 중심지인 종로2가 YMCA옆 장안빌딩 3층에 18평을 임차계약을 하고 원장에 창안자 이동근 선생님을 추대, 국어속기과와 영어속기과로 편성하여 1958년 11월 서울시 교육위원회의 인가를 받고 서울에 동방속기학원을 재설립 개원하였다. 이 때부터 본격적인 속기사 양성에 돌입하여 조·야간반은 시간 격차를 두고 본과생을, 낮 시간대에는 셋방살이 시절의 수료생을 규합하여 무료로 교습하였다. 우수속기사 양성을 지상목표로 삼고 목이 터져라 국회 속기특과 각 신문 사설을 낭독, 낭독, 또 낭독하였다.

학원 위치가 변화가이고 교통이 좋아 국어·영어 양과 수강생이 늘어남에 따라 교실 하나를 더 확장하였다. 이 무렵 수료 후 유능한 속기사가 된 성천영(成千永)·채강희(蔡康熙)·이찬용(李燦鎔)·서길천(徐吉泉)·노장우(盧莊愚) 등이 몇 달 간격으로 입학하여 더욱 활기를 띠었다. 그러나 이 많은 시간을 단독으로 하루 종일 무리를 하니 무쇠가 아닌 이상 배겨낼 수가 없었다. 집에 가면 파김치가 되어 쓰러져 버리고...

당시의 녹음기는 대형이고 고가이며, 임차보증금 임차료가 타 건물에 비해 배 가까이 비싼 데다가 학원설립 시 투자액 중 일부는 처가의 도움으로 충당했기 때문에 고가의 녹음기를 이용한 수업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본과 수업보다 무료로 하고 있는 속도반이 큰 문제였다.

고속도 속기 능력자를 양성하지 못하면 속기학원 설립 목적에 반하는 일이며 내 지상목표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젊은 혈기로 밀어붙여 하루 4시간씩 낭독 수업을 계속하니 얼마 후에 결국 과도한 낭독으로 기관지 모세혈관이 파열되어 기침·가래 각혈까지 하였지만 수강생이 알까봐 조심하였다. 소문이 나면 도로아미타불이 될까봐 무척 신경을 썼다.

이보다 더 나를 괴롭힌 것은 속기인 몇 사람 입에서 구전된 악선전이다. "동방속기는 속도는 빠르나 번문율이 낮다" "별 것 아니다"라는 소문이 그것이다.

나의 국민학교 짝꿍 친구로 서울대학병원 흉부내과 의사가 있어 그의 극진한 진료를 받으면서 오기가 발동하여 범식 연구에 몰두 밤을 새우기가 일쑤였다.

당시 학원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외적 요인 중 결정적인 것은 속기 학원을 빙자한 협잡꾼 신현부(申鉉富) 한국속기학원 원장이 이 즈음 사회에 팽배한 징병기피와 입대후 편한 직책 배치를 원하던 시대적 배경에 편승하여 지금도 사회문제로 시끄럽지만 그 당시는 지금보다 더 극심했는데 '국방부 위촉 속기병 양성소, 육해공군 속기병으로 입대시킴'이라는 미명하의 과장광고 선전으로 우리 학원 신입생이 격감하였다. 매월 모집에 연속으로 우리말 속기가 영어속기 입학생의 반 정도였다.

또 하나의 요인은 영어속기는 6개월만 배우면 영어회화 실력을 갖춘 일류여대 출신은 높은 보수의 외국인 상사나 대사관 등에 전원 취업되는데 반해 국어속기는 전망이 불투명한 데다 봉급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내적인 요인으로는 본과생은 45명인데 무료 속도반은 30여명이니 학원 운영은 적자로 허덕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 고생도 감수하면서 속기사 양성에만 전력을 바쳤다.

1960년 4·19혁명으로 정권이 교체되고 의회도 양원제를 채택하여 속기사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학원도 어느정도 숨통이 트이게 되었다. 속기사 증원이 예상되므로 속도반은 총력을 기울여 맹연습을 하고 있던 중 민의원내 대한속기고등기술학교 출신을 우선적으로 선발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모든 속기학원에 비상이 걸렸고, 학원장 전원의 연명으로 민의원과 참의원 사무처에 진정서를 제출함으로써 급기야는 참의원 의장으로 취임한 백락준 박사를 각 학원장들이 면담하고 건의서를 전달하여 공평한 공개경쟁 시험으로 속기사를 채용하겠다는 확약을 받았다. 당시의 건의문 사본이 《속기 50년사》 자료 중에 있다.

의회속기사 진출 도약

참의원 속기사 공채 시험을 앞두고 속도반 연습에 박차를 가해 성적이 날로 향상되어 합격선 응시생이 4, 5명이나 되었으나 합격자 발표는 송박문 단 한 명뿐이라 실망을 하였다. 그러나 그간의 노력으로 한 명 합격이지만 타법식과의 경쟁으로 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자신감을 얻어 더욱 분발할 수 있는 동기가 되었다.

6·25동란 전에 을지로4가에 있던 동방속기학원에서 창안자 선생님의 지도를 받은 바 있는 채혜경(蔡惠卿) 씨가 국회에 진출한 이후 본인의 지도

를 받은 수강생으로는 처음이라 나와 속도반 수강생들에게 자신감을 주었다.

몇몇 실력있는 수험생들은 지나친 긴장으로 실수한 것으로 안다. 그러나 기회는 또 있으니까 실망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맹연습을 강행하였다. 12월 서울시의회 속기사 공채시험에서는 김기영이 수석으로 합격하여 속기사로 진출하였다. 그 당시 나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에 형언할 수 없이 기뻐다.

5 · 16군사혁명

1961년 5월 16일 군사혁명으로 민의원·참의원·시의회까지 해산되고 모든 정치활동이 금지되어 전 의회 속기사들은 직장을 잃고 길거리로 내몰려 뿔뿔이 흩어지던 시기 학원운영도 위축되고 어수선했 때였다.

군사혁명이 성공한 며칠 후 기관단총으로 무장하고 혁명군 완장을 찬 하사관과 장교 2명이 우리 학원을 찾아왔다. 놀란 토끼 눈이 된 사무원이 수업중인 나를 불러 사무실로 나가 보니 군 1기후배 하사관이 중앙정보부 창설멤버로 형님을 모셔 오라는 부장님의 명령이니 같이 가자는 것이었다. 많은 투자와 수강생을 두고 갈 수는 없고 다른 방법을 연구하여 적극 협조하겠으니 이틀 후 다시 회합하기로 약속하고, 어떻게 내가 여기 있는 것을 알았느냐고 묻자 HID에서 차출된 군 속기 동기생이 추천하였으며 보수와 보상은 최상으로 해준다는 조건이었다.

이틀 뒤 신세계백화점 뒤 모처에서 만나 병역을 필한 사람 8명을 추천하겠으니 그 중에서 필요한 인원을 신원조회 후 채용하라고 제안하자 이에 합의하여 임래현·박명수·최홍규·배만영 등 4명이 특채되었다. 이 중 임래현은 1963년 12월 민정이양 후 국회 속기사 공개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국회에 진출 근무하다가 1976년 9월 경력있는 국회 속기사 10명이 법원으로 진출할 때 같이 진출하여 근무하였다. 퇴직후에는 법무사로 사회에 이바지하고 있는 실력자이다.

중앙정보부 4명 진출로 사기가 올라 학원 운영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 학원으로 시간제 속기 의뢰가 월 3회 정도 와서 부업도 할 수 있었는데 속도반 수강생 중 1명씩을 데리고 가 견습을 시키며 약간의 용돈도 주고 속도반 전원 회식도 하였다. 회식이라야 짜장면을 안주 삼아 고풍주

몇 병 마시는 것이 고작이지만 이것도 큰 위안이 되었다.

낙오생 방지에 골몰하면서 이끌고 가던 중 소질이 있어 속기 성적이 우수하여 유망주로 꼽고 있던 성천영이 장기 결석을 하는 것이었다. 배우·성우·가수 등 꿈 많은 청년시절 그는 방황하고 있었다. 같은 영등포에 살고 있던 송박문과 채강희 등을 보내 학원에 나오라고 설득해 나왔으나 한두 달 나오다 그만 두었다. 언제 시험이 있다는 보장도 없고 장기간 무작정 속도연습만 하고 있었으니 그 때는 모두들 어려웠다. 그러나 민정이양을 앞둔 시기이므로 머지 않아 정치가 풀리고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 국회에는 속기사가 많이 필요하여 대량 모집이 있으리라는 신념을 나는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속기 실력자를 모으는데 힘을 쏟았다. 그리하여 나는 서신으로 지금 나오지 않으면 너를 포기하겠다고 최후통첩을 했더니 그제서야 학원에 나와 열심히 연습을 했고, 그 결과 국회 속기사로 진출해서 사무관을 거쳐 서기관으로 국회 속기1과장을 맡고 현재는 사단법인 대한속기협회 이사장으로서 전국속기인 학술세미나·속기경기대회 등 협회사업을 활발히 하여 협회의 위상을 높이는 주역이 되었다.

잠자는 시간 외에는 전부 속기를 위한 시간이라고 할 정도로 생활이 온통 속기뿐이었던 강중원도 기억나는 인물이다. 아마 그는 꿈 속에서도 속기 공부를 했을 지 모른다. 연습도 열심히 할 뿐 아니라 머리가 비상해 '컴퓨터 머리'로 불렸던 그는 초보반부터 월반을 거듭해 8개월만에 분당 300자 속도를 돌파하고 정확도도 99.8% 정도인데다 당시에는 힘들었던 분당 320자 속도도 1년 이내에 달성하고 정확도는 99.7%를 기록하여 주위의 시선을 모았다. 내가 지도한 학생 중에서 최단기간 완성 기록이다.

드디어 공개경쟁 시험

1963년 12월 민정이양 후 내각 사무처에서 국회 속기사 공개경쟁 채용 시험 공고를 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기회라 가슴이 벅찼다. 창안자 선생님과 나는 교대로 속기록과 각 신문 사설을 낭독하며 모의시험도 때때로 보았다.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이 혼연일체가 되어 정말 열심히 하였다.

시험을 앞둔 응시반 수험생들은 불꽃 튀는 경쟁을 하면서 실력을 연마하였다. 군 제대 후 돌아온 김기영과 강중원의 선후배간 선의의 경쟁, 이에

뒤질새라 따라붙는 김선필의 도전, 격일제 근무로 휴무 때 수업에 참여해 선배의 체면을 앞세운 임래현의 정확도 등이 지금 기억에 생생하다.

이 외에도 성천영·채강희 서길천·노장우·강경대(姜慶大)·한동춘(韓東春)·조충길(趙忠吉) 등 기라성같은 동방의 동량들이 연습하고 있었다. 당시에 송박문과 이찬용은 군 복무중으로 없었다.

한양대학교를 졸업한 김선필은 4급 응시냐, 5급 응시냐를 놓고 고민하였는데 경력이 있고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4급 응시가 가능하나 낙방을 각오하고 모험을 거느니 부모님과 상의하라고 하였으나 결국 4급에 응시하여 경력이 전연 없는 무리한 응시로 낙방의 고배를 마셨다. 이 때 경력이 풍부한 김영선(金永善)은 무난히 합격을 하였다.

한편 지레 겁을 먹은 노장우는 오후 수업시간에 사무실에서 쉬고 있길래 이상히 여겼는데 서길천이 귀뜸하기를 "장우가 응시를 포기하고 연습용지와 연필 전부를 동급생들에게 주었다"는 것이다. 내가 장우를 불러 무슨 짓이냐고 물으니 내성적인 장우의 얘기는 "청력이 약해 속기사가 될 자신이 없어 포기했으니 용서해 달라"는 것이다. 근 2년간 고생과 시간을 소비한 것이 아깝지 않느냐고 꾸짖고 합격하든 못하든 일단 응시하라고 설득하였다. 그렇게 해서 그는 응시했고, 보기 좋게 합격하여 국회 속기사로서 정년 퇴직할 때까지 대과없이 근무하였다.

이 때 합격자 임래현·김기영·성천영·채강희·노장우·서길천·강종원·김선모 등 8명의 국회 속기사 진출로 큰 보람을 느꼈고, 학원이 축제분위기였다. 다른 수강생들도 고무되어 더욱 열심히 학업에 매진하여 한동춘은 다음해에 임시직으로 국회에 들어갔고 조충길은 순복음교회 설교집 발간을 위한 종교 속기사로 첫 진출했으며, 강경대는 몇몇 등급생들과 속기사무소를 개설 활동하다가 사업가로 변신 성공하여 학원에 후원도 하였다.

1965년 2월 군을 제대해 학원에서 연습하던 송박문과 응시급수를 잘못 선택하여 고배를 마신 김선필이 국회속기사 공채에 응시 합격하여 늦은 진출을 하였다.

협잡꾼의 말로

당시 우리 학원은 3개 일간지에 단 며칠간 손가락만한 모집광고를 하고 있었는데 한국속기학원은 국방부 위촉 속기병 양성기관의 간판을 등에 업

고 한 기 신입생 모집을 위해 5대 일간지에 교대로 손바닥만한 과대광고를 내며 호황을 누렸다. 학원이 안국동에 있으므로 입학식은 인근인 서울 예식장을 빌려 원장과 학원의 위풍을 내세우기 위하여 국방부를 비롯한 권력기관에 초청장을 발송하여 내빈을 초청하고 200여명의 신입생으로 호화판 입학식을 거행하였고, 입학식이 끝나면 초청된 내빈을 비원 앞 최상급 요정에서 접대하던 신현부 원장이 1965년 3월경 학원규모를 축소하여 우리 학원 건너편 초라한 건물로 이전하였다. 그는 그간 치부한 자금은 다른 사업에 투자하여 실패도 하고 사기당하기도 하였으며, 학원 운영을 변칙적으로 하였으므로 수강생들이 여러 번 국방부에 투서로 항의하여 학원은 길지 못하고 몇 개월 있다가 자연도태 폐원되었으며, 가정문제까지 겹쳐 원장은 자살로 생을 마감하였으니 그간 젊은 사람들에게 지은 죄사죄하였는지 모르겠다.

문 닫는 속기학원

민정이양으로 속기계는 다시 고개를 들고 활기를 띠자 1957년 종로4가에서 나의 지도를 받은 수료생 황지용이 인천에 동방속기학원을 개설하여 창안자 선생님과 나, 몇몇 동문 그리고 6·25 전 을지로4가에서 배웠던 전 인천시의회 속기사 출신 김장환(金章煥)도 참석해 주어 큰 기대를 걸었으나 5년 후 운영난으로 문을 닫았다.

고려속기는 그간 많은 속기사를 양성하여 국회를 비롯하여 관공서와 대기업 등에 진출시키고 우리나라 속기계 발전에 지대한 공적을 남긴 우수한 속기법식이다. 이런 고려속기학원이 1966년 6월 황중수(黃重秀) 원장을 끝으로 누적된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폐원되었다. 함경남도 단천출신인 황중수 원장은 공식이든 사식이든 간에 나를 만나는 자리에서는 누가 뭐라고 하든말든 고려법식의 우수성과 누구는 어디에 취업시키고 누구는 속기 도사고 하며 침이 마르도록 함경도 사투리로 자랑하던 모습이 눈에 선한데 벌써 고인이 되었다.

이로써 동방속기는 잡초같이 끈질긴 사투로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살아 남아 우리나라 속기사 양성의 맥을 이어가는 고군분투의 길로 접어들었다.

고군분투와 대학 출강

1966년 2월경 야간반 수업을 마치고 사무실로 나오는데 고급 외제 점퍼를 입은 건장한 30대 신사가 눈인사를 하며 얘기 좀 나누자고 해 면담하니 자기 소개를 하며 금년에 문교부 대학 설립령이 개정되어 기존 대학내에 실과 위주의 초급대학을 병설할 수 있게되어 자기 대학(덕성여자대학)내에 초급대학 상과를 병설하여 속기과목을 두기로 결정하였으니 출장을 부탁하면서 4학기 진도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어떻게 알고 찾아왔느냐고 묻자 서무과 직원이 대학 재학시 우리 학원에서 속기를 배웠다며 "열성껏 수업하신다는 소개를 받았다"고 했다. 그가 속기과를 선택한 동기는 미국 유학시 비서학과가 있어 관심있게 교과 과정을 보기도 했고, 더 구체적인 것을 알고 싶어 비서학교를 견학, A교실은 손으로 속기문자를 쓰고, B교실에서는 소형 타자를 쳐 문외한이라 교무실에 가서 문의하니 놀랍게도 타자속기라고 해 덕성여자대학 초대 상과에 타자속기과를 두고자 유관기관에 문의한 결과 아직 우리나라에는 없다고 해서 손으로 쓰는 속기로 방향을 돌렸노라고 하였다.

그래서 진도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수업시간을 주 몇 시간으로 하면 하루 배우고 잊어버리고 또 하루 배우고 잊어버리고 이렇게 되면 성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괜히 속기만 욕먹는 결과가 되니까 수업시간을 매일 1시간씩으로 잡으니까 학교측에서는 난색을 표했다. 하지만 "그 정도 시간을 주지 않으면 할 수 없다"고 버티니까 결국 내 계획서가 채택이 되고 3월 신학기부터 출강하게 되었다. 그 때 학원에 찾아왔던 신사가 바로 지금의 덕성여자대학교 재단이사장 박원국(朴元國)씨로 당시는 상과 주임교수였다.

다음 학기에는 건국대학교 낙원동 캠퍼스에 덕성여대와 같은 초급대학 상과가 병설되어 같은 조건의 출강 요청이 있어 낮 시간대에 출강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속기학술의 특성상 장시간을 요해 학생들이 학교측에 속기과목은 어렵고 숙제로 시간을 많이 빼앗긴다고 건의하여 1기만 졸업하고 폐과되었다. 그런데 속기를 배우던 학생 가운데 계속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이 있어 그 학생들이 학원에 편입하여 속기를 계속하였는데 그 중 박애자양은 성적이 좋아 학교 추천으로 경제기획원 기획관리실 속기비서로 취업했다.

건국대생으로 학원에 편입해 성적이 우수한 이덕희양은 학교 추천서와 이

력서를 가지고 나와 같이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에 갔는데 서무과장이 나에게 속기사 시험을 어떻게 보는 것이냐고 물어 방법을 가르쳐 주었더니 자기는 이해할 수 없으니 "교수님이 대신 시험을 실시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답안 성적표를 첨부하여야 채용결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와 이덕희는 조용한 구석 사무실로 안내되어 내가 시험관으로 시험을 실시하였다. 물론 합격하여 오래도록 근무하였다.

이 정도로 속기인식이 안되었으니 이 때 나는 속기인이 대동단결하여 속기협회를 창설하고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할 필요성을 피부로 직접 느끼게 되었다. 각 대학 강의과목과 시간표, 교수 및 외래강사의 성명 등이 팜플렛으로 상호 교환되기 때문에 손쉬운 방법으로 선택과목 외래강사를 초빙하는 덕을 본 것이다.

다음해 새 학기에는 미 대사관 옆 전 경기도청 자리에 있던 동덕여자대학교 학부(4년제) 3학년 국어과에서 야간에 주 2시간 요청이 있어 출강하였다. 그 때의 일인데 결석일자가 많고 성적은 시원치 않지만 예쁘장한 학생이 학점문제로 종강 후 따라와 자기는 동아방송의 병아리 성우라 연습도 많이 하고 또 연속 방송극 출연으로 결석을 하게 되었으니 보아달라고 매달려 마음이 약해져 보아주었는데 그 때 그 병아리 성우가 바로 유명한 성우 김소희씨였다.

그 후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동국대학교 등 여러 대학에서 출강 요청이 있었으나 본업인 학원 수업을 전폐하면서 할 수도 없고 하여 다른 사람을 소개하겠다고 해도 무명인이라 안된다고 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포기, 외도를 끝내고 본업인 내길로 돌아와 학원 수업에 전념했다. 사실은 대학출강으로 학원 운영과 내 집 살림에 보탬이 많았다.

다시 학원에 전념

공군에서 제대하여 복학한 이찬용은 손이 몹시 빨라 모의시험 때 25분이면 번문을 끝내고 내 눈을 피해 장난질도 곧잘했는데, 1967년 7월 김태원(金泰元)·최송섭(崔松燮)·염덕훈(廉德薰) 등과 함께 국회에 진출하여 근무하다가 해군본부 속기사와 결혼하여 후에 미국에 이민가서 잘 살고 있다. 김태원은 국회에서 나와 내외통신 및 통일원에서 근무하고 있고, 최송섭은 포항제철을 거쳐 목사님이 되어 파주교회에서 목회활동을 하고 있

다.

실력없이 국회에 들어간 문제의 김선모와 신세계속기학원장이 된 노영민이 같이 수강하던 반에 염색한 군복바지에 허름한 야전점퍼를 입고 무거운 군화를 신고 여름이나 겨울이나 땀을 뻘뻘 흘리며 수업시작과 동시에 혈떡이며 뛰어 들어오는 학생이 있었다. 그리고 그는 수업시간이 끝나기가 무섭게 군화소리를 쿵쿵내며 뛰어 나간다. 길거리 노점행상을 하며 시간을 아껴 속기를 배우고 독학을 위해 손에는 항상 책이 들려져 있으며 동급생들과 말도 없고 웃음도 없는 과묵한 성격에 인내심과 자존심이 강했던 학생, 그가 바로 염덕훈이다. 성적이 우수하여 국회 속기사로 진출하고 사무관을 거쳐 서기관까지 승진한 그가 원기왕성히 한창 일할 나이에 유명을 달리하다니 아깝고 비통하다. 특히 금년(1998년) 구정 때 고참동문들과 같이 우리 집으로 구정인사차 방문도 했는데……, 그 때 병색이 있어 보여 "자네 왜 쇠약해 보이냐" 했더니 "무병하고 건강합니다", 옆 자리에 앉았던 채강희가 저 모습이 원래 염 과장 스타일이라고 해 좌중을 웃기기도 했는데…… 참으로 애석하기 그지없는 일이다. 명복을 빈다.

동방속기학원에는 동방속기연구회가 있었다. 동방속기연구회는 1967년에 조직되어 활동을 시작하였다. 국회를 비롯해서 각계에 진출하여 활동하고 있는 동방속기 출신 속기사들이 매월 마지막 토요일 오후 3시 학원에 모여 실무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 연구하고 시대 변천에 따른 신조어의 약자 약부 등 내가 연구한 것을 바탕으로 하여 토론하고 다음 모임의 과제도 의논하였다. 회의가 끝나면 청진동 빈대떡 골목으로 우르르 몰려가 빈대떡 안주로 소주잔을 기울이며 정담을 나누곤 했던 정경은 지금도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다. 연구회 운영의 이면에는 법식에 대한 애착과 동문간의 친목과 단결을 도모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었다.

1967년 9월경 감사원에서 대학 졸업반 여자 속기사 취업 의뢰가 있어 마침 중앙대학교를 졸업하고 속도반에서 연습중인 홍지영(洪志英) 양을 추천해 주고 그 연결로 몇 년후 이정인 양을 추가 추천하여 취업을 시켰다. 이 때가 학원 운영이 가장 어렵던 때로 문을 닫는 학원들이 속출하고 우리 학원도 월세를 못내 임차보증금이 전액 공제되고 길거리로 쫓겨나기 일보직전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잡지 《여성동아》가 복간되어 복간 부록 첫 페이지 전면면에 '여성에게 전망 밝은 이색직종 속기사'라는 호기심 100%의 기사가 나 수강생이 급격히 늘어 위기를 모면하고

살아남았다. 이 《여성동아》의 효력은 1년 이상 지속되었으니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르겠다.

대한속기협회와 무료강습

1966년 12월 10일 대한속기협회가 창립되어 첫 사업으로 속기인의 저변 확대와 속기의 대중보급을 목적으로 학생들의 여름과 겨울 방학을 이용한 속기보급 무료강습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1967년 1월 제1회 강습회 개강식을 종로2가 YMCA 대강당에서 500여 수강생이 2층까지 입추의 여지없이 만장한 가운데 국회사무처·조선일보·한글학회 등의 내빈을 모시고 성대히 거행하였다. 김종환(金宗煥) 이사장의 인사로 시작하여 내빈 축사와 고등학교 학생의 실기시범으로 수강생들의 호기심을 사로잡고 다음날부터 동방속기학원에서 3주간의 강습에 들어갔다.

강습종강 후 30여명이 학원에 편입하여 학원도 활기를 띠었다. 강습 수료생 중 속도반까지 마쳐 실력을 쌓은 이화여자대학교 출신 전진숙(田鎭淑) 양은 신진자동차공업주식회사에 속기사로 취업하고 같은 이화여자대학교 출신 김순옥(金順玉) 양은 학원의 알선으로 수자원개발공사에 입사하였으며, 서예가 해정 박태준(海汀 朴泰俊)선생의 자제는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한 후 한국일보사에 기자로 입사했는데 해정 선생은 자체가 수강하고 있을 때 같이 오셔서 속기 배우기가 힘들어도 백번은 참아야 한다는 뜻의 '百忍堂'이라는 휘호의 액자를 학원 큰 교실에 걸어 주셨다. 사진작가의 아들인 김병원(金炳元)은 대학 졸업 후 서울신문 사진기자로 활약하였다. 이와 같이 협회의 보급강습은 속기 입문생의 길잡이 역할을 충분히 해냈다. 강습으로 속기에 취미를 붙여 계속 연마해 국회 속기사까지 배출시킨 강습이다. 24년간 1966년부터 1990년 제45회 동계강습을 끝으로 중단됐던 대한속기협회 주체 무료강습회는 속기인의 많은 저변확대와 대중보급에 큰 성과를 거둔 협회 사업이었다. 나는 제1회 강습부터 제45회 강습까지 한번도 빠짐없이 열과 성을 다하여 수업에 임하였다.

협회의 연례사업으로 오랜 세월 하다 보니 PR이 잘 되어 방학 때가 되면 강습접수 문의 전화도 많았고, 어머니가 된 강습 수료생이 고등학교 학생 아들 딸들을 데리고 와 유익한 강습이라며 수강을 시키기도 했다. 이 얼마나 보람된 사업이었던가.

기계속기는 장상길이 먼저

지금 협회의 지속적인 연구사업인 속기의 전산화 및 기계화 사업이 총회 때마다 매년 사업계획으로 오르고 있지만 나는 협회 창립사업으로 1970년 들어 외국에서 보급실용중인 속기타자기 연구사업 추진책으로 한글기계화위원회 위원장 공병우 박사를 협회 임원 몇 사람과 같이 방문 면담한 바 있다. 한글기계화위원회는 공병우타자기를 개발한 공병우박사가 한글타자기의 발전을 위해 설립한 사설단체이다. 그 자리에서 공동 연구를 하되 자판은 이쪽에서 연구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때나 지금이나 회원 거의가 국회나 타 직장인이라 협회차원에서 전적으로 연구에 몰두할 수 없는 여건이므로 우리 학원내에 작은 연구실을 꾸미고 미제 속기타자기를 구입하여 학원 강사 장상길(張相吉)과 당시 첩보부대에 근무하고 있던 한동춘이 격일제 강사로 학원에 나올 때 두 사람이 같이 연구하도록 위임하였다. 1년간 연구 끝에 한글자판의 시제품이 완성되어 특허청에 실용신안특허를 내고 자료를 가지고 내가 직접 공병우 박사님을 만나 검증 후 제작 보급하자고 하자 전국의 공병우타자기상사를 통해 시장성 조사를 한 자료를 보여주면서 시기상조로 적자사업을 할 수 없다고 거절하니 별 도리가 없었다. 스폰서가 거절하니 할 수 없는 일이나, 연구한 노고에 대해 미안하다며 그 위안으로 서울시내 타자학원에서 한글타자를 배울 수 있는 수강증 20매를 얻어 가지고 쓸쓸히 돌아와 협회 회원 중 희망자들에게 한글타자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이에 실망한 장상길은 몇 달 후 미련을 버리고 타 직장으로 이직했고 이후 속기타자기 연구는 협회도 중단하고 학원도 역시 중단하고 말았다.

1974년 5월 우리 학원에서는 처음으로 여성 속기사 정명순(鄭明順)을 국회에 진출시키고 1975년 6월에는 듣직한 이경식(李京植)이 합격했는데, 지금 청량리에서 속기학원 운영으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석연(李錫演)원장이 우리 학원 강사 시절, 전농동 이경식 집에까지 달려가 합격의 기쁨을 전한 일이 기억에 생생하다.

속기 수요처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관공서에 국한되었던 것이 기업에서도 속기사 의뢰가 왔다. 서울우유에서 2명의 여성 속기사 의뢰가 있어 협회 제2회 속기경기대회 준급에 입상한 바 있는 이정순 양과 실력을 갖추고

있는 동급생 이정인 양을 추천 취업을 알선해 주었는데 그 후 이정순 양은 사업가와 결혼하여 지금은 캐나다로 이민가서 살고 있다.

고등학교 재학시 속기를 배워 대학시절(중앙대 법학과) 속기를 응용한 노트필기로 인기를 끌면서 속기아르바이트로 학비는 물론 생활비까지 자력으로 해결했던 유순태는 군복무, 복학 등으로 1977년 뒤늦게 한국생산성본부에 속기사로 입사하여 부장으로 승진하고 월간 기업경영의 주간을 맡았으며, 생산성본부의 자회사인 도서출판 비북스의 사장을 역임하고 지금은 독립하여 출판·미디어 종합기획용역 및 사사(社史)·회고록 대필을 주업으로 하는 도움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동우회에서 속기 노트 공급

동방속기에는 1960년대초부터 활동해오고 있는 동우회라는 조직이 있다. 동방속기 선후배들이 모인 친목단체인데 개별적으로 의뢰되는 속기업무를 수행하고 또 속기 수요를 확대하고 회의 진행에 관한 자문도 한다.

76년 동우회에서는 학원에 입학한 신입생들의 학습을 돕기 위하여 김기영 채강희가 연구 고안한 속기 노트를 공급하였다. 그 목적은 속기 문자를 익히는 과정에서 가장 유의해야 할 각도와 길이의 개념과 정확한 각도 길이를 처음부터 손에 숙달시켜 고속도 기록시에도 각도 길이가 흐트러짐 없이 기록해 번문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함이었다.

실비에 디자인도 세련되어 수강생들의 반응이 좋아 협회 강습생들에게도 공급해 학습에 도움을 주었다. 그 후 모나미 문구에서 우리 속기노트를 모방하여 유사품도 판매되었다.

자축연

타자·경리 등 사무계 학원들이 잘 될 때는 우리 학원도 안정되고 흑자를 내는 상태가 된다. 이 무렵인 1978년도 국회 속기사 공채에서 박병윤(朴炳潤)·나성수(羅性洙)·양진숙(楊眞淑) 등 3명이 합격하여 학원에서는 격식을 갖춘 큰 규모의 자축연을 베풀어 선배 동문과 재학생들이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대형 축하 현수막에 몇 개의 화환·화분 등으로 연회장(큰 교실)을 꾸미고 창안자 선생님의 축사와 선배 대표 김기영의 축사가 있었고,

재학생들은 축가를 부르고, 축하 케이크도 자르고, 재학생들이 준비한 다과와 음료수, 학원에서 마련한 안주와 술 등이 가득한 가운데 선배들이 합격자들에게 기념품을 선사하며 선후배가 어우러져 노래 부르고 춤도 추며 여흥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다.

한국속기교육협회

1976년경 사단법인 한국속기교육협회 이사장 남상천 씨가 좋은 사업이 있으니 꼭 만나 의논할 것이 있다는 전화를 받고 선입감이 좋지 않아 별로 반갑지는 않았지만 일단 만나보기로 하고 약속된 장소에서 만나니 "타자속기 연구를 국고 보조를 받아 공동으로 연구하자"면서 국고보조에 필요하니 동방속기 장상길의 속기타자 한글자판 실용신안특허를 한국속기교육협회 명의로 하자는 것이었다. 어떻게 이것을 열람했는지 "수완은 비상한 사람이다" 생각하면서 믿기 힘든 사람이라 거절해 버렸고, 그 후는 만나지 못했다.

이 후 한국속기교육협회는 신세계속기학원 노영민의 손으로 넘어가 노영민이 이사장이 되었고, 남상천 속기는 실적이 전무한데도 문교부에 어떤 방법으로 교섭을 했는지 전국 상업고등학교 교사는 하계·동계 방학 때 1개월간의 속기강습을 받고 수료증을 받아야만 고과성적에 반영되어 승급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서 강습수강료, 책대 등은 물론 전국 상업고등학교를 상대로 교과서 판매, 인지대 등으로 수입을 올렸고, 이 때 강습받은 교사들을 중심으로 만든 것이 한국속기교육협회인데 회원들은 속기사가 아니며 그것도 그 후 유명무실해졌다. 전국의 상업고등학교 학생들은 속기를 정과목으로 배워야 하기 때문에 5, 6년간 학교의 속기는 남상천 속기 일색이었다.

사회로 진출하는 제자들

1979년에 고경효(高敬孝), 1981년에 서일순(徐一順)·이대숙(李大淑)이 국회 속기사로 진출하였고, 같은 해 11월경 서울시청에서 여자 속기사 2명의 추천 의뢰가 있어 대한속기협회 제3회 속기경기대회에서 정급에 입상한 바 있는 이해득(李海得)과 임성춘을 추천 취업시켰다. 그 후 이해득은

올림픽 조직위원회로 옮겼다가 지금 한국통신 본사에서 간부로 일하고 있다.

1982년에 박정자(朴貞子)·정순화(鄭順花)·1983년에 이준태(李俊太)·한순덕(韓順德)·곽계안(郭桂安)·1985년에 홍은주(洪銀珠), 1986년에 한기수(韓基洙)·배영수(裴映秀), 1988년에 간찬기(簡燦基)·이현실(李賢實), 1990년에 김기선(金基善), 1991년에 남미경(南美慶) 등이 국회 속기사로 진출하였다. 1982년과 83년 합격자를 위한 학원 자축연에서 선배들을 위해 축가를 중창하던 이덕경(李德瓊)은 오랫동안 쉬었다가 청량리학원으로 옮겨 열심히 공부하여 1988년 본인이 스스로 합격자가 되었으며, 얼마 후 같은 해에 국회에 진출한 간찬기와 결혼하여 같은 집에서 같은 직장으로 같은 차를 타고 출퇴근하고 있다. 한편 1989년 조달청에서 속기사 추천 의뢰가 있어 이주용(李柱溶)을 취업시켰으며, 1998년 조달청이 대전으로 이전함에 따라 이주용도 가족과 함께 대전 인근인 옥천으로 이사하였다. 이상의 회고는 내 기억에 의존하여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누락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오기도 있을 것이니 널리 양해해 주기 바란다.

25년만의 동해안 휴가

1980년대 초 김기영이 국회에 연금매장을 관리도 하고 사무처 직원 여름 캠프 관리책임까지 맡고 있을 때, 낮시간에 하계강습용 교재 보완 원고의 수정을 보고 있는데 국회에서 전화가 와 받아 보니 김기영이 캠프 관리를 맡고 있으니 협회 하계강습 전에 식구와 오랜만에 휴가 다녀오라는 것이었다. 마음은 설레었지만 아이들과 당일치기나 다녔기 때문에 준비물이 하나도 없었다. 이 전화를 옆에서 듣고 있던 조재근 선생이 학원은 염려마시고 눈 딱 감고 다녀오라고 바람을 잡았다. 장비가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쓴살같이 싼 값에 국회 연금매장에서 구해다 주어 결국 등을 밀려 대학 입시준비중인 막내 딸만 남겨두고 다섯 식구가 국회 버스에 몸을 싣고 낙산으로 출발하였다. 폭신한 쿠션에 차내 에어컨 바람은 솔솔 불어 한창 단잠에 빠져 있는데 "이 원장 밤에 무엇하고 잠만 자"하며 누가 흔들어 눈을 떠보니 농담 잘하는 김윤수(金允洙)씨가 한잔 마시자고, 이쪽에서 한 잔 저쪽에서 한 잔하며 농담하다 보니 어느덧 술발 연곡해수욕장에 당도하였다. 차에서 내리는데 '이 선생님!'하는 소리에 뒤돌아보니 특

유의 걸걸 웃음을 웃고 서 있는 뜻밖의 송박문이 "우리 식구도 왔어요"하고 반갑게 만났다.

캠프에는 선발대로 김선필도 와 있었고 우리 식구는 여대생 두 딸이 있어 규모가 큰 민박집을 잡았는데 주인장 아버지가 함경도 사투리로 어디서 왔느냐고 묻길래 국회캠프에 왔다고 하니까 내 고향 친구 이주범(李柱範)이 며칠 휴가 보내고 귀경했다고 말하여 그분은 내가 잘 아는 속기 선배라고 하자 인심 좋은 주인장은 여러 가지로 편의를 보아주고 맛있는 반찬도 많이 주었다. 세상은 좁은 모양이다.

하계강습 관계로 3박 4일 일정이지만 해수욕도 하고 설악산, 낙산사 등을 관광하고 저녁에는 동문들과 주연도 즐기고, 아침 일찍 일어나 가자미 낚시도 해보았는데 참 재미가 있었다. 선주가 준비한 낚시대를 미끼도 없이 드리우기만 하면 이 놈의 가자미가 아가미에도 걸려 올라오고 어떤 놈은 눈에도 걸리고 지느러미에 걸리는 놈도 있다. 15수 올리면서 재미가 한창인데 아들놈과 몇 분이 배멀미를 심하게 해 일찍 돌아와 싱싱한 가자미 매운탕에 소주 한 잔씩 하고 낮잠 늘어지게 자고 나니 부러울 것이 없었다. 오랜만에 김기영의 배려로 여름휴가 잘 보냈으니 나는 후배 복이 있나보다.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나는 1990년 1월 협회의 제45회 보급강습을 끝으로 실질적인 속기강의는 마감하였다. 지병의 재발로, "살고 싶으면 모든 것을 정리하고 요양하라"는 주치의의 간곡한 권고를 받아들여 하는 수 없이 1990년 6월 35년간 온 정열을 쏟아부어 이룩한 동방속기학원을 근 30년간 나와 동고동락한 조재근(趙載根) 선생에게 인계하고 연구분야는 한동춘 선생을 믿고 구석구석 내 손때가 묻고 정들었던 교실을 뒤로 하면서 동방속기학원의 무궁한 번영과 발전을 기원했고, 그 후에도 운영상 문제점이 있으면 자문에 응해 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속기학원 졸업 후 진출의 전망이 밝지 않아 계속 학생이 감소하는 현상이었고, 연구반 수료 후 국회나 타 기관 속기사로 진출한 사람은 행운이며 국가기술자격 1, 2급을 획득하고도 수요처가 없어 진출하지 못한 수료생에게 항상 학원 운영자로서 또는 가르친 선생으로서 많은 죄책감을 갖고 변명을 하면서 살았으나 은퇴 후 다행히 1991년 30년만에 재개된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제의 부활로 각급 지방의회가 구성되면서 1·2급 자격 취득자 전원이 취업하고, 지방에서는 도리어 속기사 부족현상으로 채용 못하는 경우까지 생길 정도가 되어 속기계와 학원이 활기찬 모습을 보며 나는 뒷전에서 박수를 치며 응원하였는데 1995년 운영난으로 누적된 적자를 감당할 수 없어 학원이 폐원되었으니 공든 탑이 다 무너진 듯 허탈감마저 든다.

에필로그

전장에서 살아 남은 나는 이후 속기 외길로 평생을 보냈다. 지금은 은퇴하여 조용히 요양중이지만 가끔 속기 현장에 내가 서 있는 것 같은 착각을 하곤 한다. 신문이나 텔레비전에 속기 얘기만 나오면 거기에 몰두하게 되고 내 힘이 닿지 않는데도 해결하려고 덤빈다.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동방속기가 지금은 물 밑으로 가라앉았지만 언젠가는 다시 햇볕을 볼 날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는다. 아무리 편리한 것만 추구하는 세태이지만 그래도 근본을 찾고자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역사는 과거의 기록이지만 속기는 현재의 기록이다. 언제나 현재형이며 미래의 역사이다. 속기인이 기록해 놓은 자료는 후에 현재를 증거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속기인의 사명이 중차대한 것이다.

기록을 함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요즘은 컴퓨터를 이용한 속기가 능률적이라는 얘기도 듣는다. 배우기 쉽고 사용하기 쉬우며 능률적이면 그 쪽의 연구도 힘써야 할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양성이다. 모든 것은 그 가치를 스스로 지니고 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여야 한다. 국회에서 속기사를 공채할 때도 '속기 몇 명, 컴퓨터 속기 몇 명'할 것이 아니라 그냥 속기사를 모집하면 무슨 방법으로 속기하던 우수한 사람을 채용하면 되는 것이다.

분당 이웃에 사시는 동방속기 창안자 이동근 선생님, 건강하시기를 빕니다.

대한속기협회 영원하라. 그리고 길이 발전 번영하라.

시대섭 회장님을 비롯한 속기협회 회원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깃들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하면서 줄필을 마칩니다.

속기 업무의 용역은 가능한가

윤 태 원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8년이 넘었다. 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될 당시 속기사의 태부족으로 인해 속기방식과 녹음방식에 의한 회의록 작성법을 지방자치법시행령에 규정하고 이를 시행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 전국 260개 광역·기초의회 중 속기사 비채용 의회가 80여개였는데 8년이 지난 지금 속기사 비채용 의회는 43개로 줄었다. 그러면 속기사 비채용 의회와 속기사 채용 의회의 회의록을 비교해 보고 요즘 대두되고 있는 속기용역에 대한 제반 내용의 검토와 함께 속기에 있어 일반인에게 용역 위탁이 가능한지 살펴보기로 한다.

지방의회에서의 회의록

91년 지방의회 출범 당시 속기사 수의 부족을 메우기 위해 타자수와 전자 구술기를 활용한 회의록 작성이 가능하도록 법령에 명시하였다(지방자치법시행령 제21조제1항).

그런데 특이한 것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으면 단가의 인상이 불가피한 것이 시장원리인데도 불구하고 지방의회 회의록 작성요원이라는 수요에 비해 속기사라는 공급이 부족한데도 일반 타자수와 동일한 기능직군에 속기사를 특별임용하였다. 이는 속기사의 능력과 업무의 형태 및 중요성을 무시한 임용이었으며, 그로 인해 8년이 지난 지금까지 일부 의회에서 속기록에 의한 지방의회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법령에 의해 모든 업무가 행해지는 지방의회에서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회의규칙 제45조 제2항)는 법령조항에도 불구하고 녹음불량인 상태에서 타자수에 의해서 타이핑된 것

을 정상적인 회의록인 양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나 아무도 여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으며, 간혹 민감한 사안에 대해 정족수가 부족함에도 안건처리가 되었거나 상급 부서의 회계감사, 또는 사법부의 재판 증거용으로 회의록 제출 등이 있을 때 논란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회의록에 대한 개념 자체가 단순히 회의내용을 어떠한 형태이든 기록만 하면 되고, 일부 내용이 삭제되거나 수정되어도 책자로만 만들어내면 된다는 사고가 아직도 지방의회에 잔존하고 있다. 이는 속기사가 회의록을 전담하는 사관으로서의 진정한 의미를 부여받지 못한 데에서 기인한다.

지방의회의 속기사

속기사는 특채된 기능직으로 회의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실제 속기업무에 관한 사항은 행정직에서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속기사는 보조역할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행정직 위주의 우리 공직사회에서 빚어진 결과이다. 그러다 보니 속기사는 상급자의 지시에 의해 속기사의 본분마저도 망각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처해 있으며, 간혹 강력하게 속기록의 수정은 불가하다고 맞섰을 때, 업무보다는 직렬과 직급 앞에서 속기사는 결국 고집스럽고 말 잘 안 듣는 직원으로 낙인 찍혀 직장에서 근무하는 데 곤란을 겪기도 한다.

속기사가 이러할진대 속기사가 없이 타자수가 회의록을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 그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타자수는 그저 윗사람으로부터 타이핑만을 위임받아 대리로 타이핑하는 역할밖에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속기사가 속기를 배우면서 터득한 속기록은 수정할 수 없다는 그 진리를 일반 직원들은 모르고 있어 서로 편리한 대로 칼질을 할 수밖에 없다. 이에 타자수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수정할 뿐이다.

흔히들 속기사와 타자수를 비교할 때 타자수는 들리는 대로 타이핑하고

속기사는 들은 대로 기록한다고 한다. 처음 기초의회가 개원될 때 속기사 부족으로 인해 상임위원회가 동시에 열린 회의에서 하나의 상임위원회를 녹음하여 타자수에게 맡겨 보았는데 이걸 회의록이라 할 수 없을 만치 너무 엉망이어서 새로 속기사가 작성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녹음에 의한 회의록 작성이므로 회의록의 생명인 현실성과 진실성이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이 속기사 제도를 배제한 지방의회 회의록 제도의 운영이다.

그러나 속기사에게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모 의회에서 지방의회가 개원되면서 행정경험이 전혀 없는 속기사들을 일부 채용하고 나머지는 행정경험이 풍부한 집행부 타자수로 하여금 속기사를 대신하게 하였다. 속기는 안 되겠지만 최종결과물을 두고 보았을 때 타자수가 행정용어라는가, 문법 등에서 더 뛰어났다고 한다. 결국 그 의회에서는 타자수에게 속기공부를 시켜 속기사로 채용하였다.

지금은 8년여의 의회경험으로 속기사가 더 월등하다고는 하나 속기사로서의 역할보다는 녹음에 의존한 회의록 작성, 오자, 탈자, 문법에 맞지 않는 문장 등의 회의록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공부하여 개선할 생각은 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려는 속기사는 아닌지 우리 스스로 반성해 보아야 한다.

타자수가 작성한 회의록

그러면 속기사와 타자수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짚어보자.

타자수는 그저 타자수일 뿐이다. 들리면 들리는 대로, 문서를 보기 좋게 편집만 할 뿐이다. 그러나 속기사는 회의내용을 속기하고 또 회의록을 만드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법, 동법시행령, 회의규칙 등 법규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도록 신경을 쓰고 있다. 물론 최종결과물인 인쇄된 회의록에서는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을 수도 있다 할 수 있겠지만 타자수가 입력한 회의록은 무늬만 회의록이 되는 수가 많다.

그저 겉보기에는 별반 차이가 없을지 모르나 글자 한자한자 따져보면 "이

것도 회의록인가?"하는 한탄을 하게 된다.

97년도에 전국지방의회속기사협의회(이하 '협의회')에서 속기사가 없는 의회의 회의록을 구하여 분석해 보았다. 타자수로서 속기사를 대체할 수 있다는 논리가 있어 속기사로서, 그리고 지방의회의 한 직원으로서 지방의회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 과연 수궁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속기사가 아닌 타자수가 입력하여 만든 5개 의회의 회의록을 표본으로 하였다.

이 회의록들은 동일성이 전혀 없었는데 회의록 업무를 행정직이 담당하다 보니 회의록의 가치가 보존적 성격보다는 의사업무를 지원하는 서류에 지나지 않아 행정직이 보기 편리한 대로 회의록을 만들었다. 인사이동으로 인해 직원이 바뀌게 되면 또 그 사람은 자기 편리한 대로 회의록을 만들었다.

회의록은 현실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의시간, 산회시간 등을 법적으로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회의규칙 제45조제1항) 미기재 되어 있었으며, 회의내용을 그대로 기록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회의규칙 제45조 제2항) 요약 처리하였으며, 의회 의원의 회의수당은 속기록에 기재된 명단에 의해 지급토록 되어 있는데(행자부 지침) 출석의원과 출석공무원의 명단이 아예 없고, 회의에 소요된 관련서류도 첨부하게 되어 있는데(회의규칙 제45조제1항) 미첨부되어 있었다.

의석발언에 있어서는 마이크가 의석마다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의석에서의 발언이 녹음되지 않아 회의록에는 그 내용이 빠져 있어 회의록의 흐름이 끊어져 있고, 질문은 없고 답변만 있었다.

특히 타자수가 작성한 회의록은 출석의원 명단이 전원 출석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많았다.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은 분명 법규에 어긋날 뿐만 아니

라 지방자치의 발전에도 저해요소로 작용될 것이다.

그러면 왜 속기사를 채용하지 않고 타자수로 하여금 회의록을 만들게 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기존 인력에 대한 예우 그리고 틀에 박힌 제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처음 속기사를 채용할 당시에는 구조조정이니 하는 말들 없이 많은 인력들이 공직에 들어와 근무하게 되었는데 지방의회가 출범하면서 이러한 인력들이 지방의회 지원요원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타자수도 이때 속기사를 대신하여 회의록을 만들어 왔는데 이제 와서 이러한 사람들을 내쫓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회의록의 중요성보다는 기존 인력을 활용하는 행정의 편의성만 고려한 결과를 가져왔다.

지방의회가 출범할 당시 속기사에 관한 직제는 지방공무원법이나 어느 법규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다 타자수와 동일한 기능직군내 필기직렬로 신설되어 속기사뿐만 아니라 타자수와 동일하게 취급한 법규가 만들어졌었다. 그러기에 속기사를 채용하지 않아도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으며, 속기사의 정원도 타자수가 차지하고 눌러앉아 있어도 누가 뭐라할 사람이 없었다.

그러기에 기존 인력을 예우하여 회의록 작성자로 눌러앉혀도 법적 하자가 없는 것이다. 회의록이야 어떻든간에 책자로 발간되니 별반 문제가 없다고 여겼다.

이러한 형태가 결국 속기사가 속기 도중 생기게 되는 각종 회의상황을 타자수는 빠뜨리게 되어 회의진행에 따른 문제점이 여러 의회에서 도출되었다. 이에 대해 의회 관련 부서에서는 속기사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속기록 작성의 중요성을 몇 차례에 걸쳐 강조하였다.

내무부 지기 13130-146

제목 : 지방의회 운영 협조

내용 : 속기록의 정확하고 철저한 기재

속기록에는 출석의원 현황(회의수당 지급 및 의사 의결 정족수 근거), 개의·정회·산회 등의 시간,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 변동사항, 개별 안건별 의결 참여의원 상황 등을 빠짐없이 기재.

발언취지를 훼손하는 자구 정정권의 남용을 금지하여, 문맥상의 토씨 등 정정만 가능.

용역의 문제점

이렇듯 속기록의 중요성이 입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민간인에 의한 용역이 최근 거론되고 있고 일부업체에서는 호기인듯 회의록 용역을 따내고자 시도하였다.

그러면 왜 이러한 용역 얘기가 나온 것일까?

그것은 바로 회의록의 중요성보다는 단순히 IMF 또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예산절감만을 고려한 편견에서 나온 것이다. 즉,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만 바라본 결과인데 지방의회 속기사의 업무를 평가하는 데 있어 상당한 편견을 가지고 평가한 데 기인한다.

광역의회의 경우 연간 회기가 120일, 기초의회는 80일로 되어 있다. 기초의회 속기사의 경우 80일만 속기업무를 하고 나머지 기간은 업무가 없어 논다고 판단한다. 즉, 이 80일을 위해서 여러 명의 속기사를 365일 동안 봉급을 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논리인 것이다. 그러므로 80일만 용역 의뢰하면 나머지 기간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이러한 계산은 속기업무가 단순히 회의 기간 내에 완료되느냐 하는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고, 또한 속기업무가 속기에만 국한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한 것이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속기록의 중요성을 간과한 판단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속기업무는 용역이 될 수 있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한다면 불가능하다.

지방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는 바로 회의록이다. 그 지방의 역사가 바로 회의록에 기재되고 가장 중요한 문서로서 진실성 그리고 보존성이 함께 확보되어야 한다.

이렇게 중요한 문서를 외부 업자에게 맡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회의록에는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외비급으로 분류하여 일반에게 공개하지 않는다.(회의규칙 제48조제1항) 이 회의록은 인쇄조차 하지 않는데, 이러한 비밀문서에 해당하는 회의록을 외부인에게 맡길 수는 없는 것이다.

다른 이유를 다 제쳐두고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회의록은 용역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아무리 IMF니 구조조정이니 하더라도 쓸 건 쓰고 아낄 건 아껴야 한다.

TV의 공익광고처럼 IMF라고 해서 무조건 안 먹고, 안 입고, 숨도 안 쉬면 되는 것이 아니다.

필요한 곳에는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비록 회기가 80일이라고는 하나 회의록을 만드는 과정을 고려한다면 1년 365일이 빠듯할 정도다. 물론 지방의회에 따라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그 외의 남는 시간은 의사업무를 지원하면 된다. 더욱이 '회의록 전산화'의 과제가 속기사 앞에 놓여 있다. 이 문제 역시 전산직원에게 맡길 수만은 없다. 회의록 속성을 가장 잘 아는 속기사가 이 업무를 담당해야만 올바른 전산화를 구축할 수 있다. 이미 전산화가 구축된 의회를 보더라도 속기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입증하고 있다.

속기사의 자세

속기업무의 용역문제가 나왔을 때 몇몇 지방의회에서 검토가 되었다.

광역의회의 한 기록계장은 '속기용역은 말도 안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어느 의회에서는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 검토하였는데 결국 속기업무는 용역이 불가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앞으로도 계속 용역문제가 거론될 것이다. 그저 현실에만 만족하고 안주하려 든다면 언젠가는 용역의 대상이 바로 내가 근무하는 의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이제는 지방자치가 되다보니 용역문제에 대해 정부에서 이러쿵저러쿵 지시하지는 않는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조조정 당시 그 지방의회의 속기업무를 판단하여 용역으로 할 것인지, 속기사를 두고 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므로 현실에 안주하여 대충대충 회의록을 만들고자 한다면 분명 용역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속기사는 속기업무 뿐만 아니라 의사업무 그리고 회의록 전산화 등에 관해 늘 공부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불거져 나왔을 때 대한 속기협회나 협의회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속기사들이 힘을 모아주어야 한다. 적어도 속기사로서 계속 지방의회에 근무하고자 한다면 말이다.

(Homepage : <http://www.chollian.net/~yuntw>)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인생은 마라톤이다?

- 춘천마라톤 완주기-

박 순 필

걱정 속에 연습은 성공적

9월말쯤 동료 김재학 씨가 춘천마라톤대회 half course(21.0975km) 참가를 권유해 왔다. 작년에도 뜻이 있었으나 깜박 마감을 넘겼던 터라 이번에는 꽤히 승낙하고 마감시간 직전 인터넷을 통해 신청 접수를 했다.

막상 신청하고 보니 지금까지 10km이상 뛰어본 일이 없어 무리없이 뛸 수 있을까 걱정이 되어 다음 날 김재학 씨에게 10km코스로 바꾸어서 부담없이 뛰겠다고 했더니 "박선배 정도면 무난할 것이다. 나도 작년에 1시간 55분에 주파했다"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코스변경을 만류하였다. 사실 아침 달리기는 30대 중반부터 10여년간 매일 해오기는 했으나 거리가 짧고 단시간 뛰는 것(4km 내외, 20분 소요)이어서 두 시간 가량 뛰는 하프코스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말에 조금은 고무되었다.

10월 11일이면 앞으로 보름 남짓, 연습을 해야겠기에 아침 달리기를 강화하기로 하고 거리는 10km, 시간은 한 시간으로 늘려 잡았다.

한 시간을 달리려면 편도 30분을 왕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일요일동이 트자마자 고양시 행신동 햇빛마을 집에서 출발, 숲속 오솔길을 끼고 원당역을 지나 30분을 달렸는데 생각보다는 멀리 한양컨트리클럽 후문까지 와 있었다.

여기가 반환점인 셈이었는데 거의 왔던 속도를 유지하며 집 부근까지 와 보니 평소 아침 달리기 때와는 체력소모면에서 전혀 달라 기운이 다 빠지는 것이었다.



골인 지점에 여유있게 'V'자를 그리며 질주해오고 있는 박순필 회원

그 거리가 얼마인지 궁금하여 아침 먹고 와이프와 함께 드라이브삼아 자동차 마일게이지로 체크해 보니 5.5km, 왕복 11km가 나왔다(랩타임 1km당 5분 25초 정도). 춘천에서는 이 거리의 2배를 뛰어야 하는데 걱정이 되었으나 일단 훈련을 더 해보기로 했다.

그 이후 일주일간 아침마다 한시간씩 국회와 집 부근에서 대략 10km씩 뛰고 마지막 총연습삼아 1시간 30분짜리를 계획하고 '햇빛마을-화정동성당-대곡역-백석동-호수공원길-대화사거리-종합운동장-주엽역'을 뛰었는데 18km. 랩타임은 1km당 5분, 훈련 전보다 2,30초씩은 당겨진 셈이었다. 춘천이 21km이니까 여기에다가 3km, 15분 정도만 더 뛰면 가능하겠다는 계산이 나와 적이 안도감이 생기기도 하였으나 실제 상황은 어떨지? 이대로라면 1시간 45분에서 50분대가 가능한데...

술과의 전쟁은 실패

그런데 그 다음 주가 문제였다. 추석연휴 4일 술과의 싸움, 연습을 거를 수밖에 없었고 먹고 마시는 즐거움에 빠져 짧은 기간이나마 그간의 연습은 수포로 돌아가는 듯 했다. 연습기간에 빠진 2kg의 체중은 도로야미타

불! 오히려 몸이 이전보다 무겁게 느껴질 즈음 D데이 3일 전 피치못할 술자리에서 "저, 사실은 3일 후에 춘천 마라톤대회에 나갑니다"하고 술잔을 사양하자 "당신이 체력 좋고 잘 뛰는 줄은 알지만 그 나이에 춘천까지 가서 땀 흘릴 있냐?" "중이 잘 땀다 잘 땀다 하니까 장삼마저 벗어젓히고 땀다더니... 자! 쓸데없는 극성떨지말고 완샷!" 그 날밤 결국 3차, 술과의 싸움은 여지없이 완패였다.

그 동안 어떻게든지 완주를 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기 위해 주위 사람(직장, 친구들, 집식구들)에게 일부러 21km 땀다는 사실을 공표까지 해놓은 터에 선수가 숙취에 시달리고 있으니...

다음 날 김재학 씨가 대회 셔츠와 모자, 배번 3023, 스피드칩 등을 가져와 받아놓고 보니 걱정과 후회, 그리고 긴장감까지. 그래도 금·토 양일간 몸을 잘 추스리면 완주야 못하겠는가, 억지로 자신을 합리화해가는 꼬라지라니.

신비의 영양제

사실 공식대회는 물론이고 본격적인 마라톤을 해본 적이 없는지라 마라톤에 필요한 지식이 없는 터에 인터넷 조선일보에서 춘천마라톤 BBS를 띄워놓아 거기서 전문가 내지는 경험자들의 조언이 장비나 뛰는 요령 등에서 많은 참고가 되었고 특히 감동적인 완주기를 실어놓은 훌륭한 글들에서 사기를 북돋울 수 있었다.

예컨대 신발은 마라톤 전용화가 있는데 황영조화니 이봉주화니 하는 10만원 20만원 짜리가 있고, 양말과 신발 착용법은 어떻게, 마라톤 전용 팬티는 동대문 스포츠상가에서 구입하며, 식이요법은 탄수화물 섭취가 좋은데 바나나 찰밥 등이 좋다는 등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들이 많았다. 오버페이스를 경계하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지적을 해 놓았었다.

특히 "신비의 영양제"라는 제목의 글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야! 장사속도 좋다. 이런 데에서까지 약을 팔아먹고 사는 자가 있구나" 하고 보지도 않고 지나쳤는데 나중에 우연히 다시 보니 내용은 그게 아니었다. 뛰는 사람으로서는 많은 공감이가는 것이어서 한 부분만 소개하자면 이렇다.

" -중략-

.....

그래서 저는 마라톤=중년의 회춘제=신비의 영양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BBS에 올린 그 약장사(?)가 바로 동료 김재학 씨일 줄이야!
(춘천대회가 끝난 지 사흘 후에야 알게 된 사실)

그러나 이러한 수백 건의 정보들을 짧은 시간 내에 다 참고할 수는 없었고 장비면에서 신발·양말·팬티를 참고했는데 신발은 그 동안 사용했던 조깅화가 낡고 딱딱하여 대학생인 작은 아이의 부드럽고 가벼운 운동화를 빌려 신었고, 연습때 입었던 팬티가 장시간 달릴 때 가랑이 안쪽과 마찰되어 살갓이 쓰러졌던 경험이 있어 동대문을 갈까 했는데 못 가고 그 팬티의 실밥부분을 가위로 잘라 부드럽게 했더니 훨씬 부드러워진 느낌이었다. 그런데 실전에서는 쓰러림이 여전했다 다음엔 전용팬티는 반드시 준비해야지. 그리고 양말도 개조를 했는데 테니스양말 윗부분 고무줄부분을 잘라냈더니 발목 압박을 줄일 수 있었고 시원해서 좋았다.

이미지 런닝(?)

하루 전 토요일, 준비물을 가방에 넣어놓고 잠을 푹 자야겠기에 잠자리에 들어갔다. 그러나 희안케도 잠이 쉽게 오지 않았다. 마치 소풍가기 전날처럼.

그래서 잠이 올 때까지 코스 약도를 상상하며 소위 골프스윙에서 말하는 이미지 스윙, 아니 이미지 런닝을 했다. 출발은 천천히, 서상2교까지는 몇분, 배수펌프장까지는 얼마, MBC송신소, 소양2교... 골인!

이런 식으로 몇번을 골인 했는데도 못 자고 누운 채로 한 시간을 보냈다. 웬 불면증?

자! 다시. 출발.... 호주머니에 있는 초콜렛은 중간쯤 지나서 먹을까·날씨가 더워서 땀이 많이 나겠지, 준비해 간 목장갑을 호주머니에 넣고 번갈아 끼고 닦으면 되겠지, 물은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되겠지, 아! 물! 그렇지. 갑자기 목이 말라왔다. 내가 진작 그 생각을 못 했지? 곰바우 한 병을 마시고서야 단잠에 빠졌다.

아침 7시. 여의도에서 자기 차로 기다리던 김재학 씨와 출발. 한 시간 반 남짓 달려 춘천 초입의 해장국집에서 해장겸 아침을 간단히 먹고 공설운동장으로 향했다.

자유로움

참으로 흥가분했다.

평소의 거추장스러웠던 벡타이·와이셔츠 양복 대신 런닝셔츠와 팬티의 투피스 딱 두조각만 걸치니 날아갈 것 같았다. 누군가의 "다 벗고 뛰면 좋을 것 같애"에 공감이었다.

하프코스 주자들을 중간지점에 내려놓기 위해서 버스 20대가 도열하고 있었는데 그 버스가 의암호 왼쪽 호숫가를 돌아 중간지점까지 가는 동안 한참 푹 잤다. 시계를 보니 35분이 걸렸다. 21km가 이렇게 먼가, 이만큼을 뛰라고? 긴장감이 들었다.

그러나 버스에서 내려보니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초가을의 호수는 그 안에 또 하나의 산들을 품고 있었고 들에는 누런 벼, 배추밭, 들국화무리, 억새풀.... 오랜만에 자연을 만끽하는구나.

좋다! 마음껏 한번 뛰어보자.

저 하늘의 구름을 보라. 무엇이 거침이 있는가!

그리고 저 나는 새를 보라. 자유로움 그것이 아닌가!

자유로움! 누구나 회원해 마지않는 고귀함일 것이다.

나는 뭘 때마다 자유, 그리고 무심 두 단어를 화두로 삼고 뛰는 것이 버릇되어 버렸는데 그것이 2단호흡(두번 들이마시고 두 번 내쉬는)과 일치되어 "자-유" "무-심"하고 뚫다. 뛰는 순간만큼은 자유롭고 무심의 경지에 들기도 하지만 그것은 추구해 나가야 할 영원한 화두이기도 하다.

"박선배 ! 풀코스 선두가 와요! "

이제 우리 차례가 된 것이다.

젊고 건장하기 이를 데 없는 full course 선수들이 그야말로 쏜살처럼 지나가고 우리의 레이스가 시작되었다. 김재학 씨와 나란히 그러나 천천히,

두 시간 가량 뛰던 지루할테니까 얘기도 하면서 뛰자고 약속했다.

땅!! 드디어 출발!

심호흡을 몇번하고 시동을 걸었다. 서서히 1천 명의 거대한 대열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출발 전 논 옆 비닐하우스에 모였던 사람들 얘기가 생각났다. 하프코스 출발지가 맨 들판이어서 1천 명이 넘는 선수들이 논두렁을 다 점령하고 앉아 쉴 곳, 물 한 잔 먹을 곳이 없었는데 이것은 주최측의 무성의였다고 본다.

그래도 다행히 비닐하우스 안의 몇 사람은 로얄석인 셈이었는데 거기서 작년에 뛰었다던 사람이 오버페이스하면 끝이니까 아무쪼록 천천히 뛰어야 한다고 열을 올렸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중몰이로 뛰다가 나중에 잦은몰이로 뛰라는 것이지라우?"

"그렇지. 아니 중중몰이로, 아니 더 느리게 뛰다가 잦은몰이로..."

국악에도 다들 일가견이 있는지 판소리 장단까지 들먹이질 않나, 아무튼 오버페이스하지 말라는 것인 줄은 알겠는데... 나중에 일어서면서 중몰이 운운한 선수에게 "몰이가 무슨 무슨 몰이가 있습니까?" 했더니 "그것도 몰라?" 하는 표정으로 손가락을 꼽아가며 "판소리가 팔이요잉, 장단이 다섯개가 있는데요, 진양조에서 시작해서 중몰이·중중몰이·잦은몰이·휘몰이 요렇게 된다합니다" 한다.

다 들어본 말 같은데 순서를 이제야 확실히 헤아릴 수 있었다. 나도 한심하지. 아니 우리의 음악교육이 문제지. 알레그로·아다지오는 가르치면서 휘몰이·진양조는 안 가르쳤으니.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 4km 정도 뛰었을까, 옆에서 같이 뛰던 김재학씨가 보이지 않는다.

내가 중몰이가 아닌 중중몰이 장단인가? 아니면 그가 진양조로 쳐졌는가?(배웠으니 써먹어야지. 그런데 진양조가 얼마나 느린 거야?) 그가 더 경험이 있으니 나도 그를 따라 진양조를 타야 하는 거 아닌가? 그놈의 오버페이스에 겁을 먹어가지고 잠시 헛갈렸으나 "아무튼 같이 가자고 굳게

맹세(?)했으니 곧 따라 오겠지” 했는데 의암댐 꼬부라지는 데에서 잠시 멈추고 몸을 돌려 노란 유니폼을 아무리 찾아도 아직 보이지 않는다.

아쉽지만 더 기다릴 수도 없고. 그래 혼자 가자. 마라톤이 인생의 축소판 이라는데 어차피 인생은 자기 책임이고 고독한 것이라 하지 않았는가. 응원온다던 동료들도 이 핑계 저 핑계대고 핫바지에 뭐 빠지듯이 다 빠져버리고 결국은 혼자로구나.

그렇게 10km 지점까지 가는 동안 대머리 아저씨, 노랑머리 외국인, 갈래머리 아가씨, 흰머리 할아버지, 뺨뺨머리 고교생, 머리띠를 한 사람, 모자를 쓴 사람 등등 수많은 선수들을 제꼈는데 대부분이 진양조 장단. 아니 그 이하로 쳐지면서 심지어 걸어가는 사람, 가로수 밑에 주저 앉은 사람도 많았다. 거기에 비하면 나는 아직 중몰이 정도는 되는가. 그렇지, 인생은 마라톤이라고 누가 말했는가. “먼저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된다”는 말 그대로다. 아니다. 겨우 반 와가지고 그런 생각은 아직 너무 빨라, 반평생이 더 남은 셈이니 아직도 중중몰이나 잦은몰이로 욕심을 내면 안 돼.

“후후 자-유, 후후 무-심”

의암댐을 건너와 호수 반대편을 바라다 보니 아직도 하얀 꼬리가 계속 꼬물거리며 따라오는 것이 보였다. 수많은 사람들을 지나쳤는데 대부분 호흡이 고르지 않다. 다행히 나는 아직은 ‘자-유, 무-심’ 호흡법을 지키고 있었다.

좌로 돌리고 우로 돌리고 올리고 내리고

아! 힘들다.

오르막이 계속 되었다. 모두 헉헉댄다.

그렇지, 여기서는 저단기어를 써야지 속도를 줄였다. 역시 달리기는 오르막이 어려워. 처음으로 급수대에서 물병을 집어들었는데 별척별척 마실 수가 없었다. 한 모금은 가시고 한 모금만 마시고 나머지는 무릎에 뿌리니 일시적이지만 시원한 게 그만이었다. 과열된 엔진을 수냉식으로 식혀주는 효과라고나 할까.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다. 가랑이와 팬티형겹이 마찰이 되어 몹시 쓰라리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집에서 손질을 했는데도 땀과 물에 젖어서 더 사나워진 팬티가 계속 긁어대는데 몹시 신경이 쓰이는 것이었다. 팬티를 좌로 돌리니 오른쪽이 더 쓰리고 우로 돌리니 왼쪽이 더 마찰이 심하고, 올려도 보고 내려입어도 보고 해도 별무효과. 생각 같아서는 벗어서 의암호수에 던져버리고 뛰고 싶은데…… 아무리 바빻어도 동대문 스포츠 상가를 다녀왔어야 했는데… 후회막급. "에라. 지가 피밖에 더 나겠냐."(결국 지금은 딱지가 앉고 말았다) 자동차도 기스 좀 나는 것은 별로 주인이 신경을 안 쓰지 않아, 발통이 통채로 빠져나간 것도 아닌데. 벌써 15km나 와 가는데 예서 말 수도 없고 "계속 악셀밧아. 자-유 흑흑, 무-심 흑흑"

그런 대로 잘 나가네!

소양강 처녀

멀리 소양교가 보였다. 노래방 인기차트 1위 소양강처녀

"해-저문 소양강에 황혼이 지면--"

제법 뛰는 박자와 맞았다. 이왕 노래가 나왔으니 자, 18번을 한 번 해보자.

"별-처-림 아-름-다-운 사아랑-이여--"

갑자기 속도가 느려졌다. 안 돼. 이걸 진양졸 거야. 좀더 빠른 걸로 뭐가 있다. 이걸 어떨까. 군대 시절에 신물나게 악췌던 '행군의 아침' 시작!

"동이 트는 새벽꿈에 고향을 본 후 외투입고 투구쓰면 맘이 새로워…"

'앗싸! 해주는 사람 없나?'

달리면서 부르기로는 가장 적합했다. 이래서 행진곡이 따로 있나 보다. 2절, 3절을 다 하고 싶었는데 오래 되어서 가사가 생각나지 않아 1절만 되풀이했다. 잠시 지루함과 고통을 잊을 수 있었다. 이래서 노래가 좋은 거야.

"아. 지치고 지루하구나."

아까 보았던 소양교는 아직도 까마득하고 이제 중얼거릴 노래도 없고, 들 관에서는 농부들이 점심인지 새참인지 아, 참 맛있겠구나. 막걸리는 얼마나 꿀맛일까. 저기 가서 한잔 얻어먹고 천천히 가면 어때, 어찌자고 이 먼 길을 지쳐 달리고 있는가.

이쁜 종아리!

지금껏 수많은 종아리들을 지나쳐왔는데 대부분 흉칙(?)한 털복숭이 종아리들이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미끈하고 이쁜 종아리가 빨간 런닝팬티 아래서 리드미컬하게 움직이고 있지 않은가. 배번 2043, 예쁜 아가씨였다. 주범도 규칙적이고 안정돼 보였다. 선수출신인가? 속도도 괜찮았다. 자기와 속도가 알맞은 주자의 뒤를 따라가는 것은 여러 모로 이점이 있는 법. 당분간 목표삼아 뒤를 따랐다. 따라가면서 이런 생각도 들었다. 최소한 2043을 따라가면 되겠다. 아무튼 좋은 향도를 만난 셈인데 한 1km쯤 갔을까. 갑자기 목표가 없어졌다. 뒤돌아 보니 길가에 있는 급수대로 뛰고 있었다. 나는 다시 혼자가 되어 뛰었다. 다행으로 여전히 페이스는 유지되면서 계속 몇 사람씩 제껴나갔다.

어느덧 호반길을 다 지나고 춘천시내로 접어드니 연도에 많은 춘천시민들이 환호하며 손을 흔든다. 초등학교·아저씨·아주머니·할머니 할 것 없이 길가에 서서, 자전거를 멈추고 또는 차안에서 모두 열심이다. 고맙고 반갑고 사기가 올라감을 느꼈다.

그런데 체력은 떨어지면서 왼쪽 엉치뼈와 관절 부분에 고통이 왔다. 아까 군가 신나게 부를 때쯤 내리막길에서 종종걸음(중중몰이 장단쯤 땀을 꺼다)을 친 것이 원인일 게다. 내리막길도 방심하고 속도를 내는 것이 아니구나 싶었다. 오르막만 어려운 줄 알았더니, 인생살이나 달리기나 쉬운 게 아니로구나. 인생은 苦海를 헤엄치는 것이라고 했던가.

아! 이제는 노래도 시도 생각이 나지 않고 이쁜 종아리도 없고 게다가 이젠 발바닥마저 뜨거웠다. 햇볕에 달궈진 아스팔트 때문일까, 아니면 신발이 번번히 않아서일까, 이럴 때 황영조화는 괜찮을까? 기온까지 높아 땀도 주체할 수가 없었다. 가져온 목장갑 두짝은 벌써 물수세미가 되어 길

가에 버린 지 오래 되고 이래 저래 고통의 연속이로구나. 그러나 어쩔 것인가 참고 달리는 수밖에….

언젠가 설악산 대청봉에서 기진맥진 내려와 봉정암을 지나 쌍폭, 그 큰 수영장만한沼에 온몸으로 풍덩 뛰어들었을 때 얼마나 시원했었던가. 모골이 송연할 정도였잖아. 그리고 또 지리산 종주할 때는 천왕봉에서 파김치가 되어가지고 백무동 계곡으로 기어내려와 그 얼음장같은 계곡물에 발담그고 마셨던 막걸리 한 잔! "발아, 불쌍한 내 발아! 그때를 생각해봐. 참으로 시원하고 행복했던 그때를."

이때였다. 눈 앞에 다시 빨간 펜티, 아니 이쁜 종아리가 나타났다. 반가웠다. 급수대에서 물을 마시고 다시 나를 추격해 온 것이다. 역시 대단한 런너임에 틀림없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때로는 어깨를 나란히 하며 말 그대로 런닝메이트가 되어 뛰었다. 함께 뛰니 훨씬 수월한 느낌이다. 어느새 그렇게 기다렸던 소양교 위를 달리니 가로질러오는 의암호 바람이 무척이나 시원하다.

둘이는 계속 추월하며 나아갔다.

이제 얼마나 남았을까. 이 지루한 직선주로는 어디가 끝일까, 급수대에서 물병을 집어와서 한모금 마시고 2043의 무릎에 뿌려주었다. 시원하지? 기사도 정신인지 고통을 잊기 위한 방편인지 동병상련의 입장인지... 이렇게 힘들 때 아주 재미있고 재치있는 조크를 한다면 청량제가 되겠지. 만득이 시리즈? 사오정? 그런데 아무 것도 떠오르지 않는다. 고작 웃겨본다는 게 "내 엉덩이 크죠?" 이걸 무슨 망발인가. 잘하면 성추행 고발감이다.

"여자 네 번째! 4등이야! 화이팅!"

누군가 연도에서 2043을 응원했다. 그 말을 듣고 앞을 보니 여자선수 한 사람이 뛰고 있었다. 곧 바로 추월했다. 그렇다면 3등은 확보한 셈이다. 조금 더 나가니 또 다른 여자선수가 보인다. 여자부 2위 선수, 곧 따라잡는가 했는데 이번에는 만만치가 않았다. 거의 1m까지 압축되는가 싶으면 달아나고 달아나곤 한다. 어쨌든 나로서는 좋은 타깃이 생긴 셈이었는데 연거푸 추월 때문인지 2043의 호흡이 고르지가 않다. 상당히 불규칙적이고 숨이 턱에 차는 느낌이다.

"좋아요. 이대로 운동장 입구까지 몰고 갑시다. 그래가지고 스타디움 들어서서 트랙에서 제껴버립시다." (이거 공자 앞에서 문자 쓰는 거 아닌가

몰라. 진짜 선수를 코치하는 거야, 뭐야?) 좀처럼 거리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드디어 스타디움이 보인다. 이제 불과 이삼분만 뛰면 된다. 갑자기 힘이 솟는다.

"자, 이제 나머지는 숨 안 쉬고도 뛸 수 있습니다. 스피트 자신 있어요?"

대꾸 대신 고개를 가볍게 흔든다. 안타까웠다.

스타디움 관문 앞에 양쪽으로 사람들이 뻑뻑히 늘어 서서 자기 선수들을 응원하고 사진 찍고 물을 뿌려 주고 마치 심한 취재경쟁을 벌이는 모습이다.

"나를 응원해 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구나."

그래도 감격스러웠다.

2043을 뒤로 하고 스피트를 시작했다. 관문을 통과하여 트랙을 들어서니 지친 선수들이 마지막 안간힘을 쏟고 있었고, 스타디움 안은 온통 환호와 흥분으로 들떠 있다.

바짝 속도를 올렸다. 이 정도면 휘몰이 장단쯤 될까. 순식간에 여자 2위 선수를 포함, 한 무리의 선수들을 제꼈다. 본부석 관중석에서 일제히 환호와 박수가 터졌다.

용기백배, 결승점까지 전력 질주!

숨이 턱에 차고 다리는 아무 감각이 없다. 또 한 무리를 뒤로 하고 두손을 번쩍 들었다. V자를 그리면서...

골-인!!! 이내 2043도 골인.

우리는 하이파이브로 서로를 자축했다. 곧 김재학 선수도 들어오고...

이렇게 장장 21.0975km 대장정이 끝이 났다.

이 뿌듯함, 대견함, 그리고 성취감!

훌륭한 레이스였다.

황금빛 나는 완주 메달을 책상 앞에 걸어놓고 다짐해 본다.

내년에는 full course에 도전해야지.

(국회 속기2과)

새로운 세대를 열망하여

김 재 학



“한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구약성서 전도서 1장 4-7절)

스물다섯 청년의 몸으로 국회에 입사하여 이십수년의 세월, 속기라는 이름으로 인연을 맺어 즐기차게 달려온 지난 날을 접어야 할 시간입니다.

말단 속기사로 입사하여 말단 속기사로 퇴사하게 되니 달리 할 말이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인생의 황금기를 가로질러 달려온 길이기에 국회 속기사라는 직업은 나의 인생사의 가장 소중한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될 것임은 분명합니다.

유신의 찬바람이 거리에 횡행하던 시절, 아무 것도 모르고 공무원 사회에 투신하여 오직 여의도만 바라보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나의 국회 시절은 한국 의회사에 있어서 어느 한 순간도 격동기가 아닌 적이 없었을 정도로 파란 만장한 시기였습니다.

1977년 입사하자마자 유신의 서슬 퍼런 눈동자는 이 땅의 민주화와 인권을 위한 투쟁의 불길을 억눌러 곳곳에서 마찰이 있었고, 거리에서는 화염병과 최루탄으로 영일없이 지새우더니 급기야 2년 후인 1979년 10월 26일의 총성은 한 시대의 종말을 고하는 서막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후 1980년의 5·17은 국회의 문을 강제로 닫게 만드는가 하면 공무원 사회의 대숙정이라는 찬 바람 속에 동료들을 떠나 보내야 하는 아픔을 겪었고, 5공 정권의 탄생은 이 나라 민주와 인권의 또 다른 사각지대를 만들어 다시금 국민적 저항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며 1987년의 6·10 민주항쟁을 통해 6·29선언과 그 후속조치로

이어진 대통령 직선제 헌법 개정과 민주적 정권의 수립 등은 국회에 청문회와 국정감사제도가 도입되는 계기가 되어 바야흐로 속기사들의 맹활약을 요청하는 시기가 도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속기사들은 늘 역사의 현장과 함께 있었기에 역사의 격동만큼이나 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정쟁의 심화는 곧 국회의 파행으로 이어지며 술한 비정상적 국회운영의 현장에서 곤혹스러운 장면들을 목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소위 날치기라는 이름의 국회운영의 한 축을 속기사가 담당하게 되기도 하였습니다만 그런 중에도 오늘까지 대과없이 근무를 하다가 이제 새로운 문을 두드리게 되니 아쉬움과 함께 감회가 새로워집니다.

21세기를 앞둔 오늘, 거세게 몰아치는 정보화라는 물결의 격랑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우리 자신의 능력에 한계를 느끼면서도 어찌할 수 없이 거기에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시대의 소명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깨가 무거워 가는 길이 험해도 그 길은 우리 국회 속기사들의 새로운 책무이자 이 시대의 확실한 명제이기도 합니다.

본인은 22년 동안 국회 속기사로 근무를 하면서 그간 국회 회의록 발간의 한 모퉁이를 담당하던 입장에서 이제 떠나려 하니 속기에 대한 애정은 걱정과 아쉬움으로 발길을 잡습니다.

특히 정보화시대를 맞아 각종 정보와 자료들이 정보공개법의 제정이라는 법적 장치가 아니라도 이제는 신속하게 국민에게 공개되고 의원들에게 서비스되어야 한다는 것은 역사와 시대흐름의 당위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회의록의 신속발간은 국회 속기과의 가장 큰 명제이자 동시에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퇴임하는 입장에서 속기과를 위한 애정과 걱정으로 사심 없는 몇 가지 고언의 말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지나친 신속발간의 강조는 본말이 전도되어 자칫 "엉터리라도 좋다 빨리만 해다오" 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을까 적이 염려스럽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 그 동안 수차 논의가 있었고 건의가 되었던 주입속기사제 등의 도입을 이제는 진지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둘째는 회의록 발간체계의 과학적 검토와 재정립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국가나 기업이나 가게나 어느 것을 막론하고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서는 업무과정의 철저한 분석과 평가가 필요합니다. 공정한 평가와 분석을 통해 문제점이 발견되면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연구와 제시를 통해 차후에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말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속기실무자의 개인별 속기시간, 원고제출일, 담당계장의 원고검토 후 편집담당으로의 이송일, 인쇄소에서 초교 및 재교 등 인쇄과정 등을 날짜별로 정밀분석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는 회의록 발간의 통일성 확립입니다. 수필번문시대에서 탈피하여 워드를 통한 번문작업을 하면서 나타난 현상 중의 하나는 각 속기사마다 사용하는 각종 인용부호의 불일치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아직 제대로 교육이 되지 않고 명확한 지침이 서지 않아 통일이 되지 않고 있음은 원고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한번이라도 해 본 사람이라면 금방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인용부호 " " ' ' [] 등과 쉼표(,) 가운데점(·) 등의 활용에 있어서 직원 각자의 느낌과 상식만을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회의록 앞뒤의 인용부호 등이 서로 다르게 표기되어 국회회의록의 위상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통일작업과 교육이 시급합니다.

넷째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정위원회(예컨대 국방, 법사, 재정, 환경 등)의 전문속기사 육성이 필요함을 절감합니다. 회의용어들이 날로 전문화되어가는 추세에 있어서 단순히 순환근무라는 편의성만을 강조하여 아무런 대책없이 계속 위원회를 바꾸는 것은 직무의 전문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본인의 경우 1989년부터 금년까지 만 10년 동안 국방위원회를 담당하였음에도 회기마다 새로운 용어들이 등장하여 아직도 잘 몰라 아리송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국회 속기과에 찬란한 번영의 꽃이 피어나기를 바라는 심정의 일단을 접습니다.

이제 발길을 돌려 세운 나그네는
그날 밤 총소리에 쫓기며 길을 잃고
죽음의 산길을 타던 자,
바다가 있어야만 산은 아름답고
희망은 외로움 속의 순례자
창은 들의 꽃
바람 부는 대로 피었다 사라지는 한 순례자
모두의 건투를 빕니다.

(전 국회속기1과 근무, 98. 12. 31 명예퇴직)

5년간의 불철주야

최 상 원



속기업무를 시작한 지 어느덧 반세기가 되었다니 속기인의 한 사람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50주년! 반세기의 의미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왜냐하면 지난 반세기의 속기역사를 정리·평가하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진로와 방향을 제시한다는 의미에서도 그 의미는 매우 크다 할 것이다. 어느날 홍기표 선배님(국회사무처기록편찬국)으로부터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책자발간을 구상하고 있는데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으면 기고하라"는 부탁을 받았다. 머리털 나고 처음 받아본 원고청탁이지만 50주년을 기념하는 뜻 깊은 사업이라 생각하고 흔쾌히 받아들였다. 그런데 막상 PC 앞에 앉으니 어떤 키보드부터 두드려야 할지 난감하다.

내가 속기와 인연을 맺기 시작한 것은 18년전, '80년 2월 국회속기사양성소(13기)에 입소하면서부터다. 열심히 해 보겠다는 각오에서 출발하였으나 '80년 5월, '서울의 봄'을 맞아 우리는 거리로 밀려났고 이유도 모른 채 보름간의 휴강에 들어갔다. 약속된 날이 되어 국회에 모습을 드러냈으나 국회 내·외곽에는 장갑차와 군인들이 득실거리고 있었으며 우리의 신분도 '국회속기사양성소' 학생신분에서 '국가보위입법회의속기양성소' 학생신분으로 탈바꿈되고 말았다. 정의가 불타던 젊은 시절, 민주국가의 존립이 붕괴되는 정치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속기공부보다는 막걸리와 더 친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언제까지 방황의 시간을 보낼 수는 없었다. 기왕에 시작했으니 끝을 봐야 되겠다는 심정으로 열심히 한 결과 1년 후 수료증도 받고, 속기사 1급자격증도 거머쥌 수 있었다.

군대에 갔다 오니 몸과 마음이 훌쩍 커진 기분이었다. 속기사가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지위·역할은 나의 기대치에 훨씬 못 미쳤으며 몇몇 선배들과의 대화에서도 그런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다른 공부를 해야 할지, 속기를 계속해야 할지 중심을 잡을 수가 없었다. 갈등의 시간 속에 기회가 찾아 온 것이다. 「김천전문대학 비서행정학과」에서 강의요청이 왔다. 지방인 관계로 일주일에 한 번, 6시간 강의, 한 학기 3학점이었으며 가르치는 재미가 쏠쏠했다. 그러던 중 또 다른 기회가 찾아 온 것이다. 나는 이것을 중심으로 속기 선·후배간의 우정, 애환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89년 4월 어느날 「한겨레신문」에 "MBC 뉴스데스크 속기록제작 검토"라는 제하의 Box기사가 실린 것을 보았다. 나는 그 기사를 보는 순간 동물적 감각(animal spirits)으로 그 기사를 쓴 「한겨레신문」 기자에게 곧바로 전화를 걸었다. MBC 담당자를 알아낸 후 그 담당자와 전화인터뷰를 시도하여 많은 정보를 알아냈다.

당시 MBC 뉴스데스크 속기록제작의 검토배경은 보도의 공정성, 편집과정의 투명성, 기록·보전의 중요성 등의 이유로 노·사합의하에 속기록을 제작하기로 한 것이다. 영상매체로 흘러버릴 수 있는 매일매일의 뉴스가 익일 오전 8시면 어김없이 속기록으로 제작되어 보도국 관계자들의 morning meeting 자리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속기인이라면 한 번쯤 하고 싶은 사업일 것이다. 나는 흥분되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으며 컨소시엄(consortium)이 필요했던 것이다. 박순필 선배님(현 국회사무처 기록편찬국), 조정구 선배님(현 노동부 서부노동사무소 사무관)을 찾아 뵙고 개괄적인 설명을 하였다. 두 선배님 모두 즉석에서 OK! 우리는 그 날 가칭 「의회속기합동사무소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주잔을 기울였다. 약 1개월 가량 정신없이 뛰어다녔다. task-force team이 따로 없었으며 각자의 임무에 의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풍부한 기획력을 제공한 조선배님, 현장을 누비며 실천에 옮기고 집행한 나 역시 한몫 했으며, 대인관계 등 사업전반을 총괄하는 박선배님, 우리 세 사람은 이때부터 삼박자가 척척 맞는 선·후배 사이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사무소 위치선정 및 설립을 필두로 집기·비품을 장만하는 등 내부 살

림살이를 마무리 지었다. 동시에 MBC 담당자들과의 미팅을 통해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의지와 확신을 심어주는 데 전력을 다 하였다. 그러나 말로서 그들을 설득시키기에는 불충분했다. 다음날 하루분의 뉴스데스크 속기록을 제작하여 MBC측에 제시한 결과 반응이 오기 시작했다. 점차 우리의 설득력은 힘을 발휘했으며 계약과정에서 우리의 요구(용역금액, 납품절차 등등)가 대폭 수용되었다. '성취감 만점'이었다. 자축연을 마련하여 두 선배님의 노고에 감사했고, 후배의 수고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서로를 격려하며 신뢰하는 사이 선·후배사이의 우의는 날로 돈독해져 갔다.

뉴스데스크가 밤 9시에 시작하기 때문에 밤 8시까지의 사무소에 출근하여야 했다. 우리는 각자의 직장에 아침 출근, 오후 퇴근이라는 정상적인 출·퇴근 외에 저녁에 출근하여 새벽에 퇴근하는 불나비(?) 인생을 시작한 것이다. 사무소에 출근하여 간단한 저녁식사를 마치고 밤 8시 55분까지 stand by 완료! 뚜~뚜~뚜~ 9시를 알리는 시보와 함께 기록은 시작되고 각자의 역할분담에 의해 사무실은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초창기에는 새벽 2시나 되어야 속기록제작업무가 완료되었으나 시행착오를 거듭한 결과 자정 이전에는 모든 업무가 마감되는 성과도 올렸다. 기상이변이라든가 총선, 대선 등으로 인해 뉴스가 길어질 때면 새벽 5~6시나 되어야 일이 끝난 경우도 있었다. 그때는 어김없이 1~2시간 자고 일어나 옷만 갈아 입고 허겁지겁 각자의 직장에 다시 정상출근해야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련한 추억으로 떠오른다. 매일 매일 이중 직장생활의 고단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웃음 잃지 않고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던 것은 소속 직장은 다르지만 속기업무를 함께 한다는 공통분모가 동기부여로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각자의 직장은 상하관계가 뚜렷한 수직조직이다 보니 나름대로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상당했을 터이나 우리는 선·후배간 단위업무 중심으로 뭉친 수평조직이다 보니 그런 스트레스가 없었다.

종합뉴스를 속기록으로 제작하는 일은 우리 나라 방송사상 MBC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것이었으며, 우리는 그 일을 하게 되어 -용역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 없이 -많은 자긍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KBS, SBS도 종합뉴스를 속기록으로 제작하게 되었으며, 후발업체들의 투자와 노력으로 지

급 현재는 TV뉴스가 전파를 타자마자 PC통신을 통해 문자방송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내가 속기인으로서 보람을 느꼈던 때는 속기 선·후배간에 보이지 않은 위계 질서가 자리하고 있어 선배에게 존경과 신뢰를, 후배에게 사랑과 가르침을 주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요즘은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다. 그것은 사회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혈연집단사회가 붕괴되는 과정에서 초래되는 현상이 아닌가 생각된다.

지금 현대 속기인들의 구성을 보면 고려식·동방식·의회식 등 수필속기 분야와 CAS, 감퓨터, 빠른손워드 등 컴퓨터속기분야로 양분되어 있고, 이들 속기법 식견에도 사분오열되고 있다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이것을 한데 묶는 모티베이션(motivation)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대한속기협회」가 중심이 되어 이름에 걸맞게 대한민국의 모든 속기인을 큰 그릇으로 수용하여 강한 응집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선도하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아무쪼록 속기업무개시 50주년을 진심으로 자축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속기인들이 기록보국의 정신으로 각자 맡은 바 기록·보전업무에 최선을 다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한국은행 의사실)

☞ 신청을 바랍니다☞

대한속기협회에서는 보다 나은 속기법 개발과 권위있는 회의록 발간에 기여할 수 있는 회원 여러분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그 연구논문집을 발간하려고 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자격 : 본 협회회원
2. 대상연구과제 : 속기(수필·기계), 속기사, 회의록 등 관련된 제반사항
3. 지원내용 : ① 연구에 필요한 자료 협조
② 조정이 원고료 지급 ③ 연구논문집에 게재·배포
4. 지원신청기간 : 연중
5. 신청하실 곳 : 본 협회 연구위원회(국회 속기과) (02) 788 - 2377, 2379

속기에게

김 학 순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어언 50년을 살아온
한국속기여
사방으로 퍼져가는 소리를
그대로 낚아채어
하얀 노우트 위를
물고기인 듯 새인 듯 바람인 듯
온 몸으로 춤추며
눈에 보이는 책으로 나오기까지
반백년 오롯한 너의 삶
내 삶의 반의 반백년도
너와 함께 뒹굴며 정들었거늘
기계문명의 발달은
기계속기로 되어지고
컴퓨터로 이어지고 있으니
대망의 2000년대엔
더욱 훨훨 날아다닐
보다 정확하게
보다 빠르게
보다 편하게 꼬옥 잡아보렴!

(국회 속기1과)

협 회 동 정

김 난 희

◆ 지대섭 회장

- 트라이에슬론 회장 자격 아시아선수권대회 선수단 출정식(98.6.15)
- 제1회 트라이에슬론회장배 전국선수권대회(98.8.30)
- 김대중대통령 정기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3년 연속 활동

◆ 권용태 부회장

- 강남문화원장 취임(98.7.1)
- 경주대학 출강

◆ 신세화 부회장

- 불교대학 수료(98.12.31)

◆ 이사회

- 제176회 이사회 : 제31회정기총회의건, 1997년도결산승인의건, 1998년도사업계획 및 예산안승인의건, 속기강습결과보고(1998.1.19)
- 제177회 이사회 : 제31회 정기총회 결과보고 등 보고, 1998년도예산안에 관한건(1998.5.8)
- 제178회 이사회 : 사업부 세미나 보고 (1998.6.22)
- 제179회 이사회 : 인터스테노 참가 결과보고, 단체회원에 관련된 사항 (1998.8.18)

◆ 세미나

- 제5회 속기학술세미나 : 6월13일~14일 이틀간 강원도 평창군 휘닉스파크에서 개최. 188명의 회원이 참여하여 첫날 정보사회와 기록문화(홍사덕; 국회의원),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이만의 ; 행정자치부 자치

지원국장)에 대한 주제발표와 2부 행사가 있었으며, 둘째날에는 속기사의 역할증대 방안(이주성 ; 국회사무처 속기1과 사무관)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음.

- 제6회 속기학술세미나 : 10월30일 대전 소재 한국통신인력개발팀 소강당에서 개최. 200여명의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현 시대적 상황에서 공직자의 자세(황인하 ; 국회기록편찬국장), 지방의회 운영의 방법론과 묘수(최민호 ; 충청남도 정책관리관), 지방자치의 올바른 이해와 발전방향(김희창 ;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전문위원), 공직여성이 화장법과 그 예절(조정희 ; 태평양뷰티 교육부 실장) 등이 주제발표를 함.

◆ 제1회 속기정보화연찬회 개최

98년 10월 17일 지방의회 속기사의 PC통신·전산운용능력 배양을 통해 향후 구축할 협회 통신망 운용에 참여케 하여 회원 상호간 정보교류 및 업무전산화의 능동적인 추진을 촉진함과 동시에 지역속기문화 창달을 도모할 목적으로 26인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

◆ 제6회 속기경기대회 : 10월10일 대전 소재 한국통신인력개발부 제1연수관 소강당에서 개최. 39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의 수상자는 금상 임선애(경남 고성군의회), 은상 임정택(충청남도의회), 동상 윤한용(충청북도의회)이 수상.

◆ 제198회 정기국회 국정감사실시(98.10.23~11.21)

◆ 인터넷으로 국회회의록 검색

99년 1월1일부터 국회홈페이지를 통해 국회회의록을 누구나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국회회의록 검색 서비스가 시범운영됨.

회 원 동 정

♣ 승진 · 축하합니다.

- 김미라 : 속기주사보 → 속기주사(97.6.26)
- 김수복 : 속기주사보 → 속기주사(97.6.26)
- 백순정 : 속기주사보 → 속기주사(97.6.26)

♣ 임용 · 축하합니다.

- 편무광 : 새정치국민회의 중앙당 사무처 속기사(부장 대우) (98.7.1)

♣ 전보 · 수고하셨습니다→반갑습니다.

- 황인하 : 국회사무처 특별위원회 입법심의관 → 기록편찬국장(98.6.26)
- 이승철 : 국회사무처 → 보건복지위원회(98.9.26)

♣ 퇴직 · 수고하셨습니다

- 고태중 : 법원서기관 명예퇴직(97.12.31)(현 서울지방법원소속 집행관)
- 정우용 : 국회사무처 정년퇴직(98.6.30)
- 최복임 : 국회사무처 정년퇴직(98.6.30)
- 편무창 : 국회사무처 퇴직(98.6.17)
- 전난영 : 국회사무처 명예퇴직(98.9.4)
- 임철순 : 국회사무처 정년퇴직(98.12.31)
- 김선필 : 국회사무처 명예퇴직(98.12.31)
- 현병고 : 국회사무처 명예퇴직(98.12.31)
- 김재학 : 국회사무처 명예퇴직(98.12.31)

♣교육 · 수고하셨습니다.

- 이경숙·황은하·신연희·남미경·김기선·엄의숙·이순영 : 의정연수원 초급실무
자과정(98.12.14~12.26)

♣사망 ·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엄덕훈(서기관) : 국회사무처(98.9.4)

♣결혼 · 축하합니다.

- 이봉선 : 국회사무처(98.12.26)
- 손상범 : 전주시의회(98.11.7)

주소나 전화번호 · 연락처가 바뀌신 회원은 협회로 연락주십시오.
회원동정란에 게재하겠습니다.

발전기금 납부자명단

협회발전기금 조성에 뜨거운 성원 보내주신 회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협회가 좀더 활력있고 회원들에게 꼭 필요한 협회로 발돋움하고자 추진했

던 '협회발전기금조성'에 드 동안 많은 분들의 뜨거운 성원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많은 회원들의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30만원 이상을 납부한 회원에게는 평생외원으로서 회비납부의무가 평생 면제됨.

※ 연락처 : 성천영이사장 (02) 788-2339 이경식총무이사
(02) 788-2374 김영중재정부장 (02) 788-2371

※ 계좌번호 : 농협국회지점 036-01-083485(대한속기협회)

발전기금 납부 회원명단

회원명	금액	회원명	금액
지대섭 회장	300만원	경영소프트	330만원
신세화 부회장	100만원	영덕훈 회원	30만원
권용태 부회장	50만원	고태중 회원	60만원
김진기 고문	50만원	전해성 회원	30만원
최황수 회원	50만원	이경식 회원	30만원
성천영 이사장	30만원	이강현 회원	50만원
김기영 회원	30만원	최석모 회원	30만원
홍순관 회원	30만원	손재옥 회원	30만원
김창진 회원	30만원	이석연 회원	30만원
유순태 회원	40만원	박광택 회원	30만원
정명길 회원	30만원	간수현 회원	30만원
김순철 회원	30만원	이범재 회원	30만원
환인하 회원	30만원	신현중 회원	30만원
김선옥 회원	30만원	윤희억 회원	10만원
김선필 회원	10만원	이영렬 회원	30만원
송기철 회원	30만원	최복임 회원	10만원
신희동 회원	30만원	이상호 회원	30만원
한국스데노	380만원	속기사 양성소	10만원
박정호 회원	30만원	김춘원 회원	3만원
이주성 회원	30만원	김치원 회원	30만원
		육심옥 회원	30만원

협 회 임 원

명예회장 : 이세기

회 장 : 지대섭

상임고문 : 김진기, 정원도, 안인영

부 회 장 : 권용태 신세화

이 사 장 : 성천영

총무·재정이사 : 이경식(총무부장 : 한기수, 재정부장 : 김영중)

사업이사 : 신희동(부장 : 김덕진)

회원이사 : 이주성(부장 : 안기철)

홍보이사 : 김선옥(부장 : 장미경)

국제이사 : (부장 : 김은숙)

자격심사위원장 : 손재욱(간사 : 홍기표)

연구 위원장 : 김창진(간사 : 손숙자)

이 사 : 김기영 최황수 홍순관 한동춘 박정호 김점동

감 사 : 황인하 김선필

■ 편집후기

ALT-X를 하기 전에

휴가도 못 가고 보내버린 한 해였다.

정신없이 바쁜 중에도 35호 탄생을 위해 도와주신 회원들께 감사를 드린다.
특히 장미경 부장의 헌신적인 봉사가 없었으면 편집후기도 쓰지 못할 뻔했음을
알아주셨으면.....- 선

이번 호를 준비하면서 배운 것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선배들의 '속기'에 대한 사랑이다.

지난 50년 동안 선배들의 그 뜨거운 열정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들이 있었을까 자문해 보며, 또 나를 이만큼 성장시키게 해준 '속기'에게 나는 그 동안 얼마나 보답했는지 반성해 본다.

다음에 오는 이들은 나같지 않기를 바란다.- 미

속기사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지도 어언(?) 7여년, 올해 만큼 정신없었던 해는 처음인 것 같다.

혹시 속기계를 발간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 전전긍긍했지만 여러 회원님들이 관심을 가져 주신 덕분에 나중에는 원고의 홍수 속에서 행복한 비명을 지르기도 했다.

언제나 이번 호만큼만 풍성했으면.....- 현

출기차게 소집된 임시국회, 그리고 정기국외와 국정감사.

지금도 한창인 청문회, 이 바쁜 와중에도 속기계 35호가 나왔습니다.

귀한 원고 주신 모든 회원님들과 특히 저의 짐을 가볍게 덜어주신 유순태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시

책상 위에 어지럽게 쌓여 있음 속기계 원고들을 보니 문득 나오는 달리 각 영역에서 협회를 위해 자기 시간을 쪼개며 열심히 일하기는 다른 분들이 참 대단하다 싶어진다.

그 분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며..... -숙